

제 104 호

세계 농업
WORLD AGRICULTURE

2009. 4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부연구위원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2-7312
김연수 연구원 yuns00@krei.re.kr TEL 02-3299-4307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 3 WTO에서의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 13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통해 본 각국의 농업지원
 - 27 뉴질랜드 임업 현황
 - 41 제스프리(ZESPRI)의 현황과 성공요인
 - 61 미국과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69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3)
- 7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3)
- 89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3)

세계 농업 브리핑

- 105 세계 농업 브리핑 (2009.3)

세계농업통계

- 121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124 WTO,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농업·농정 동향

WTO에서의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통해 본 각국의 농업지원

뉴질랜드 임업 현황

제스프리(ZESPRI)의 현황과 성공요인

미국과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WTO에서의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송 주 호

2001년부터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UR과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이행하는지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1. DDA에서의 국내 보조금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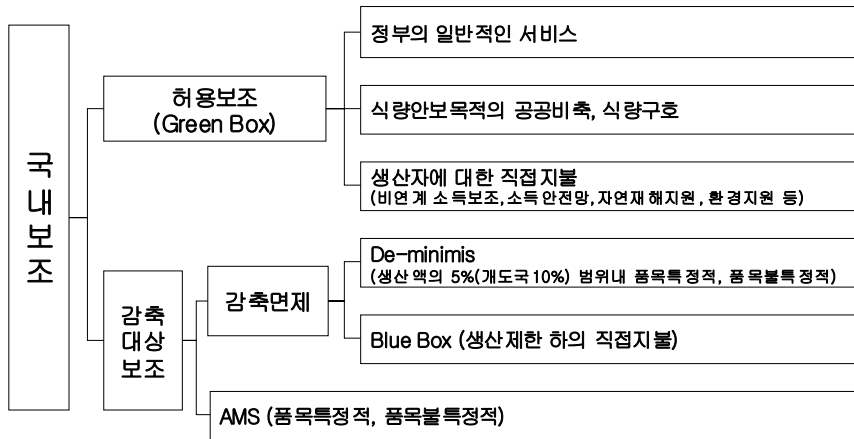
DDA에서는 기본적으로 UR 농업협정의 보조금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 보조금은 허용보조금, 감축약속에서 면제되는 보조금(de-minimis, 블루박스),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으로 대별할 수 있다.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1)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하며,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AMS(보조총액측정치)계산은 시장가격지지금액과 감축면제되지 않는 직접지불금액의 합계이며, 시장가격지지 = (국내 관리가격 - 국제가격) × 적용물량 으로서 실제 재정지출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허용보조 중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1) 비연계소득보조, 2)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정망계획에 대한 지원, 3)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불, 4)탈농 구조조정지원, 5) 자원폐기 구조조정지원, 6)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7)환경계획 지불, 8) 지역지원 지불로 나누어진다.

* 본 내용은 WTO에서의 보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hsong@krei.re.kr, 02-3299-4187)

그림 1 UR에서의 국내보조의 종류



DDA에서의 국내보조금

DDA에서 UR과 달라진 내용은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신설하고, 보조총액측정치(AMS)에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블루박스(BB: Blue Box)의 유형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은 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합한 금액이며, 개별 보조금 감축과는 별도로 OTDS도 삭감해야 한다. AMS는 전체 한도를 삭감해야 하며 품목별로도 한도를 정해 품목 간 전환가능성을 제약하였다. 블루박스의 유형을 한가지 더 신설(생산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고정된 면적, 혹은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가격과 연계하여 지급 가능)하여 미국의 CCP 제도를 블루박스로 분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DDA에서는 허용보조 이외의 보조금은 UR보다 한도를 줄이거나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DDA에서 UR과 달라진 내용은 무역 왜곡보조총액을 신설하고, 보조총액 측정치(AMS)에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블루박스의 유형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1 UR과 DDA의 보조금 유형별 한도 및 감축율 비교

구 분	선진국		개도국	
	UR	DDA	UR	DDA
AMS 감축율	20%	45~70%	13.3%	30%
de-minimis 한도	생산액의 5%	생산액의 2.5%	생산액의 10%	생산액의 6.7%
블루박스 한도	사용실적	생산액의 2.5%	사용실적	생산액의 5%
OTDS 감축율	-	55~80%	-	36.7%

2. UR과 DDA에서의 주요국 보조금 안도 비교

선진국에 유리했던 UR 국내 보조금 안도

주요국의 농업생산액 대비 AMS 양허 한도 설정비율을 살펴보면 EU와 일본은 매우 높고 미국은 중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UR 당시 국내보조금 한도설정은 선진국에 매우 유리하였다. 주요국의 농업생산액 대비 AMS 양허 한도 설정비율을 살펴보면 EU와 일본은 매우 높고 미국은 중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R에서 1986~88년도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감축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농업부문에 막대한 보조를 지급¹⁾하던 선진국들은 유리하지만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은 당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직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전체한도(ceiling)가 불리했다고 볼 수 있다. UR 이행 초년도인 1995년도를 보면, EU는 농업생산액의 37.9%를 AMS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본은 45.9%, 미국은 12.1%, 우리나라는 8.2%에 불과하였다.

표 2 국가별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및 실적(1995년)

구분	미국 (백만 달러)	EU(95/96)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억 원)
농업총생산액(A)	190,110	207,400	10,450	267,361
AMS양허한도(B)	23,083	78,672	4,801	21,826
현행AMS	6,214	47,526	3,508	20,755
최소허용보조	1,487	623	37	2,822
블루박스	7,030	20,846	0	0
B/A(%)	12.1	37.9	45.9	8.2

2004년도에는 농업생산액 대비 AMS상한이 EU는 25.1%, 일본은 45.2%, 미국은 8.2%, 우리나라는 4.0%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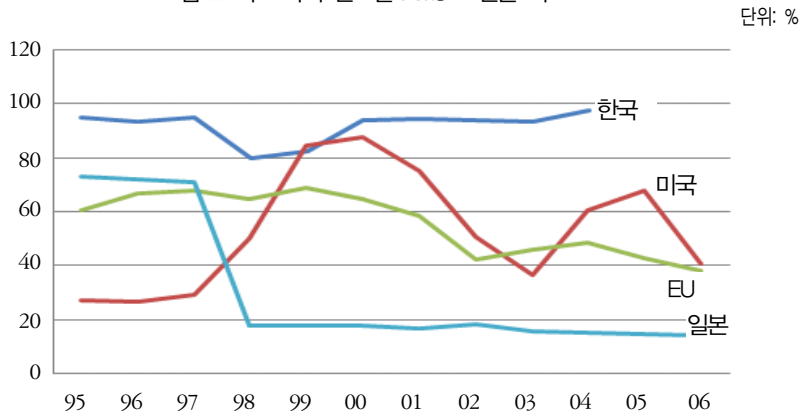
표 3 국가별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및 실적(2004년)

구분	미국 (백만 달러)	EU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억 원)
농업총생산액(A)	234,094	267,388	8,786	372,886
AMS양허한도(B)	19,103	67,159	3,973	14,900
현행AMS	11,629	30,880	608	14,584
최소허용보조	6,458	1,953	41	5,388
블루박스	0	24,782	68	0
B/A(%)	8.2	25.1	45.2	4.0

1) 미국과 EU는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AMS 감축기준에 포함하되 현행 AMS 계산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 (1992, 블레어 하우스 합의) 함으로써 AMS 양허 한도가 높아지고 현행 AMS 소진율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쌀에 대해 생산량 전량을 대상물량으로 하여 AMS 한도를 높인 기술적인 이유도 있음.

결과적으로 AMS 소진율도 통보기간 평균 EU는 60%, 일본은 30%, 미국은 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AMS 한도가 실질적인 보조금 제약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양정개혁을 통해 쌀에 대해 변동직불제가 신설되어 2005년부터 AMS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주요국의 연도별 AMS 소진율 비교



DDA에서는 국내 보조금 영평성이 개선될 전망

DDA에서는 보조금이 많은 국가가 더 높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OTDS 비율은 미국이나 EU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AMS 한도 비율도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AMS와 BB의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UR 이행기간 중 통보한 금액의 평균이 상한인데 비해, 개도국은 평균 통보액 이외에도 품목별 생산액의 20%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신규 품목에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이 높아졌다.

DDA에서는 보조금이 많은 국가가 더 높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DDA에서의 주요국 OTDS, AMS 한도 비교

구 분	감축률 (%)		농업생산액(A)	이행연도말 한도		비율 (%)	
	OTDS	AMS		OTDS(B)	AMS(C)	B/A	C/A
EU	80	70	2,674억 유로	220억	201억	8.2	7.5
미국	70	60	2,341억 달러	145억	76억	6.2	3.3
일본	70	70	8조 7860억 엔	1조 6,340억	1조 1,920	18.6	13.6
한국(개도국)	36.7	30	37조 2,886억 원	6조 602억	1조 430	16.3	2.8

주: 농업생산액은 2004년도 기준임(EU는 2003/4년도).

3. 외국의 WTO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생산과 무역에 대한 왜곡이 적은 정책으로의 전환

WTO와 OECD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이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며 생산 중립적(decoupled)인 직접지불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WTO와 OECD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이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며 생산 중립적(decoupled)인 직접지불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OECD는 PSE 계산 시 생산과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농업정책을 분류하고 있는데 산출량(output)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격지지정책, 투입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생산을 요구하면서 현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불 순으로 왜곡정도가 약해진다고 분류하고 있다.(OECD 2008)

최근 선진국들은 여러 품목별 직접지불제도를 통합하여 농가 단위로 하나의 직접지불제로 운용하면서 품목 특징적인 성격을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캐나다의 CAIS제도, EU의 단일 농가직불(Single Payment Scheme)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EU의 단일 농가직불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생산조건 격차 개선대책의 직접지불금은 허용보조인 생산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농림부, 2007. 11)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²⁾로 흡수하고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소득보전직불제도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대체해 나간다는 농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가격변동이 생산량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가격변동이 생산량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³⁾ 최근에는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캐나다의 CAIS제도, 미국의 ACRE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수입변동완화대책 등은 가격이 아니라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대책의 피해보전직불제에서는 가격기준이 아닌 조수입기준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재 등(2006) 참조. 농림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일정 연령 미만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때 그 격차의 일부(예: 80%)를 보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농림부 2007. 11).

3)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4년 옥수수 풍년으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농가 수입은 줄지 않았는데도 CCP가 지급되었으며, 반대로 2005년도에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이 줄어 가격이 올랐으나 농가수입은 줄었는데도 CCP는 지급되지 않았음(Babcock et.al, 2005).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 확대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까지는 최소허용보조로 인정받아 AMS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CP는 품목 불특정 AMS로 분류하여 DM으로 현행 AMS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고 캐나다의 CAIS도 30% 미만의 손실에 대한 보조는 품목 불특정보조로 통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비율이 낮으므로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도입되어 30% 미만의 손실도 보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까지는 최소허용보조로 인정받아 AMS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형태의 전환 가능성

미국은 블루박스로 통보되던 부족불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1996년에 폐지하고,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허용보조인 생산탄력계약지불제도(Production Flexibility Payment)로 전환하였다. 2002년에 도입된 CCP는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였으나 DDA에서는 다시 블루박스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블루박스인 직접지불제도를 허용보조인 단일농가지불제도(SPS)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8년에 AMS인 쌀 수매제도를 블루박스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AMS에 산입되던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고정직불은 허용보조로 변동직불은 품목특정 AMS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에서는 품목특정 AMS인 쌀 변동직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DDA에서 품목특정 AMS인 쌀 변동직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의 AMS를 BB로 전환하면 i) 전체 AMS에 여유가 생겨 다른 품목에도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ii) 쌀에 대한 품목특정 BB한도도 커지므로 운용상 여유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AMS 전체한도는 개도국의 경우 이행초년도 1조 4,900억 원에서 이행연도 말에는 1조 43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쌀 AMS를 BB로 전환하면 쌀의 품목 BB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1조 7,451억 원, 개도국의 경우 1조 8,675억 원이 한도가 되고 AMS전체를 다른 품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2004년 양정개혁으로 쌀의 AMS계산방법이 시장가격지지(국내외 가격차에 적용 물량을 곱한 금액)에서 비면제 직접지불(변동직불금)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쌀의 AMS 계산은 수확기 쌀 값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 수확기 쌀 값이 14.3% 하락하여 변동직불제로만 9,007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쌀값이 회복되어 변동직불금은 DM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쌀 소득보전직불제 연도별 집행 실적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p)
논면적(천ha)		1,115	1,105	1,084	1,070	
고정 직불	대상면적(천 ha)	1,007	1,024	1,017	1,016.5	1,012.5
	지급단가(천원/ha)	600	700	700	700	700
	지급단가(원/80kg)	9,836	11,475	11,475	11,475	11,475
	집행(백만원)	607,024	718,397	712,004	-	-
변동 직불	지급면적(천 ha)	138	940	951	945	943
	수확기 쌀값 (원/80kg)	161,630 (04년산)	140,028 (04~05년산)	147,715 (06년산)	150,810 (07년산)	162,307
	지급액(원/80kg)		14,071	7,537	4,907	0
	집행(백만원)	2,916	900,669	437,038	279,161	0

자료: 이정환 외(2009)를 업데이트 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고정직불금은 쌀값에 상관없이 2005년산에 대해서는 ha당 60만원, 이후 ha당 70만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총직접지불금{=(목표가격-수확기 산지 쌀 값)*0.85}이 고정직불금을 상회할 경우 차액으로 지원되며 산지 쌀 값이 크게 상승하여 총직접지불금이 고정직불금보다 작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농지는 1998~2000년도 기간 동안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블루박스가 되기 위한 조건(기준생산량의 85% 이내에만 지급)은 현 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농가에 미치는 큰 영향없이 준수 가능하다. 현재 변동직불금 지급단가가 대상면적의 100%에 대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과의 차액의 85%를 지급하므로 이 조건을 대상면적의 85%에 차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정부의 지출액은 별로 달라지지 않게 된다. 다만,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 부과되면 쌀 재배면적이 달라지고 생산량이 변화하여 실제 지출액과 농가수입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AMS에서 BB로 전환한다면 i)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ii) 현재의 고정형직불제처럼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신규 BB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 하에서는 생산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제한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며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를 도입하면 쌀 생산이 줄어들 수 있으며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식량안보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도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금년에 제도의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제도의 빈번한 변경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AMS에서 BB로 전환한다면 i)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ii) 현재의 고정형직불제처럼 쌀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신규 BB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블루박스가 과도기적인 보조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블루박스를 만드는 것은 한시적인 조치이며, 변동직불금의 한도 초과여부가 우려된다면 고정직불금을 높이고 변동직불금의 발생 가능성 및 금액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고정직불금 비중을 높이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가 소득이 목표수준을 초과해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고정직불금 수준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WTO 허용보조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DDA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는 생산액의 6.7%이므로 쌀 생산액이 6조원이라면 4,020억까지는 DM이 되어 현행 AMS 계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쌀 값이 148,000원/80kg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쌀 변동직불금은 DM 이하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2009 농업전망에서는 장기적으로 쌀값이 13만원 이하로 하락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정서상 받아 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쌀 AMS의 블루박스로의 전환은 DDA 이행과정에서도 가능하므로 전환시키는 쌀 값의 장기 전망과 다른 품목에 대한 AMS 지급 전망, 그리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품목 분류 범위

DDA에서는 품목의 분류 범위 문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이행계획서에 품목특정적 AMS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어느 정도 세분화할 것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EU는 2003/04년에 56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 포함)하였는데, Common wheat, Durum wheat 그리고, 버터, 탈지분유, 우유 등으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세부품목별 AMS와 생산액을 통보하였고 일부 품목(가공용 포도 등)에 대해서는 생산액을 통보하지 않으면서(n.a.로 표기) 현행 AMS에 산입하였다. 미국은 2005년에 2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낙농, 가축, 과수원과 포도원(orchard and vineyard)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일본은 2006년에 1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채소, 과일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5개 품목특정적 AMS를 통보하였는데, 보리와 맥주보리는 나누었고 기타 곡물, 기타 채소, 기타 과일, 약용작물, 임산물, 화훼류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DDA에서는 현재 품목특정 AMS에 산입되는 품목은 그대로 표기하면 되며 향후 보조금 지급 계획이 있는 품목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계획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동일 부류의 품목과 통합하여 대분류하면 융통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이행계획서에 품목특정적 AMS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어느 정도 세분화할 것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조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4. DDA 국내보조 모델리티의 시사점

2008년 12월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조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DDA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지원할 경우에는 손실이 직전 5년간 혹은 올림픽 평균의 30% 미만인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인수범위를 80%로 한 경우도 허용보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혹은 국내식량구호 목적의 경우에는 저소득/자원 빈곤생산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사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격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활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농림부 2007.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2007. 11
- 박성재, 오내원, 김태근, 박준기, 정호근, 문한필, 조용원, 김석현. 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C2006-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김재훈. 2009. 「잇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J_제 71호(2009.01.0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2009농업전망」
- Babcock, B.A. and C.E. Hart. 2005. "Safety Net Design for the New Farm Bill." Iowa Ag Review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Vol 11. No.3.
- OECD 2008. OECD's Producer Support Estimate and Related Indicators of Agricultural Support Concepts, Calculations, Interpretation and Use (The PSE manual)
- WTO,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2,3
- 한국의 국내보조금 WTO 통보문서, G/AG/N/KOR/7, 10, 14, 18, 24, 31, 37
- 미국의 WTO 통보문서 G/AG/N/USA/5, 17, 27, 36, 43, 51, 60
- EU의 WTO 통보문서 G/AG/N/EEC/12, 16, 26, 30, 38,49,51, 53
- 일본의 WTO 통보문서 G/AG/N/JPN/ 21, 34, 47, 61, 72, 98, 108, 124, 129, 132, 137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통해 본 각국의 농업지원*

배종하

1. 왜 농업지지도를 측정하는가?

농업지지도는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이다.

60년대부터 서서히 번져나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시장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세계농산물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80년대 중반에는 곡물가격이 바닥에 이르러 중소수출국가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부터 농업개혁의 목소리가 커졌고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농산물 무역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WTO 농업협정이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은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기 위해 농업개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는 농업정책의 발전과 변화를 평가하고 농업지원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여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는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의 교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지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수단이 필요하였다. 계량적 수단을 이용해 스스로 농업지지도를 측정함은 물론이고 각국 간 정책비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농업지지도는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이다.

OECD는 1986년부터 회원국의 PSE를 측정하고 있는데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포함하여 43개국의 PSE를 해마다 계산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 본 내용은 OECD 생산자지원추정치 관련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협력본부 통상팀 배종하 초빙연구위원이 정리하였다.(jhb@krei.re.kr, 02-3299-4341)

PSE는 각국의 정책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 PSE 개념 자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그 동안 몇 차례 변형을 거쳤다.

2. PSE의 개념과 변화

PSE의 개념

PSE에서 지원(support)이라 함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른 분야로부터 농업으로 이전되는 총이전액(gross transfer)이다. 여기에는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국경 보호, 조세감면, 신용보증 등 금전적인 이전이 아니더라도 이전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나타내 준다. 여기서 이전은 소비자로부터의 이전과 납세자로부터의 이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PSE는 수치로 계산된 지지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개별 농가의 생산이나 소득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이전의 종류에 따라 생산자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도 있다. 이처럼 정책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단순히 PSE 지표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투입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을 수 있다. 이처럼 PSE는 정책수단의 특성, 목적 또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된 것을 측정하며 모든 이전액은 농가수준(farm gate)에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지지를 계산할 때 측정기준이 되는 가격은 농가의 수취가격이다.

PSE에서 지원(support)이라 함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른 분야로부터 농업으로 이전되는 총이전액(gross transfer)이다.

PSE의 역사

PSE의 역사는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년대와 80년대 미국과 EU의 보조금 경쟁으로 지지가격이 올라가고 그 결과 과잉생산된 농산물이 국제시장에 덤핑으로 판매되는 사태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자 각국에서 비난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2년 OECD 장관회의에서 농업보조를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생산자보조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가 고안되었다. 생산자보조상당치는 영어 약자가 PSE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와는 다르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생산자보조상당치(PSE)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제거할 경우 감소될 농업수입을 보상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불할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1970년대 초 Tim Josling 교수가 FAO 연구에서 농업보조 측정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며 OECD에서는 1987년에 최초로 생산자보조상당치를

1999년 도입된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의 이전 개념인 생산자보조상당치(PSE)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제거할 경우 감소될 농업수입을 보상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불할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PSE를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또는 생산과 농업소득에 관계없이, 농가수준에서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수단으로 인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된 금전적 가치의 총액'으로 정의하여 '보조'에서 '이전(transfer)'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사용하여 개별 국가의 농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생산자보조상당치는 주요 품목별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농업에 대한 보조상당치도 추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면서 90년대 초반 여러 국가들은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혁'작업을 했으며 그 결과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무역왜곡을 줄이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이에 기존의 PSE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OECD 사무국은 PSE의 새로운 개념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99년 명칭 자체를 Producer Support Estimate으로 바꾸고 몇 가지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5개 정책분류를 7개로 세분한 것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몇몇 국가의 정책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과 EU의 생산제한직불(Blue Box)제도가 새로 생겼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식부면적과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C)이다. 허용보조에 포함된 생산비연계소득지원(decoupled income support)과 환경직불(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을 반영한 것이 현재 생산이 아닌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과 투입재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지불(F)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서비스지원(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을 독립지표로 새로 설정하여 PSE에서 제외시켰다. 일반서비스는 연구 및 개발, 교육 및 훈련, 검사서비스, 인프라 개선, 공공비축, 유통 지원 등인데 이는 사실상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PSE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성격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고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지지만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PSE를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또는 생산과 농업소득에 관계없이 농가수준에서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수단으로 인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된 금전적 가치의 총액'으로 정의하여 '보조'에서 '이전(transfer)'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표 1 PSE의 변천사

1987	1999	2007
A. 시장가격지지	A. 시장가격지지	A.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
B. 직접지불	B. 직불(생산량 기준)	B. 투입재보조
C. 투입재 보조	C. 직불(식부면적, 가축두수 기준)	C. 직불(현재 A, An, R, I 기준)
D. 일반서비스	D. 직불(과거 실적 기준)	D.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E. 기타	E. 투입재 보조	E.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 생산 불필요
	F. 직불(투입재 사용제한)	F. 품목불특정 지원
	G. 기타	G. 기타

주: A: area(면적), An: animal numbers(가축수), R: receipts(조수입), I: income(소득)

PSE의 구성은 2007년에 다시 바뀌게 되는데 1999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접지불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개념을 약간 바꾸는데 이 또한 각국의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우선 시장가격지지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을 합쳐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줄이고 있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졌다. 식부면적이나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은 범위를 넓혀 조수입이나 소득도 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최근 미국에서 일정 수준 조수입을 보장하는 소득안정제도가 논의된 바 있고 캐나다의 소득안정장치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7년의 PSE 분류방식은 종전보다 직접지불을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원국들이 시장왜곡적인 성격의 정책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직접지불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 직접지불을 무엇을 기준으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회원국들은 생산량(output), 식부면적(area), 사육두수(animal numbers), 조수입(receipts), 소득(income) 등 다양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높으므로 점차 다양한 기준들을 사용하여 시장왜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직접지불을 줄 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거 일정 시점이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역시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생산과 연계를 단절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이 1996년 농업법에서 처음 정책으로 채택한 후 과거를 기준으로 직접지불 규모를 정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비록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생산과 연계를 단절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새로 바뀐 PSE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PSE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PSE를 단일품목지원(Single Commodity Transfer), 여러품목지원(Group Commodity Transfer), 모든품목지원(All Commodity Transfer), 기타지원(Other Transfers to Producers)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 정책을 보면 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러 품목에 걸쳐 있거나 아예 품목을 지정하기 어려운 품목불특정지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 PSE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품목별 계산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또 최근 회원국들의 상당수 정책이 특정품목과 연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품목별 PSE 계산을 없앴 것이다.

PSE의 구성은 2007년에 다시 바뀌게 되는데 1999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접지불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개념을 약간 바꾸는데 이 또한 각국의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PSE는 각국의 화폐단위로 계산되고 각 회원국의 농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PSE 자체만으로 농업지지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각국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PSE로서 PSE를 농가의 총수입 또는 총생산액으로 나눈 것이다.

PSE는 각국의 화폐단위로 계산되고 각 회원국의 농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PSE 자체만으로 농업지지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각국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PSE로서 PSE를 농가의 총수입 또는 총생산액으로 나눈 것이다.

PSE 계산 결과를 보면 주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등이 가장 높은 %PSE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원인은 시장가격지지 때문이다.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변화에 따른 PSE 구성의 변화

WTO 농업협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어야 시장가격지지(Price Support)가 있다고 보나 PSE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시장가격지지로 보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PSE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시장가격지지이다. 시장가격지지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로 계산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처럼 관세가 높은 국가는 전체 PSE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없이 단순히 국경보호조치만으로 생겨나는 가격차도 PSE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정책의 개혁만으로 PSE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이 있을 경우에만 시장가격지지가 있다고 보고 단순한 국내외 가격 차이를 시장가격지지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쌀수매정책은 정부가 수매가격을 정하므로 시장가격지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시중가격으로 구매하여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물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holding)로 전환함으로써 이 정책은 시장가격지지(Price Support)가 아닌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비축으로 분류되었다. 시장가격지지는 감축대상정책이나 공공비축은 농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감축할 의무에서도 면제되었다. 이처럼 WTO 농업협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어야 시장가격지지가 있다고 보나 PSE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시장가격지지로 보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대체로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가 낮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가 낮게 나타나지만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나라들은 시장가격지지가 높고 결과적으로 %PSE가 높은 경우가 많다.

3. 2007년 PSE 연왕

2007년의 OECD 전회원국의 PSE는 2,582억달러로 추산되었다. 최근 수년 동안 PSE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6~88년과 비교할 때 9% 증가하였는데 명목가치 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였다. PSE를 보면 EU가 전체

의 52%, 일본이 13.6%, 미국이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9.9%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본, 미국, EU는 PSE 중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하나 한국은 91%를 차지하고 있어 그 구성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2007년 주요회원국 PSE

구 분		1986-88	2005	2006	2007p
호주	백만달러	1,014	1,372	1,506	1,872
	%PSE	7	4	6	6
캐나다	백만달러	6,048	6,497	7,240	7,001
	%PSE	36	22	23	18
유럽연합 1)	백만달러	98,585	130,824	130,622	134,318
	%PSE	40	32	31	26
아이슬란드	백만달러	193	247	215	212
	%PSE	76	70	68	61
일본	백만달러	49,535	44,576	39,239	35,230
	%PSE	64	54	51	45
한국	백만달러	12,055	23,526	25,282	25,461
	%PSE	70	62	63	60
멕시코 2)	백만달러	8,364	4,960	6,136	6,053
	%PSE	28	13	15	14
뉴질랜드	백만달러	432	138	96	82
	%PSE	10	1	1	1
노르웨이	백만달러	2,800	3,050	3,007	2,803
	%PSE	70	67	65	53
스위스	백만달러	5,385	5,591	4,880	4,180
	%PSE	77	68	62	50
터키	백만달러	3,118	12,615	10,810	13,438
	%PSE	16	25	20	21
미국	백만달러	36,782	41,024	30,860	32,663
	%PSE	22	15	11	0
OECD 3)	백만달러	239,269	272,076	257,287	258,236
	%PSE	37	28	26	23

주: 1) 1986-94년에는 EU12개국이었음(1990년부터 구 동독포함), 1995-2003년 15개국, 2004-2006년 25개국, 2007년부터는 27개국임. 2) 멕시코는 1986-88년이 아닌 1991-93년임.
3)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OECD 토탈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가입함.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OECD 토탈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가입함. 여기에서 OECD 토탈이라는 것은 유럽연합 가입국이지만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함.

%PSE는 23%로 2005년, 2006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시장가격지지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2007년의 %PSE는 1987년 PSE를 계산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 호주가 각각 1%, 5%로 낮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일본은 50%를 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캐나다와 터키는 평균 수준, EU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PSE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는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과 직접 연계된 직불금은 거의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 대신 식부면적, 가축 두수, 소득, 조수입과 연계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예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생산과 관계없이 지불되는 직접지불은 농업 이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돈이므로 직접지불이 과연 농업에 대한 지원인가, 즉 이러한 직불이 PSE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생산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격만 갖추면 지급되므로 이러한 돈을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할 것인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PSE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는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과 직접 연계된 직불금은 거의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 대신 식부면적, 가축 두수, 소득, 조수입과 연계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표 3 OECD 전체 회원국 PSE의 변화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86-88	2005	2006	2007p
총농업생산액	591,839	834,679	858,328	1,015,910
PSE	239,269	272,076	257,287	258,236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	196,715	163,172	139,520	132,014
투입재보조	20,129	27,593	29,360	32,485
직불(현재 A, An, R, I 기준)	18,666	38,100	29,182	27,728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533	717	820	1,527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 생산 불필요	2,080	38,819	53,642	60,634
품목불특정 재정지출	935	4,027	4,811	3,744
기타	210	-352	-48	104
% PSE	37	28	26	23

주: A: area(면적), An: animal numbers(가축수), R: receipts(조수입), I: income(소득)

2007년 한국의 PSE는 23조 6,648억원으로 2006년의 24조 641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PSE 중 시장가격지지가 21조 5,174억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2조 1,470억원으로 9%를 차지하는데 회원국 중에서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정책과 관계없이 국내생산자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PSE를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2007년 전체 PSE 중 시장가격지지가 21조 5,174억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2조 1,470억원으로 9%를 차지하는데 회원국 중에서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 한국의 PSE

단위: 십억 원

구 분	1986-88	2005	2006	2007p
총농업생산액	13,624	35,995	35,710	37,396
PSE	9,621	24,096	24,064	23,66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	9,527	21,394	21,746	21,517
투입재보조	66	535	535	646
직불(현재 A, An, R, I 기준)	28	1,548	1,032	758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0	0	0	0
직불(과거 A, An, R, I 기준) * 생산 불필요	0	614	751	743
품목불특정 지원	0	5	0	0
기타	0	0	0	0
% PSE		62	63	60

주: A: area(면적), An: animal numbers(가축수), R: receipts(조수입), I: income(소득)

* 한국의 경우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 은 전부 시장가격지지임.

전반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2007년에는 거의 모든 회원국의 PSE가 낮아졌으나 한국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PSE 감소폭이 낮다. 2007년에는 밀, 보리, 콩, 우유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들 품목의 비중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은 국제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이 10.2% 올라 시장가격지지가 2006년보다 늘어났다. 2008년에는 환율이 크게 올랐고 쌀을 비롯한 곡물의 국제가격도 상승하였으므로 PSE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PSE의 한계

앞에서도 말했듯이 농업 지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무역을 왜곡시키는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도록 해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져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PSE라는 지표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 정책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전제조건인데 실제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계량화가 지원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PSE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농정개혁 노력과 무관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이다.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율이 다르므로 명목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PSE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환율의 변화도 여러가지 문

각국의 다양한 농업 여건, 정책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책을 PSE라는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점을 야기한다. 환율의 변화에 따라 자국통화, 달러, 유로로 나타낸 지지추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 환율이 변하면 자국 화폐로 표시한 국제가격이 달라져 시장가격지지가 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장기간 농업지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차이와 환율의 진폭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보정하기 위해 디플레이터를 쓰거나 환율 진폭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참조 환율(reference exchange rate)을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둘째, 정책분류의 문제이다. 현행 정책분류는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현재의 분류가 생산 및 무역왜곡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분류에 관해서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PSE 수치에 정책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조세감면 및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으로의 이전은 PSE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농업으로의 이전으로 보기 힘든 점도 있지만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환경정책 등 공공재 공급 성격을 가지는 정책은 이전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점에서 PSE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PSE에 포함시킬 정책의 범주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다.

끝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PSE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의미가 있으나 식량안보, 농촌경관, 지역균형발전 등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며 식품안전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없는 정책목표는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OECD에서 다원적 기능의 계량화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차후 검토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WTO 농업협정의 국내보조는 재정정책과 관계없이 국경보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PSE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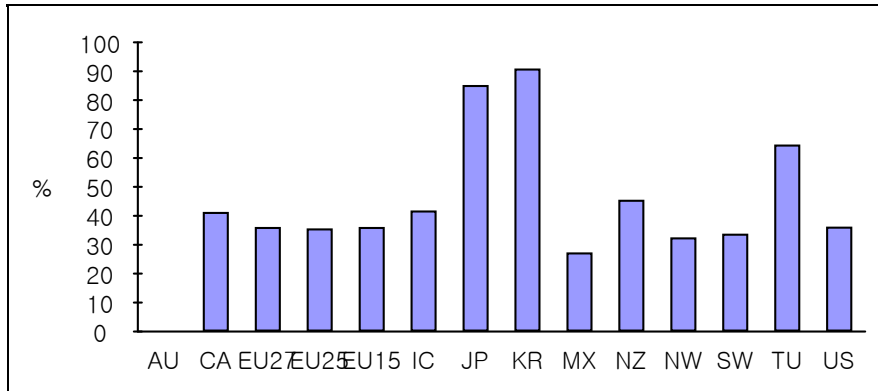
5. 다른 시각에서 본 PSE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 비교

한국은 PSE가 높은 순위로 따지자면 늘 앞자리를 차지해왔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농업지원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의 PSE는 91%가 시장가격지지이고 정부재정지출은 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농업에 지원되는 것을 말하고 WTO 농업협정에서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관계없이 국경 보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PSE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한국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OECD 주요국가의 PSE 중 시장가격지지의 비율¹⁾



<그림 1>을 보면 OECD 회원국들의 PSE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고 호주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를 측정하고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 순수한 재정지출을 통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주요 OECD 회원국들의 PSE와 %PSE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할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PSE를 보여주고 있으며 EU가 20% 내외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호주와 비슷한 수준인 5.8%이며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결국 한국의 %PSE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 때문에 높아진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아서 높아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장가격지지 계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언급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널리 쓰이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특별한 가격지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가격차를 전부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특별한 가격 지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가격차를 전부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AU:호주, CA:캐나다, EU27, EU25, EU15:유럽연합 27,25,15, IC:아이슬란드, JP:일본, KR:한국, MX:멕시코, NZ: 뉴질랜드, NW:노르웨이, SW:스위스, TU:터키, US:미국.

표 5 OECD 주요국의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

구 분	1986-88	2005	2006	2007
호주	3.7%	4.5%	5.8%	5.8%
캐나다	21.0%	13.7%	11.7%	12.1%
EU-27	6.0%	20.8%	22.4%	19.7%
EU-25	6.0%	20.8%	22.4%	20.1%
EU-15	6.0%	21.1%	22.4%	20.3%
아이슬란드	7.4%	53.1%	52.9%	54.5%
일본	7.1%	6.7%	6.7%	7.2%
한국	0.7%	7.5%	6.5%	5.7%
멕시코	5.3%	10.2%	10.4%	11.0%
뉴질랜드	9.8%	0.7%	0.4%	0.4%
노르웨이	57.3%	58.6%	57.7%	56.1%
스위스	15.4%	46.7%	50.2%	49.1%
터키	5.6%	6.4%	8.2%	8.2%
미국	16.1%	13.9%	10.0%	6.7%

농업인구 1인당 PSE

우리나라가 농업지원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제로 농업인구 1인당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본 것이 <표 6> 이다. 시장가격지지를 포함할 경우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아이슬란드이고 우리나라는 캐나다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이다.

표 6 1인당 PSE: 시장가격지지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

(단위: 달러)

구 분	1인당 PSE	1인당PSE(시장가격지지 제외)
호주	1,608	1,531
캐나다	9,151	5,011
유럽연합 25개국	5,524	2,964
아이슬란드	11,227	5,594
일본	11,444	1,329
한국	7,228	811
멕시코	224	161
뉴질랜드	425	208
노르웨이	14,878	8,159
스위스	13,249	6,229
터키	616	146
미국	7,039	5,594

PSE에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1인당 지원액은 터키, 멕시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지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호주도 우리의 2 배에 달하고 캐나다와 미국은 6~7배, 노르웨이는 무려 10배에 이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지원,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높다는 지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PSE에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1인당 지원액은 터키, 멕시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PSE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측정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보다 더 정치하고 적절한 측정수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SE도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국가는 PSE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지원을 일컫는 것인 바 PSE에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투융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2013년 동안 119조 투융자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은 천부적인 여건이 어려워 경쟁력을 높이기도 쉽지 않고 농업 자체의 특성상 구조조정 속도도 느리다. 한국의 농업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농업에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여 재정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비판을 해 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농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농산물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매우 높고 그 결과 PSE 계산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그만큼 국내시장은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자무역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장벽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개발, 생산과 유통 효율의 극대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PSE에서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국내시장이 그만큼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다ODA 협상 및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안병일 외. 2008. OECD PSE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방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송수. 2003,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전망과 대책,” KREI 정책토론회자료.
- FAO. 2007. Statistical Year Book. http://www.fao.org/es/ess/yearbook/vol_1_1/site_en.asp?page=resources
- OECD. 2008.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 OECD. 2008.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Korea
- OECD. 2008. OECD’s Producer Support Estimate and Related Indicators of Agricultural Support: Concepts, Calculations, Interpretation and Use (The PSE Manual)

뉴질랜드 임업 현황*

장 철 수

뉴질랜드 임업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 식량, 임업, 생물안전성 및 관련 분야들을 나누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상호 협력하는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실행분야의 대부분은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농림부 조직 및 인원

뉴질랜드 임업은 농림부(MAF)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상호 협력하는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농림부의 조직을 보면 1개 외청(식품안전청)과 8개 국(현업 부서 4개국, 지원부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업부서는 정책국(MAF Policy), 생물안전성국(Biosecurity NZ), 검역국(MAF Quarantine Service), 국가임업국(Crown Forestry) 등이며 임업관련부서는 상기한 모든 부서와 관련이 된다. 그리고 국가임업국에서는 국가소유 산림의 임대 등을 담당한다. 지원부서는 운영지원국(Corporate Services Groups), 감사국(Corporate Assurance and Risk), 전략 및 성과확산국(Strategic and Performance Group), Maori 전략국(Maori Strategy Unit) 등이 있다.

총인원은 1,301명(Auckland 523명, Wellington 622명, Christchurch 156명)이며 담당 업무를 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 1,600.3명이 근무한 것과 같다. 200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생물안전성 담당업무 290.7명, 정책업무 113.9명, 국가임업업무 5.5명, 검역업무 602.4명, 지원업무 126.7명, 식품안전청 461명 등 총 1,600.3명이 근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년대비 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내용은 뉴질랜드 임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철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cschang@krei.re.kr, 02-3299-4194)

2. 임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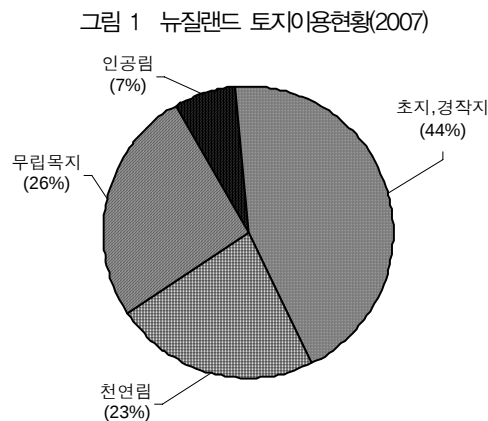
정부차원에서 임업부문에 대한 역할은 첫째, 사유림경영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수준의 정책개발 및 시행(임업과 국가 경제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 보전서비스, 산림 관련 법령 시행(국내 임업관련 규정), Gisborne 지역 토양보전계획 관리(토양보전효과가 큰 수종식재, 연간 2,000ha, 보조금 지급), 원주민인 Maori족 소유지에서의 국가 소유 산림 관리(약 40,000ha)를 담당한다. 즉 임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제나 규제는 없으며 민간부문의 자율에 의한다. 그리고 국가나 국제적 이슈에 맞추어 임업이 발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업부문이 국민경제(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3.2%로 서비스업, 축산업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3. 산림 및 임업

토지이용과 임업의 역할

뉴질랜드의 총 국토면적은 26.9백만ha이며 초지·경작지 11.8백만ha(44%), 천연림 6.2백만ha(23%), 무림목지 7.1백만ha(26%), 인공림 1.8백만ha(7%)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림은 국유림이 77%, 사유림이 21%로 되어 있으나 환경보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천연림 내 국유림의 경우 목재생산을 전혀 할 수 없고 사유림은 연간 0.3백만m³ 정도의 목재생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적 벌채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로는 생산보다 보전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한다.



자료: MAF, 2007. A 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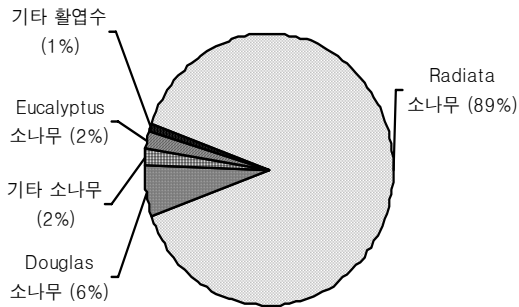
반면 인공림은 사유림이 94%, 국유림이 6% (중앙정부 3%, 지방정부 3%)로 되어 있고 2007년 현재 조림된 면적은 1,790천ha, 재조림이 예정된 벌채면적은 35천ha이며 19백만m³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어 실제로 인공림으로부터의 목재생산과 수출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업부문이 국민경제(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3.2%이다. 2007년 현재 뉴질랜드 총 GDP는 985억 달러(국민 1인당 23,200달러)이며 임업부문은 315천만 달러에 해당함으로써 서비스업, 축산업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목재생산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산림면적은 1.8백만ha에 달하는 인공림이며 입목축적은 434백만m³,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242m³, 면적 가중평균 연령은 28.1년이다.

수종의 구성연왕

수종별로는 Radiata 소나무가 가장 많은 1.6백만ha(89%), Douglas 소나무(미송)이 113천ha(6%), 기타 소나무가 35천ha(2%), Eucalyptus가 29천ha(2%), 기타 활엽수가 16천ha(1%)로 되어 있어 뉴질랜드의 주요 생산수종은 Radiata 소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뉴질랜드 인공림의 수종별 구성현황(2007)



자료: MAF, 2007, A 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주 수종인 Radiata 소나무의 육림방법에 따른 면적의 구성 상황을 보면 생산 간벌과 가지치기를 한 면적이 218천ha, 생산 간벌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한 면적이 758천ha, 생산 간벌을 했으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면적이 37천ha, 생산 간벌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도 하지 않은 면적은 584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장을 촉진하고 고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육림작업을 한 나무의 경우 하지 않은 나무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된다.

수확(벌채) 연왕

수확의 경우 수종을 불문하고 전체 개별면적은 약 43천ha, 벌채 재적은 19,326천m³, ha당 평균재적은 444m³, 인공림에서 생산된 원목재적은 18,962천m³으로 추정된다.

수확의 경우 수종을 불문하고 전체 개별면적은 약 43천ha, 벌채 재적은 19,326천m³, ha당 평균재적은 444m³, 인공림에서 생산된 원목재적은 18,962천m³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벌채는 역시 Radiata 소나무림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체 개별면적의 90%인 38천ha가 벌채되었고 생산된 재적은 17,906천m³, ha당 평균재적은 463m³, 벌채된 Radiata 소나무의 면적 가중 평균연령은 28.1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확(벌채)통계자료(2007년)

구 분	단 위	규 모
개별면적(모든 수종)	ha	43,000*
개별면적(Radiata 소나무)	ha	38,700*
개별재적(모든 수종)	천m ³	19,075*
개별재적(Radiata 소나무)	천m ³	17,906*
생산 간벌된 재적 (모든 수종)	천m ³	251
총 벌채재적(모든 수종)	천m ³	19,326
평균재적(모든 수종)	m ³ /ha	444
평균재적(Radiata 소나무)	m ³ /ha	463
Radiata 소나무의 면적가중평균연령	년	28.1
인공림의 추정원목재적	천m ³	20,038

주: * 2007년 NEFD조사와 2007농업센서스에 의한 추정치

소유별 산림 현황

인공림 전체 면적인 1.8백만ha를 소유별로 보면 공공기업이 244천ha(14%), 개인 소유 사유림이 1,420천ha(79%)¹⁾, 주정부 소유기업이 32천ha(2%), 중앙정부 소유가 36천ha(2%)²⁾, 지방 정부가 55천ha(3%)이다.

목재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면적 크기별 소유자 수와 인공림 총면적을 보면 대부분 40~99ha에 1,183명이 집중되어 있고 100~499ha에 756명, 1,000ha이상 되는 대규모 산림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도 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소유자 수의 크기별로는 Southern North Island가 472명, Nelson and Marlborough에 361명, West Coast와 Auckland에는 18명과 8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림 면적별로는 Central North Island가 544천ha, Otago and Southland가 215천ha, West Coast와 Auckland에는 32천ha와 54천ha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림 전체 면적을 소유별로 보면 공공기업이 14%, 개인 소유 사유림이 79%, 주정부 소유기업이 2%, 중앙정부 소유가 2%, 지방 정부가 3%이다.

표 2 목재공급지역별 면적 크기별 소유자 수 및 총인공림면적

목재공급지역	면적 크기별					총소유자수 (명)	총면적 (ha)
	40ha 이하	40 ~ 99ha	100 ~ 499ha	500 ~ 999ha	1,000ha 이상		
Northland	-	147	89	11	16	263	202,286
Auckland	-	46	28	6	9	89	54,387
Central North Island	-	98	67	9	21	195	544,532
East Coast	-	60	54	9	19	142	158,362
Hawkes Bay	-	73	45	6	17	141	131,947
Southern North Island	-	271	169	13	19	472	168,218
Nelson and Marlborough	-	209	124	13	15	361	171,675
West Coast	-	8	7	1	2	18	32,675
Canterbury	-	108	75	5	12	200	110,323
Otago and Southland	-	163	97	11	19	290	215,145
총 합 계	-	1,183	756	70	90	2,099	1,789,550

주: 40ha 이하의 소유자 수에 대한 자료는 파악되어있지 않음

자료: MAF, 2007. A 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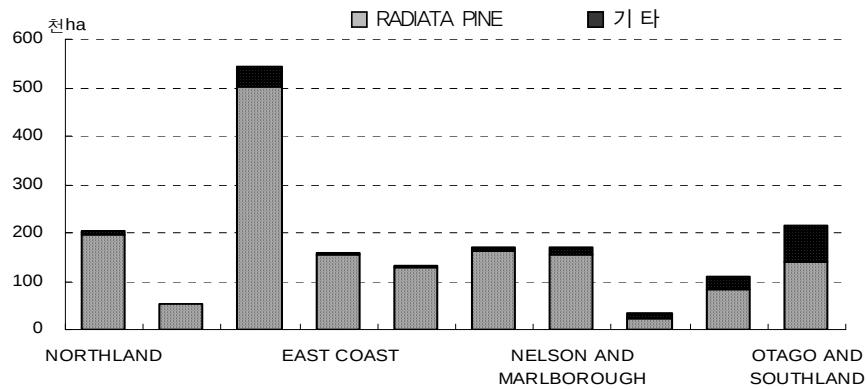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았듯이 West Coast와 Auckland는 인공림 면적도 작고 산림소유자 수도 적은 반면 Southern North Island와 Nelson and Marlborough는 산림소유자 수가 많

1) MAF(2007)에 따르면 2003년 이래로 주요한 변화는 공공 기업이 소유한 산림의 많은 면적이 개인소유의 사유림으로 이전되었으며, 개인소유 사유림은 개인 기업, 개인 산주, Maori족의 신탁 및 협력림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중앙정부소유 산림은 Maori족에 임대한 국가소유산림이 대부분이며 MAF에서 직접 관리한다.

고 Central North Island는 산림면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entral North Island는 대규모 산림경영인 반면 Southern North Island와 Nelson and Marlborough는 적은 규모의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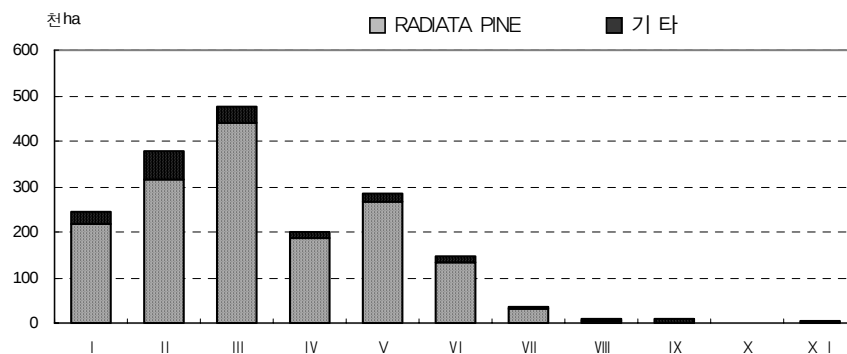
그림 3 목재공급지역별 인공림면적 구성현황



영급구조

앞서 언급했듯이 뉴질랜드의 목재생산은 인공림에서 이루어지며 인공림의 영급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향후 지속적인 목재생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4 뉴질랜드 인공림의 영급구조



주: 한 영급의 길이는 5년임.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인공림의 영급구조는 주요 수종인 Radiata소나무(전체 인공림면적의 89%)의 영급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되는 Radiata소나무의 평균 벌기령이 28~30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30년 이상인 인공림면

적은 극히 적다. 실제로 30년 이상 되는 면적은 전체 인공림면적의 3%에 해당하는 60천ha에 불과하며 나머지 1.7백만ha는 모두 30년생 이하의 산림이다. 그리고 수종별로는 전체 인공림면적의 89%가 Radiata 소나무림이나 30년 이상인 산림에는 주수종인 Radiata 소나무의 비중이 60%(36천ha)로 낮아지면서 Radiata 이외의 수종의 비율이 11%에서 40%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30년 이하의 산림 중 III영급(11~15년생)의 산림이 가장 많은 476천ha이며 다음으로 II영급(6~10년생)과 V영급(21~25년생)산림이 376천ha와 285천ha 별기령에 도달한 VI영급(26~30년생)산림면적도 148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별기에 도달한 산림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29천ha씩 산림을 벌채하여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재조림 등을 할 경우 지속적인 벌채와 조림이 발생함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산림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업 생산

뉴질랜드의 원목생산은 2007년에 20,305천m³으로 2003년보다 약 925천m³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보다 859천m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1990년 이전에 조성된 산림의 전용(산지를 비임업적 이용으로 전용, 예를 들어 초지나 목초지 등 축산업으로의 전용)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탄소배출량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

특히 MAF(2008)에 따르면, 산주들과 농장 소유자들이 토지 전용에 따른 잠재적인 이산화탄소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펄프공장으로 대량 원목을 공급하기 위해 Central North Island에서 상당한 개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축산업이 임업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예상이 축산업으로의 산림전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목생산이 증가하면서 제재목을 포함한 펄프의 생산이 늘어났는데 제재목은 2006년보다 202천m³, 펄프는 30천m³이 증가하였다. 목질패널제품의 경우 섬유판을 제외하고는 계속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섬유판은 2003년보다 3천m³이 감소한 766천m³이 생산된 반면 베니어는 2003년보다 72천m³, 합판은 84천m³, 파티클보드는 32천m³이 증가한 710천m³, 428천m³, 254천m³이 각각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원목은 입목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7년생 Radiata소나무의 수고는 약 35m 정도이며 벌채는 지상으로부터 0.2m위에서 이루어지고 가지치기를 한 원목의 길이는 5.2m, 그리고 그 위로 16.8m는 제재용 원목, 8m는 산업용 원목으로 사용되며 버리는 길이는 5m에 불과해 입목의 86%가 원목으로 활용된다.

뉴질랜드의 원목생산은 2007년에 20,305천m³으로 2003년보다 약 925천m³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MAF, 2008, Forestry Production and Trade— December 2007 Quarter, Statistical release.

표 3 뉴질랜드의 목재 및 목제품생산 추이(2003 ~ 2007)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원목(천m ³)	21,230	19,761	19,002	19,446	20,305
제재목(천m ³)	4,289	4,419	4,249	4,304	4,506
펄프(천톤)	1,419	1,596	1,601	1,506	1,536
종이와 종이보드(천톤)	810	917	951	898	863
섬유판(천m ³)	869	873	861	882	766
베니어(천m ³)	638	681	671	689	710
합판(천m ³)	344	402	405	416	428
파티클보드(천m ³)	222	244	238	242	254

자료: MAF, 2008, Forestry Production and Trade- December 2007 Quarter, Statistical release
<http://www.maf.govt.nz/statistics>

임업부문 고용

임업 및 관련 1차
가공업 종사자의 추
이는 최근 5년간 계
속 감소추세에 있으
며, 뉴질랜드 전체
산업종사자 중 임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1.1%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및 관련 1차 가공업 종사자의 추이는 최근 5년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7년 현재 20,389명으로 2003년 보다 5,901명, 2006년 보다 883명이 감소한 반면 뉴질랜드 전체 산업종사자 수는 2007년 현재 1.9백만 명으로 2003년 1.7백만 명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임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뉴질랜드의 임업 및 1차 가공업 고용 추이(2003 ~ 2007)

단위: 인원 - 명, 비율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 소 계(A)	10,150	8,580	7,660	7,060	6,470
- 임업	1,160	1,040	800	730	550
- 벌채업	4,890	4,160	3,760	3,500	3,610
- 임업관련 서비스업	4,100	3,380	3,100	2,830	2,310
□ 소 계(B)	16,140	15,608	15,519	14,212	13,919
- 제재업	8,100	7,690	7,610	6,970	6,750
- 목재 칩 제조업	30	18	9	12	9
- 목가공업	1,850	1,820	1,920	1,970	2,200
- 합판 및 베니어가공업	1,850	1,960	1,990	1,670	1,730
- 섬유판가공업	1,370	1,390	1,300	1,230	1,140
- 펄프, 제지 및 판지가공업	2,940	2,730	2,690	2,360	2,090
□ 총 계(C=A+B)	26,290	24,188	23,179	21,272	20,389
□ 뉴질랜드산업 총합계(D)	1,716,640	1,785,380	1,844,690	1,880,810	1,923,190
□ 임업, 1차 가공업비율 (C/D)*100)	1.5	1.4	1.3	1.1	1.1

주: 목가공업은 재 제재 및 대패 등을 포함한 업종임

자료: MAF, 2008, Employment in Forestry and Wood Processing Activities-Feb. 2007, Statistical release
<http://www.maf.govt.nz/statistics>

MAF(2008)에 따르면 임업부문 종사자의 감소추세는 최근의 좋지 않은 수출여건, 즉 벌크션 운임비의 증가,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 미국달러 환전율의 강세 등 임업 분야를 둘러싼 여건의 불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벌목업에서의 고용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의 목재 수확(벌채)량이 19백만m³에서 20백만m³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1차 가공업 부문에서는 펄프, 제지 및 판지 가공업의 고용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중반 Norske Skog 제지회사의 완전 폐업에 따른 127명의 감소와 영세가공업의 구조조정 및 타 산업으로의 전직때문이다.

임산물 수출입

뉴질랜드 임산물의 수출은 원목 및 제재목을 중심으로 한 목재관련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제재목, 펄프, 원목 순으로 수출이 많다. 이들 품목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718백만 달러(55%)에서 2007년 1,968백만 달러(66%)로 수출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산물 수출은 종이와 판지의 수출금액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경향을 알 수 없으나 이들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뉴질랜드 임산물의 수출은 원목 및 제재목을 중심으로 한 목재관련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5 뉴질랜드의 임산물 수출 추이(2003~2007)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원 목	수량(천m ³)	7,540	5,519	5,194	5,577	6,022
	금액(천\$)	615,057	468,223	443,021	563,294	614,266
제재목	수량(천m ³)	1,631	1,849	1,802	1,960	1,782
	금액(천\$)	697,481	809,541	722,607	808,166	738,798
펄프	수량(천톤)	675	861	838	838	867
	금액(천\$)	405,656	510,728	455,789	584,930	615,419
종이와 판지	수량(톤)	447,759	619,938	673,944	-	-
	금액(천\$)	429,278	497,596	537,249	-	-
섬유판	수량(천m ³)	668	678	676	712	563
	금액(천\$)	230,374	234,498	230,147	255,289	222,202
베니어	수량(천m ³)	125	135	144	152	141
	금액(천\$)	65,702	86,364	86,031	48,557	45,550
합판	수량(천m ³)	101	138	112	79	76
	금액(천\$)	150,364	179,423	139,038	115,839	116,157
파티클보드	수량(천m ³)	111	112	109	103	125
	금액(천\$)	67,756	71,978	61,450	50,736	56,514
기타 임산물(천\$)		416,642	463,756	447,876	548,766	579,604
합 계(천\$, FOB)		3,125,351	3,322,104	3,123,207	2,975,578	2,987,970

주: 기타 임산물에는 연료, 목탄, 코르크, 가구 등 목재로 만든 가공품들이 포함됨. 수량의 경우 천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하였으며, 종이와 판지의 경우 2006년과 2007년도의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MAF, 2008, Forestry Production and Trade- December 2007 Quarter, Statistical release

<http://www.maf.govt.nz/statistics>

2003년에 총 임산물 수출액은 3,125백만 달러에서 2004년 3,322백만 달러로 최고액에 달한 후 감소하여 2007년 현재 2,988백만 달러를 나타낸다.

즉 2003년에 총 임산물 수출액은 3,125백만 달러에서 2004년 3,322백만 달러로 최고액에 달한 후 감소하여 2007년 현재 2,988백만 달러를 나타낸다.

원목의 경우 2003년에 7,540천m³이 수출되었으나 이후 감소하다 2007년에 2006년보다 다소 증가한 6,022천m³이 수출되었으며, 제재목은 2003년에 1,631천m³에서 2007년에 1,782천m³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원목과 제재목은 전체 수출금액 대비 비중이 2003년에 20%와 22%에서 2007년에는 21%와 25%로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원목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이들 3개국이 2007년 원목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20%, 15%로 총 85%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올림픽 등으로 수요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목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미국, 호주, 중국이며 2007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22%, 11%로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 수출 수종은 Radiata 소나무와 Douglas 소나무 등 도입수종이다.

펄프의 경우 2003년에 675천 톤(406백만 달러)이 수출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7년 현재 867천 톤(615백만 달러)이 수출되어 원목 수출액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펄프수출은 기계 펄프와 화학펄프로 구분되는데 기계 펄프는 일본이 주 수출국으로 2007년 현재 95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펄프의 경우 중국과 호주가 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39%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뉴질랜드의 임산물 수입 추이(2003~2007)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원목	수량(천m ³)	3	4	5	5	4
	금액(천\$)	2,196	2,303	4,395	5,126	3,650
제재목	수량(천m ³)	42	43	58	54	56
	금액(천\$)	46,054	48,573	57,726	61,219	67,141
펄프	수량(천톤)	5	5	4	5	25
	금액(천\$)	4,743	4,311	4,194	6,177	22,799
종이와 판지	수량(천톤)	442	465	495	483	505
	금액(천\$)	641,367	652,535	661,646	703,665	689,352
섬유판	수량(천m ³)	9	5	7	11	20
	금액(천\$)	4,896	5,469	5,558	6,855	9,690
베니어	수량(천m ³)	2	1	3	5	11
	금액(천\$)	3,295	3,289	3,539	3,820	4,063
합판	수량(천m ³)	13	14	19	27	30
	금액(천\$)	19,639	21,236	23,856	27,166	30,543
파티클 보드	수량(천m ³)	2	1	2	2	2
	금액(천\$)	1,092	570	1,090	867	1,090
기타 임산물 (천\$)		511,018	590,482	587,431	620,777	640,070
합 계 (천\$, CIF)		1,234,299	1,328,769	1,349,458	1,435,671	1,468,398

주: 기타 임산물에는 연료, 목탄, 코르크, 가구 등 목재로 만든 가공품들이 포함되며, 수량의 경우 천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하였음

자료: MAF, 2008. Forestry Production and Trade- December 2007 Quarter, Statistical release
<http://www.maf.govt.nz/statistics>

뉴랜드의 임산물 수입은 주로 종지와 판지, 제재목, 합판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2003년에 707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7%, 2007년에는 787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4%를 차지하였다. 전체 수입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지와 판지의 경우 2007년에 689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수입은 계속 증가세에 있다.

제재목과 합판의 경우도 2003년에 46백만 달러와 19백만 달러에서 2007년에 67백만 달러와 31백만 달러로 계속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종지와 판지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36%), 중국(9%), 인도네시아(7%), 일본(7%)이며 총 수입액의 59%가 이들 국가로부터 이루어진다. 제재목의 수입은 주로 캐나다(42%)와 인도네시아(18%)이며 총 수입액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패널류(합판, 베니어,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은 호주(29%), 중국(19%), 말레이시아(5%), 인도네시아(5%)로부터 이루어지며 총 수입액의 58%를 차지한다.

4. 임산물관세제도

뉴질랜드 관세는 일반관세(Normal Tariff)와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 산업에서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으로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1차 산업분야는 정부의 보조없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 즉 무기류, 마약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자유로우며 특히, 뉴질랜드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2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무역협정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 및 관세협정 체결국가인 캐나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도국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GSP)를 받지 못하지만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 관세제도에 의해 소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품의 관세평가는 GATT의 관세평가규칙(Customs Valuation Codes)에 따라 수입제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3년에 발표한 수입관세 인하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의류와 신발, 직물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의류, 신발,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도 2006년 7월 1일부터 인하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표한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보면 기존 관세율 17%는 2007년 7월 1일 15%, 2008년 7월 1일 12.5%, 2009년 7월 1

뉴질랜드 관세는 일반관세(Normal Tariff)와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된다.

일 10%로 인하될 계획이며 기존 관세율 10%는 2007년 7월 1일 7.5%, 2008년 7월 1일 5%, 2009년 7월 1일 5%로, 그리고 기존 관세율 5~7.5%는 2007년 7월 1일 5~7.5%, 2008년 7월 1일 5%, 2009년 7월 1일 5%로 관세율을 각각 조정할 계획이다. 의류부문에만 적용되던 종량세는 2005년 7월 1일부터 종가세로 환원되었다.

5. 주요 임업관련단체

산주협회(New Zealand Forest Owners Association: NZFOA)

산주협회는 뉴질랜드의 상업적 인공림(Commercial Plantation Forests)⁴⁾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1926년에 협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유림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산주협회는 뉴질랜드의 상업적 인공림(Commercial Plantation Forests)⁴⁾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1926년에 협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유림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80%가 인공림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림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고용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2007년 기준으로 임업 및 벌채업에 6,470명, 1차 가공업을 포함하면 약 20천명을 고용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다.

산주협회의 목적은 개인 산주들이 경영하는 산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산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비용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장관에게 직접 설명을 하거나 관련 이해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다.

산주협회 내에는 8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전문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게 된다. 홍보 및 회원관리, 교육, 훈련 및 안전, 산림화재, 산림건강성, 산림자원과 환경, 조사 및 기술, 임업사업, 수송관련 위원회 등이 있다.

목재공업연합회(New Zealand Timber Industry Federation: NZTIF)

목재공업연합회는 1983년 제재업연합회(NZ Sawmillers Federation), 목재도매상인협회(NZ Timber Merchants Association), 목재 조사 및 개발협회(Timber Research & Development Association)가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들 3개 기관은 20세기 초 오랫동안 신용있는 산업체로 명맥을 이어오면서 주정부산림자산의 판매, 수출량과 수출시장의 확대, 규제철폐 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왔다.

4) 여기서 상업적 인공림은 뉴질랜드 고유의 수종으로 형성된 천연림과는 달리 외래(도입)수종(주로 radiata 소나무, douglas 소나무 등)으로 조림이 되어 있는 인공림으로 벌채 및 생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고유 수종으로 형성된 천연림도 국가소유와 개인 소유 사유림이 있지만 개인 소유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해 벌채 및 생산,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며 국가 환경보전부가 관리한다. 그러므로 천연림에서는 국유림의 경우 전혀 목재생산을 할 수 없고 사유림의 경우 연간 0.3백만㎡ 정도의 목재생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적 벌채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목재산업연합회는 현재 시장개발과 홍보, 표준 및 기술개발, 품질보증과 인증 등을 포함해 뉴질랜드 제재업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상업적 환경과 규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국내외시장에서의 목재사용 촉진, 새로운 시장 특히 수출시장의 개발, 표준기술개발 참여, 정부와 정부 산하단체에 대한 로비, 자료의 수집 및 분산, 회원과 일반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다.

최근 들어 목재산업에 대한 탄소거래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설명회 개최, 한국에서의 새로운 목재시장을 발굴하려는 뉴질랜드 기업에 대한 지원, 목재등급과 인증과 관련하여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로비, 연년 임금조사 실행, 호주에서의 목재등급 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토론회 참석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산림과학원(SCION-Next generation biomaterials; Forest Research Institute)

SCION은 정부 소유의 9개 국가조사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 중 하나로 바이오에 기반을 둔 강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된 연구기관이다. 장래 비전은 재생가능자원과 버려지는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 근원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SCION은 1947년 설립된 뉴질랜드 산림과학원이 전신이지만 임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으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분야까지 연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일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50:50)받고 있으며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산림 및 임업분야는 호주의 CSIRO와 SCION이 공동으로 설립한 ENSIS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임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산림건강성, 생물안정성, 임목육종, 산림조성과 경영, 산림 수확과 수송, 목재 품질평가, 목재가공 및 방부, 펄프와 종이가공, 목재 혼합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미래를 위한 신물질 연구로서 목재와 목재 겹질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섬유질, 리그닌, 탄닌과 같은 물질)로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해 만든 제품들을 대체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 기능성유전자와 효소 발굴, bio-nano 탐구, lignocellulosic 생명공학, 기능성 bio-polymers, 생물 플라스틱, 생물 송진과 섬유질 복합적용 연구 등을 포함한다.

미래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연료 물질연구를 포함해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식물에 기반을 둔 재생가능자원의 이용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목재 및 목재가공품들에 대한 강도나 품질, 용도와 관련한 실험들을 하고 있으며 Radiata 소나무뿐만 아니라 수입산 목재에 대해서도 기업들로부터 실험을 의뢰받아 성능테스트를 한다. 기업에서는 SCION에서 얻은 실험결과물을 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게 된다.

SCION은 정부 소유의 9개 국가조사연구소 중 하나로 바이오에 기반을 둔 강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된 연구기관이다. 장래 비전은 재생가능자원과 버려지는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 근원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PF OLSEN LTD.의 설립목적은 산주의 산림투자제에 대한 이익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산림조성, 생육, 경영, 환경보호, 모니터링, 수확 및 판매 등이다.

전문 사유림 경영회사(PF OLSEN LTD.)

PF OLSEN LTD.의 설립목적은 산주의 산림투자제에 대한 이익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산림조성, 생육, 경영, 환경보호, 모니터링, 수확 및 판매 등이다. 1971년 Peter Olsen이 설립한 이래 Rotorua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 12개 사무소와 90명의 상근직원, 30~40개의 현지 출장소를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에 약 180,000ha의 사유림을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만 연간 약 10,000~20,000명에 달한다. 위탁경영 계약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간 고정관리비용은 ha당 NZ 30달러로서 산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조림, 육림 등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산주는 소요된 총 경비의 15%를 추가적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하고 임목벌채의 경우는 톤당 NZ 3달러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Rotorua에 있는 PF OLSEN LTD.가 관리하는 산림은 약 79,000ha(OiPP/Viking회사림 70,000ha, Tualypt회사림 4,000ha, Woodlots/Farm forestry회사림 5,000ha)이며 산주에서 모든 작업은 기계화로 이루어진다.

PF OLSEN LTD.는 이익 대변을 위한 로비, 정부사업의 대행, 정부자금으로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사유림 경영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산주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업인체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기업형 임업 경영 발전 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림에서부터 최종적인 임목 수확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담당하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항상 각 단계별 상담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전적으로 산주들이 부담하는 위탁경영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양묘장과 종묘회사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종과 우량종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적지적수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여 신규조림과 재조림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NZFOA. 2007. New Zealand Forest Industry Facts&Figures 2007/2008.
- MAF. 2008. Forestry Production and Trade- December 2007 Quarter. Statistical release.
- MAF. 2008. Employment in Forestry and Wood Processing Activities-Feb. 2007. Statistical release.
- MAF. 2007. A 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 MAF. 2007. Forestry in a New Zealand Emissions Trading Scheme.
- MAF. 2007.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 <http://www.maf.govt.nz>
- <http://www.scionresearch.com>
- <http://www.nztaf.co.nz>
- <http://www.pfolsen.com>
- <http://www.nzfoa.org.nz>

제스프리(ZESPRI)의 현황과 성공요인*

김 병 료, 이 명 기, 유 찬 희

1. 키위 산업 현황

세계 키위 산업

세계에서 키위의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이며 이들 3개국을 포함한 세계의 키위 총생산량은 2004년 881,693톤이다.

세계에서 키위의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이며 이들 3개국을 포함한 세계의 키위 총생산량은 2004년 881,693톤이다. 1970년 2,000톤에 비해 30여 년 동안 무려 440배 증가한 것이다. 2004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뉴질랜드가 가장 높다. 뉴질랜드는 ha당 24.6톤, 이탈리아는 18.2톤, 우리나라는 12톤이다.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약 1% 정도이다.

표 1 세계 주요국 키위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톤, %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량	수출 비중
이탈리아	20,000	365,000	259,004	71
뉴질랜드	10,580	260,080	238,209	92
칠레	7,800	130,000	110,529	85
프랑스	4,464	76,336	30,399	40
그리스	4,400	40,000	16,498	41
한국	860	10,277	-	

자료: [http://www.fao.org\(2004\)](http://www.fao.org(2004))

* 본 내용은 제스프리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 이명기 부연구위원, 유찬희 연구원이 정리하였다.(brkim@krei.re.kr, 02-3299-4317)

뉴질랜드 키위 산업

뉴질랜드의 키위 재배면적은 도입 이후 증가하다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위 재배면적은 북섬이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전체 생산량의 77%가 북섬의 플렌티만(Bay of Plenty) 지역에서 나머지는 와이카토(Waikato), 웰링턴(Wellington), 오클랜드(Auckland) 등에서 생산된다. 생산량은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재배면적이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28만톤에서 32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2 뉴질랜드 키위 생산 현황

단위: ha, kg/ha, 톤

년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1990	17,508	17,508	280,000
1995	11,873	18,782	223,000
2004	10,580	22,489	237,935
2006	11,464	27,558	315,907

자료: <http://www.maf.govt.nz>

키위 산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렸는데 판매가격이 높아 많은 농가들이 키위 재배에 참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키위 식재면적도 10년 만에 2천ha에서 1만 9천ha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생산량도 9천톤에서 20만 3천톤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하였고 1987년부터 키위 가격이 급락하였다. 이에 생산성이 낮거나 수익이 적었던 농가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여 1987~97년 동안 키위 식재면적이 약 45%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산량은 오히려 20% 증가하였다.

1997년 이후 뉴질랜드는 키위를 브랜드화, 차별화가 가능한 상품 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수급 균형을 맞추어 나갔다. 1997년 이후 생산면적은 약 14%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2007년에 34만톤까지 증가하였다.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키위 산업은 단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오늘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칠레나 이탈리아보다 50~55%나 높다. 또한 뉴질랜드 키위 농가의 수익은 통상적으로 칠레 농가들보다 60~10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량은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 28만 8천 톤이었으며 이는 생산량의 91% 수준이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공급 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뉴질랜드 키위산업은 1997년 이후 브랜드화, 차별화된 상품 개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재도약하였다.

표 3 뉴질랜드 키위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년도	수입		수출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1990	0	0	237,474	316,508
1995	0	0	173,254	203,094
2000	182	208	249,509	268,427
2003	1,081	1,696	238,209	286,092
2006			288,216	699,000

자료: <http://www.maf.govt.nz>

2. 뉴질랜드 키위 산업의 역사

키위 산업의 성장 과정¹⁾

뉴질랜드 키위 종자는 중국을 방문했던 선교사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19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종자는 뉴질랜드 육묘장에 넘겨져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1916년 ‘구즈베리’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고, 개량을 거쳐 1930년에 과일 크기가 크고, 저장성이 강한 Hayward라는 품종으로 개발되어 키위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는 1952년 영국에 처음으로 키위를 수출하였다. 이후 키위의 재배방법 및 기술개발이 진전되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 판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976에는 수출량이 국내 판매량을 초과하였다.

뉴질랜드의 키위 주산지는 플렌티만(Bay of Plenty) 지역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협회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1970년에 ‘키위수출촉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77년 ‘키위유통면허협회’로 재설립되었다. 이에 1970년에 키위수출촉진위원회(Kiwifruit Export Promotion Committee)가 발족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부담금을 각출하여 기금을 모아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7년에 키위유통면허협회(KLMA; Kiwifruit Marketing Licensing Authority)라는 조직으로 재설립되었다. 이때부터 KLMA로부터 수출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키위를 수출할 수 있었다. KLMA는 품질 개선, 등급화, 포장 규격화 등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키위 수출량은 1979년에 4백만 박스(트레이)에서 1987년 46백만 박스로 크게 증가하였다.

키위 산업의 위기

뉴질랜드는 키위 산업을 최초로 도입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이 키위 산업에 진입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협회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1970년에 ‘키위수출촉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77년 ‘키위유통면허협회’로 재설립되었다.

1) 김연중·Allan N.R.(2005) 참고.

하는데 특별한 장벽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이탈리아와 칠레의 농업인들이 경쟁적으로 키위를 도입하여 전세계 키위시장의 과잉 공급을 야기해 시장 가격을 붕괴시켰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키위 산업계는 ‘키위프루트(kiwifruit)’라는 고유의 명칭을 보호하는데도 실패하였다.²⁾ 이에 따라 생산비가 더 낮은 이탈리아와 칠레에서 뉴질랜드 키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키위를 재배하면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내에서는 1980년에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협회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키위산업에 위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던 중, 1988년 7개 수출업체가 수출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단일 마케팅 조직인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를 설립하였다. 이는 해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생산자단체에 ‘판매창구 단일화(single desk selling)’ 조항을 달아 유일한 판매자이자 수출업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키위의 수출 가격은 매우 낮았다. 이는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늘었고 시장에서 키위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1992년 키위농가의 은행부채가 90백만 달러에 이르러 많은 생산자가 파산하였으며 키위산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⁴⁾

키위 산업은 리스크가 높고 고정 비용 규모가 크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기후와 소비자 선호에 좌우되는 속성이 강한 반면 수입(revenue)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⁵⁾ 이런 특성 때문에 뉴질랜드 키위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주도하지 못하고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 키위 산업은 1990년 중반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상품 차별화 성과가 부진하여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 프리미엄 형성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설립을 통한 재도약

뉴질랜드에서는 키위산업의 재건을 위해 1994~1995년 동안 마케팅과 수출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그 결과 ZESPRITM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공급초과, 대체 과일 증가,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생산자가 파산하는 등 키위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2) ‘키위프루트’라는 명칭은 195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 Beverland(2001).

4) 김연중Allan N.R(2005).

5) Crocombe, G.T., Enright, M.J. and Porter, M.E.(1991), Upgrading New Zealand's Competi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Auckland.

1997년 ‘뉴질랜드 키위후르츠 마케팅 보드’를 ‘키위후르츠 뉴질랜드’로 전환하고 마케팅 자회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다.

‘새로운 구조 및 브랜드 전략’이 핵심으로 키위 산업 내부적으로 시장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키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Berverland, 2001). 이를 위해 1997년 뉴질랜드 키위후르츠 마케팅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를 키위후르츠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로 전환하고 마케팅 자회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널(ZESPRI International Ltd, 이하 제스프리)을 설립하였다.⁶⁾ 그리하여 키위후르츠 뉴질랜드는 관리 기능, 제스프리는 수출 등 상업기능을 담당하였다. ZESPRI는 마케팅과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4 뉴질랜드 키위산업 연혁

년도	주요 내용
1904	차이니스 구즈베리 종자 뉴질랜드로 전래
1905	뉴질랜드 국내 처음으로 식재
1952	최초의 해외수출-영국
1959	"키위후르츠(Kiwifruit)" 로 최초 명명
1988	뉴질랜드 키위후르츠 마케팅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NZKMB) 결성 : 수출 단일창구 마련
1990	뉴질랜드 키위 한국에 소개
1997	제스프리 인터내셔널(ZESPRI International Ltd) 설립.(브랜드 전세계에 소개) 제스프리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1998	제스프리 골드키위 첫 수출
1999	제스프리 한국지사 설립
2000	제스프리 골드키위 해외 재배
2004	뉴질랜드 키위 100주년

제스프리 브랜드는 100여 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제스프리는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에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키위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 뉴질랜드산이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키위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등 주년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키위가 뉴질랜드 도입된 지 100주년이던 2004년에는 10억 NZ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하였다. 제스프리 와 제스프리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는 100여 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6) 김연중 Allan N.R(2005).

7) www.zespri.co.kr

3. 제스프리 연왕

비전

제스프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키위의 세계리더(Acknowledged World Leader in Kiwifruit)’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핵심 성과의 최적화, 경쟁우위 형성, 성장 지평의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 제스프리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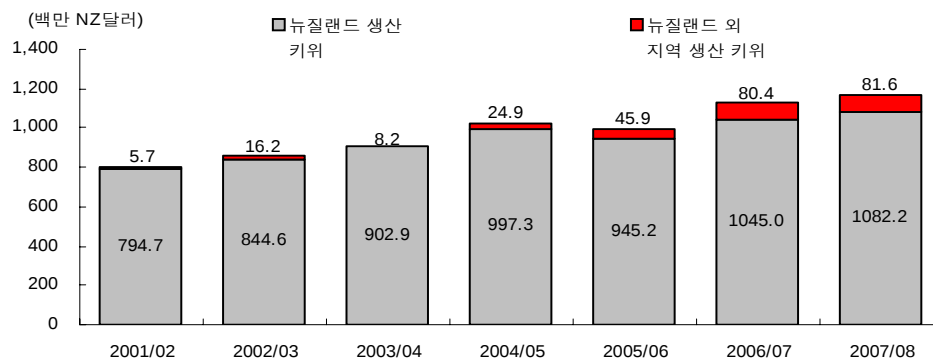
목표	주요 내용
핵심 성과의 최적화	효과적인 비용 관리, 키위 소비량 증대, 소비자에 대한 이해 증진, 기존 시장의 확대, 생산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식 전파, 생산 및 공급 채널 간 관계 개선 및 성과 확산을 통해 현재의 경쟁력·성과를 더욱 강화
경쟁우위 형성	브랜드 구조 재검토를 통한 이윤 창출 기회 확대, 맛·건강(영양)에 대한 연구 강화, 지속가능성 향상, 산업통합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창출
성장 지평의 마련	새로운 키위 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키위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제스프리의 키위 판매량 및 매출액

제스프리는 세계 최대의 키위 수출업체로 2위에 비해 13배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키위는 전세계 과일 소비량의 0.5%만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물량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스프리는 세계 최대의 키위 수출업체로 2위에 비해 13배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제스프리의 세계 키위 매출액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2007/08년 동안 뉴질랜드 키위를 이용한 제스프리의 키위 판매량은 약 92.4백만 트레이(trays)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다. 전년에는 홍수 등의 영향으로 과실 감모량이 많아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연도별 판매량 차이도 평균보다 컸다. 제스프리의 키위 매출액은 2006/07년 1,125.4백만 NZ달러에서 2007/08년 1,163.8백만 NZ달러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위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한 5.6백만 트레이 수준인데 제스프리의 해외 최대 재배지인 이탈리아의 기후 불순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키위의 판매액은 2006/07년보다 1%p 증가한 81.6백만 NZ달러를 기록하였고 세전 수익은 3.5백만 NZ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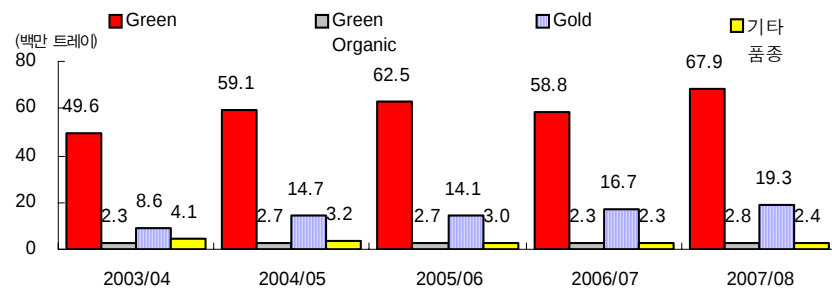
그림 2 뉴질랜드 환율 변화(2007.1.1 ~ 2009.2.23)



자료: <http://www.oanda.com/convert/fixhistory>

뉴질랜드 키위의 트레이당 수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 변화이다. 2007년 이후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질랜드 키위 산업 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8천만 NZ달러(트레이당 84 NZ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제스프리의 품종별 키위 판매량



주: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 기준.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판매량이 급증한 원인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시장 등에서 판매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나 칠레산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트레이당 수익은 전년보다 오히려 낮았다. 품종별 판매량 변화추세를 보면, ‘Green’과 ‘Gold’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reen Organic’은 정체 상태이다. 2007/08년 제스프리의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실적은 Green 품종이 15%, Gold 품종이 16% 증가하였다.⁸⁾

주요 수출시장별 실적

2007/08년에는 소과(small size) 키위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유럽 시장으로 출하된 칠레의 Green 키위 물량도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시장에서 제스프리의 전체 판매물량과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Green과 Gold 품종 모두 연 기준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⁹⁾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의 판매는 동아시아(28%), 일본(14%) 등에서 증가하였고 유럽(3%)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07/08년 가격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덕분에 전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제스프리의 키위 매출액은 2006/07년 1,125.4백만 NZ달러에서 2007/08년 1,163.8백만 NZ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트레이당 수입은 1.14 NZ달러로 하락하였다.

일본은 제스프리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연간 판매액의 25%, 판매량의 17%를 점유한다. 제스프리는 일본 키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존 소비층 확대와 신규 소비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08년 일본 시장에서의 키위 판매량은 16.2백만 트레이로 2006/07년의 14.6백만 트레이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일본의 슈퍼마켓 및 상점과 교섭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출하 시기 초에 칠레산 키위와 경쟁을 하고 생산이 끝날 무렵에는 저가의 다른 과일이 생산되어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2007/08년 유럽시장에서 칠레산 키위는 유리한 환율 조건을 활용하여 제스프리의 키위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스프리는 칠레산에 비해 90~100%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고 ‘Green’, ‘Green Organic’, ‘Gold’ 품종 모두 판매

유럽 시장에서 칠레산 키위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요 시장에서 제스프리의 판매물량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Green과 Gold 품종 모두 연 기준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8)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2006/07년에 해안 지역 키위 손실이 컸던 점도 있다.

9) 그러나 환율 고평가의 부정적 효과와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농가들은 외형상 성과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량과 순수익 기록을 경신하였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키위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식품안전성, 이력추적제,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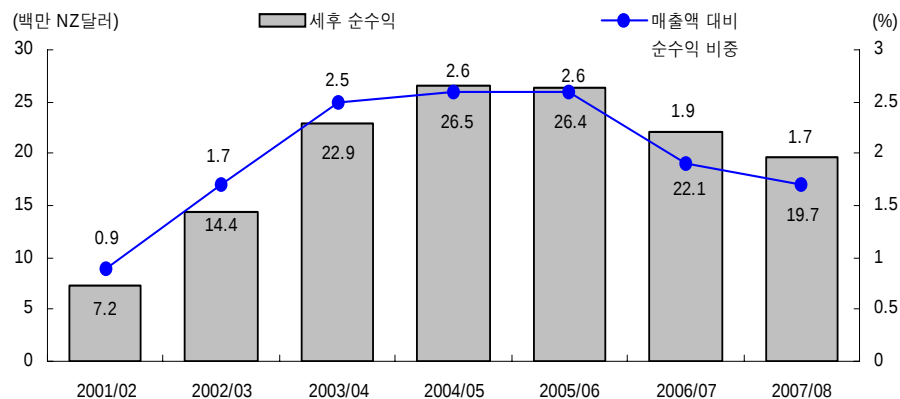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2007/08년 국내산 과일량과 수입 과일량이 증가하고 지난 6년 중 국산 과일 가격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위 판매량이 전년대비 23%나 증가하였다. 칠레산 키위와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 격차(현행 20.2%)는 마케팅과 판매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소비자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2등급(Class 2)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극복하였다.

남아시아(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량과 순수익 증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뉴질랜드-중국 FTA가 발효되면서 향후 9년 동안 관세가 감축되므로 수익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08년 재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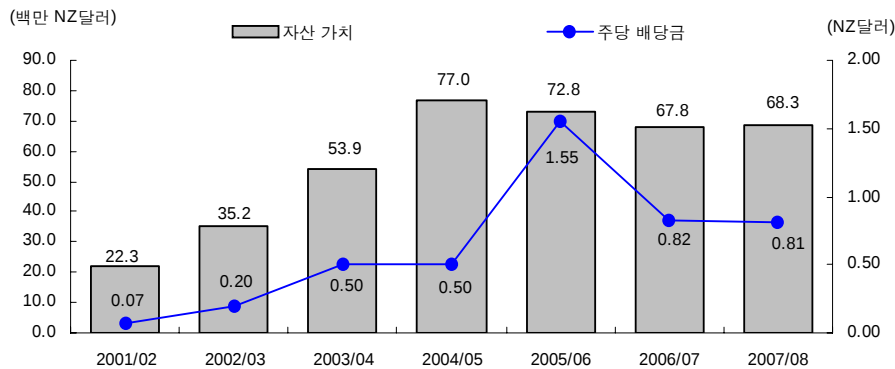
2007/08년 제스프리의 순수익(세후 기준)은 19.7백만 NZ달러(매출액 대비 1.7%)로 전년의 22.1백만 NZ달러(매출액 대비 1.9%)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세전 수익은 ZESPRI™ Gold 면허의 판매에 힘입어 4.7백만 NZ달러 증가하였다. 순수익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순 판매액의 8.1%를 차지하는 마진(브랜드 프리미엄 포함)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림 4 제스프리의 수익



주: 2007/08년 수익 감소는 대부분 마진 구조 변화에 기인하였음.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그림 5 제스프리의 자산 가치 및 배당금



주: 2005/06년은 특별 배당금 포함.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2007/2008년 뉴질랜드 과수농가의 ha당 평균 판매 조수입(average orchard gate return)은 2006/07년보다 4,397 NZ달러 감소한 28,169 NZ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트레이딩 과일 가격의 하락과 수확 후 관리비용 증가 때문이다. 환율 변동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Green Organic’과 ‘Gold’ 품종의 과수농가 조수입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나 ‘Green’ 품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제 무역 관계

뉴질랜드 키위 수출시장 중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증가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중국 FTA에 따른 키위 관세 감소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⁰⁾ 농업 부문은 최대 수혜 분야 중 하나로 대중국 수출의 75% 이상이 농축산물(낙농, 육류, 과일, 채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시장(수출규모 4위)으로 중국이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던 평균 15%의 관세 철폐시 연평균 225~350백만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키위에 부과되던 20%의 관세는 2008년 10월 1일자로 17.8%로 낮아졌고 매년 1월 1일에 2.2%씩 감축하여 2016년까지 무관세로 전환될 방침이다.

한편 WTO 협상은 2008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농업 부문 등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혜택 -뉴질랜드 키위후르츠 수출규정(New Zealand's Kiwifruit Export Regulations)에 의해 제스프리에 제공되는 경우

WTO 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수출창구 단일화(Single Point of Entry)가 키위 산업과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10) 뉴질랜드-중국 FTA는 2008년 4월 7일 타결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포함- 폐지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수출창구 단일화(Single Point of Entry)가 키위 산업과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4. 제스프리의 성공요인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과 운영

제스프리는 주주가 전부 농민인 영농법인이면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가는 제스프리를 통해 수출하며 제스프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영농활동을 하게 된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사업운영도 제스프리의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주주인 생산농가가 대표를 뽑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한다. 중요 정책은 8명의 이사(5명의 생산자 대표, 3명의 독립된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수립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봉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키위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 및 수출업체인 제스프리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제스프리는 생산자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키위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 및 수출업체인 제스프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 강화를 위해 제스프리는 생산자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 전반의 요구와 이슈 등을 조사하였는데 생산자들은 현재 키위 산업의 특징인 단일수출창구 규정이 향후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81%가 이 규정이 사라질 경우 과수농가의 농가수취 조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97%가 ‘ZESPRI™’ 브랜드를 이용한 국제 시장에서의 키위 마케팅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평가하였다. 제스프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단일창구 관련 논의, 출판물,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사결정에도 반영하였다. 제스프리의 생산자 및 주주 이익 극대화 노력 결과 나타난 생산자들의 지지는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제스프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제스프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품질 관리는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스프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품질 관리는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산시기에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확기에도 농약 잔류 테스트를 통과한 과일만 수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든 키위를 선과장에서 선별하여 품질 미달(10%) 판정을 받은 키위는 가공 또는 동물사료로 이용하거나 폐기한다. 또한 생산이력 확

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품질보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좋은 키위를 생산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품질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스프리는 품질 상호비교 시스템(intercheck quality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우수한 품질의 키위를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스프리에서 제시한 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공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서 생산자들이 품질과 재고 관리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2006/07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주요 품종인 Hayward의 재포장율은 35%에 이르고 과실감모율도 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생산량 증가, 설비 부족, 수확 후 관리 미진 등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재포장율과 감모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2008/09년의 주요 과제이다.

품질 관리 노력은 생산 단계인 과수농가 관리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제스프리는 환상박피(trunk girdling)과 비가림 시설(low vigour canopy) 등의 관리시설을 도입하고 교육을 지속하여 단수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한 예로 'Green' 키위의 dry matter 함량은 2005년 16.3%에서 2007년 17.0%로 증가하였고 단수는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6.5%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과수농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생산자들이 과수원을 산업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한 예로 Bay of Plenty 지역에서는 과수농가 5호를 대상으로 기술전문가, 농산업 전문가,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과수원 운영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 지양적 마케팅 계획 수립

제스프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경쟁우위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종합진단 연구(health research)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마케팅 프로그램을 정비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간의 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 제스프리는 브랜드 구조 개선에 착수하여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ZESPRI™의 핵심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실시한 노력의 성과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은 향후 제스프리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제스프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혁신과 마케팅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러한 노력은 ZESPRI™ 키위가 경쟁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 키위 생산농가의 kg 당 수입이 경쟁국인 칠레 농가에 비해 60~100%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스프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경쟁우위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칠레의 생산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좁혀지지만 이러한 실적은 ZESPRI™ 키위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랜드 전략

브랜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 키위를 ‘신선 농산물’ 범주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가격 소비재’로 인지시키는 것이었다.

브랜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 키위를 ‘신선 농산물(perishable commodity)’ 범주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가격 소비재(premium-priced consumer goods)’로 인지시키는 것이었다. 제스프리가 해결하고자 한 브랜드 관련 과제는 1) 제스프리 키위와 다른 키위의 차별성 제시, 2) 제스프리 브랜드 가치의 전세계적 확산, 3) 제스프리 브랜드 가치를 함축할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 4) 기존의 브랜드 개념을 뛰어넘는 혁신적 브랜드 개념 개발, 5)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이었다.

당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키위에 감정적으로 강한 동질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제스프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puts life into life’를 포지셔닝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즉, 키위를 ‘매일 먹는 즐거운 주류과일’(exciting mainstream fruit that is eaten daily)로 포지셔닝하기로 한 것이었다.¹¹⁾ 또한 제스프리는 ‘뉴질랜드’라는 이미지가 자사 브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심분 활용하였다.¹²⁾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키위의 영양학적 장점을 잘 모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케팅 캠페인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뉴질랜드 시장에서 키위는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표 6 과일, 키위, 제스프리 키위의 포지셔닝

포지셔닝	과일	키위	제스프리 키위
개성	좋은 것(구체성 부족)	이국적	카리스마, 경이, 즐거움, 열망, 성취 등
가치	완전성, 좋음	활력	실제적, 순수, 통합적, 고유성, 건강, 활력 등
보상	Good for You	Good for You	
편익	건강, 즐거움	새로움, 건강, 즐거움	새로움, 건강, 즐거움
속성	맛, 영양, 먹기 편함	맛, 영양, 먹기 편함	맛, 영양, 편함, 외관

자료: Beverland(2001).

Beverland(2001)는 제스프리의 시장 분석가, 브랜드 관리자, 호주 지역 관리자 등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브랜드의 성공 정도에 대한 인식, 주요 구매자들의 인식·평

11) 제스프리는 키위를 ‘식사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는 과일’로 홍보하였다.

12) 이러한 전략이 키위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낮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브랜드의 이미지와 품질 관리 등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Beverland, 2001).

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내 대형 슈퍼마켓 체인 3곳에서 상가차단조사법(mall intercept survey)¹³⁾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평가를 분석하였다.¹⁴⁾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키위에 대한 브랜드 활동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품질 보증과 소비자 충성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공급체계 강화

제스프리를 포함한 뉴질랜드 키위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공급 관리 문제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급 부족이나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제스프리의 경우 해외 재배를 통해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해 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제품의 계절성인데 예를 들어 키위는 연중 8개월 동안만 공급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세계의 다양한 수요자들은 연중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제스프리는 수입국에서 키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만 수출을 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 제스프리는 연중 공급프로그램(year-round supply program)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세계의 모든 주요 시장에 하나 이상의 주요 소매업체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7년에 이탈리아와 한국의 기후 불순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위의 공급량이 8% 감소하였지만 제스프리는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⁵⁾

제스프리는 한국에 현장 경험을 갖춘 생산자 기술매니저(Grower Technical Manager)를 새로 파견하여 제주도에 Hort16A 품종을 재배하는 137농가가 자사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키위를 생산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이탈리아(Green 품종)와 한국(Gold 품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뉴질랜드 외부 지역의 키위 생산자들이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대상으로 Gold 품종의 신규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수입국에서 키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만 수출을 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연중 공급 체계를 강화하였다.

13) 설문조사자가 쇼핑센터에 나가 고객에게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대면 조사 방식이다.

14) 키위 식습관, 키위 구매방식, 브랜드 인지도, 제스프리에 대한 인지도, 기본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15) 뉴질랜드 내에서 키위 단경기에 키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뉴질랜드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키위 생산액은 2007/08년 81.7백만 NZ달러로 전년보다 1.1백만 NZ달러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키위 판매량은 전년(610만 트레이)보다 소폭 감소한 560만 트레이 수준이었다. 이는 제스프리의 뉴질랜드 외부 지역 생산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지역의 기후가 좋지 않아 수확이 당초 전망보다 30%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생산량이 20% 감소하였고, 프랑스의 생산량도 기후 불순으로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생산 규모가 작은 칠레와 일본의 생산량은 좋은 편이었다.

표 7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위 판매량, 수입, 수익

단위: 백만 NZ달러, 백만 트레이

구분	수입	수익	판매량
2003/04	8.2	-2.8	0.6
2004/05	24.9	-2.2	2.3
2005/06	45.9	-2.7	3.8
2006/07	80.6	4.4	6.1
2007/08	81.7	3.5	5.6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현재 제스프리는 유럽 시장에 연중 ZESPRI™ 키위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칠레와 한국을 중심으로 Gold 품종을 재배하여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2008/09년에는 일본과 이탈리아, 2009/10년에는 프랑스에도 식재가 완료될 것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외부 지역에서 ZESPRI™ 키위를 생산하는 면적은 약 1,400캐노피 ha(canopy hectar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면적은 뉴질랜드 내 재배면적 2,000ha(면허 발급이 완료될 경우 2,600ha)와 비견될 수 있는 규모이다.

가치 창출 및 비용 절감 노력

2007/08년 농가의 과일 및 서비스 부문 수입(로열티 포함)은 트레이당 전년대비 1.14 NZ달러 감소하였고 농가 조수입도 ha당 4,397 NZ달러 감소하였다. 키위 농가들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생산농가 수익의 지속적 향상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제스프리는 지난 10년 이상 높은 가격 프리미엄과 판매 증가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키위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특히 연료, 수송, 임금이 증가하고 있고 환율의 영향까지 겹쳐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수입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치 창출을 통한 수입 증가와 비용 관리가 건전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이다. 2007년에 제스프리는 가격 프리미엄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여 수입 증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키위 산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가치 창출 증진과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고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를 대표하는 파트너(마케팅, 공급사슬, 수확 후 관리, 농가 등)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스프리의 총경비는 전체 산업 가치사슬 중 약 5%를 점유하여 비중이 비교적 작은 편인데 엄격한 원칙에 입각한 비용 지출을 통해 2007/08년 동안 약 50만 NZ

가치 창출을 통한 수입 증가와 비용 관리가 건전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이다.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인플레이션 등의 제약이 있지만 2007/08년 총경비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선착장 검사 방식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재포장을 하지 않고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2008년 기존의 단층 트레이(single layer tray)를 새로운 국제 규격 트레이로 교체하여 적재효율을 높이고 운송시 보다 효과적으로 과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트레이 도입으로 수확후 관리 자동화, 저온저장고 공간 활용 개선, 취급 비용 감소 등이 가능해져 연간 약 3백만 NZ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레이에 보다 많은 과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물류 효율성이 높아져 2009년부터 연간 4백만 NZ달러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스프리는 비용절감을 위해 2006년에 수출화물 팔레트 검사 시스템(Export Consignment Pallet Inspections)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수출과일 중 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5~10%로 대폭 확대하였다. 수출 물량이 2004/05년 81백만 트레이에서 2007/08년 95백만 트레이로 늘어나고 시설 부족, 수출화물 팔레트 검사 시스템 도입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수출 과정에서 검사, 재포장, 과일 감모에 수반된 비용은 2004년 57.1백만 NZ달러에서 2007년 81.6백만 NZ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제스프리는 수출화물 팔레트 검사 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과일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질랜드 산업자문위원회(Industry Advisory Council)에서는 2008년 초에 현행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판단한 18가지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 정책들은 판매 개선, 운영 계획, 포장과 라벨링, 과일 품질 관련 이슈, 공급자 간 협력, 과수농가 수익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정책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기의 과일 생산으로 조수입 및 수익 증대, 판매 및 운영 계획 수립, 수확 품질 제고(다국어로 된 우수 수확 방식 DVD 배포 등)가 있다. 마지막으로 'Gold' 키위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Aragorn을 설립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선착장 검사 방식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재포장 감소와 기존 단층 트레이의 새로운 국제 규격 트레이로의 교체를 통한 적재 효율 제고는 제스프리의 비용 절감 노력의 대표적 성과이다.

그림 6 제스프리의 Gold 키위 이용 제품



주: 왼쪽부터 퓨레(pure), 농축액, 냉동건조 키위, 급속냉동 키위임.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데 제스프리 마케팅 비용의 20%(약 50억원)를 민간연구소인 '호트 연구소'에 지원하여 키위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품종개발(예: 'Gold' 키위)을 강화하였다.

제스프리는 새로운 키위 품종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최고의 품질과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품종의 개발이 관건이다.

지속가능성과 역신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데 제스프리 마케팅 비용의 20%(약 50억원)를 민간연구소인 호트 연구소(Hort Institute)에 지원하여 키위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품종개발(예: 'Gold' 키위)을 강화하였다.

한편 제스프리는 키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즉, 2007년 환경 및 사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Landcare Research, JortResearch, Agri LINK, Messy대학 등과 연계하여 키위산업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¹⁶⁾을 측정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이 연구가 키위 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여 주요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도 기금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2008년 3월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7억 NZ달러 규모의 축산·식품 혁신 프로그램 기금 조성은 제스프리를 비롯한 주요 식품업체가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스프리도 산업 효율성 제고, 상품 가치 증대, 신상품 개발을 위해 2007/08년에 970만 NZ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10~15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의 혁신 프로그램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자격을 갖춘 연구 및 개발(R&D)에 적용되는 15% 세금 혜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품종 개발

제스프리는 새로운 키위 품종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최고의 품질과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품종의 개발이 관건이다. 현재 시장에 출하된 품종들은 과거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물이고 몇몇 품종들은 식미 검사나 보관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폐기되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키위 육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트연구소와 연계하여 5만여 종의 묘목을 시험포에서 재배·평가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2년 내로 시험 묘목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현재 20종류의 종자에 대해 상업성 등을 분석하고 6종류의 품종을 상품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제스프리는 네 가지 핵심 품종인 'Organic', 'Jumbo', 'Gold', 'Green'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신품종은 과거에 정부 연구기관이었던 호트연구소와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었다.¹⁷⁾ 신품종들은 각기 다른 시장을 목표로 출하되었다. 예를

16) 상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17) 호트연구소의 자금 조달을 위해 복반구 생산자들에게 생산을 허락함으로써, 원활한 품질 관리와 'Zespri' 브랜드

들어 ‘Jumbo’ 품종은 뉴질랜드 내수시장에는 출하되지 않고 주로 어린이 도시락의 후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Gold’ 품종은 금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 품종이며 ‘Organic’ 품종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개발되었다.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

제스프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 품질, 맛을 갖춘 키위를 선보이는 동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다. 제스프리는 2007년 실시한 종합 평가에서 소비자들이 키위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모든 요소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맛(19%)과 건강(15%)이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스프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혁신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 식미와 영양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맞춤형 매장 내 판촉이나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최적의 공급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텔레비전, 유인물, 이벤트 행사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판매 촉진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2007년 실시한 종합 평가에 힘입어 소비자의 구매 기준과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스프리의 자평이다.

제스프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 품질, 맛을 갖춘 키위를 선보이는 동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다.

환율 변화에 대한 대응

제스프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한 헤징(hedg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Z달러는 경제학자들이 2007년 중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었는데¹⁸⁾ 이러한 추세는 중앙은행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Gold 품종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일본 화폐에 대한 NZ달러의 강세가 나타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Green과 Organic 품종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참고자료

김병률 · 이명기 · 유찬희(2009). 농업 선진국의 성장동력 벤치마킹, 『농업전망 2009』.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드의 통일된 이미지 확보에 제한이 생겨 차별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Beverland, 2001).

18) 2008년 들어 NZ달러 가치는 2007년 고점에서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경제학자들은 하향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전망하였다. 유로화 강세는 뉴질랜드 키위 수출에 청신호인 반면, NZ달러의 변동이 여전히 심하여 단기적으로 미국달러/NZ달러와 엔/NZ달러 환율이 3~4년 수준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스프리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08/09년 엔화와 유로화 환율은 2007/08년보다 유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김연중 · Allan N.R.(2005).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08). 『품목별 대표조직(제스프리) 운영사례조사 출장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 마상진(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everland, M.(2001). "Creating value through brands: the ZESPRITM kiwi fruit case." *British Food Journal* 103(6):383~399.
- Crocombe, G.T., Enright, M.J. and Porter, M.E.(1991). *Upgrading New Zealand's Competi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Auckland.
-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2007). *Annual Report*.
- ZESPRI Group Limited(2008). *Annual Report 2007/08*.
- 뉴질랜드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vt.nz>).
-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s.govt.nz>).
- 세계식량기구 홈페이지 (<http://www.fao.org>).
- 제스프리 홈페이지 (<http://www.zespri.co.kr>).

미국과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김 용 렬

미국 미주리주 Boone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지역통계와 호주 통계청에서 2005년 발간한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을 통해 미국과 호주의 농촌지역통계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American FactFinder를 통해 본 Boone 카운티 지역 데이터

American Fact-Finder는 미국 센서스국이 전국 카운티를 기준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2000년 센서스 데이터와 1990년 센서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

American FactFinder는 미국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전국 카운티를 기준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2000년 센서스 데이터와 1990년 센서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두 기간 사이에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를 실시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American FactFinder는 4개 대분류(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 ACS 인구와 주택 추정), 43개 중분류, 60개 소분류, 440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은 유형별 가구, 관계, 결혼유무, 출생률, 조모/조부, 학교등록, 교육수준, 퇴역군인, 장애인, 거주자, 출생지, 미국 시민권, 입국한 연도, 외국출생, 집에서의 사용언어, 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내용은 미국과 호주의 지역통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부연구위원이 정리하였다. (kimy@krei.re.kr, 02-3299-4632)

둘째, 경제적 특성은 고용, 통근, 직업, 산업, 노동자, 소득과 수익, 빈곤율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주택은 주택거주, 주택형태, 건축연도, 방 개수, 침실 수, 주택소유, 이사년도, 자동차, 주택연료, 특정한 특성, 방 1개당 거주자, 주택가격, 저당 및 소유비용, 가구소득대비 월소유비용, 임대료,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ACS 인구와 주택 추정은 성별과 나이, 인종, 단일인종 혹은 2개 이상 인종 혼혈,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미주리주 Boone 카운티 지역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회적 특성	유형별 가구	총가구수
	관계	가구인구
	결혼유무	15세 이상 남성, 15세 이상 여성
	출생률	과거 1년 내 아이를 출산한 15-50세 여성 수
	조모/조부	18세 이하의 손자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조모/조부
	학교등록	학교에 등록한 3세 이상 아이 수
	교육수준	25세 이상 인구
	퇴역군인	18세 이상 시민 수
	장애자	5세 이상 인구, 5-15세 인구, 6-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거주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출생지	총인구
	미국시민권	외국출생인구
	입국한 년도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수
	외국태생지역	외국태생인구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5세 이상 인구수
	조상	총인구
경제적 특성	고용	16세 이상 인구, 민간노동력, 16세 이상 여성, 6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사람, 6-17세 어린이가 있는 사람
	통근	16세 이상 노동자, 16세 이상 민간고용인구
	직업	직업
	산업	산업
	노동자	노동자
	소득과 수익	총가구수, 가족, 가족이 없는 가구
	빈곤율	빈곤율
주택	주택거주	총주택 수
	주택형태	주택형태
	건축연도	건축연도
	방갯수	방 개수
	침실수	침실 수
	주택소유	주택소유유닛, 주택소유

주택	이사연도	이사연도
	자동차	자동차
	주택연료	주택연료
	특정한 특성	특정한 특성
	1개 방당 거주자	1개 방당 거주자, 자가소유유닛
	주택가격	주택가격
	저당 및 월소유비용	저당 및 월소유비용
	가구소득대비 월소유비용	가구소득대비 월소유비용, 임대주택
ACS 인구와 주택 추정	임대료	임대료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
	성별과 나이	총인구, 성별과 나이
	인종	인종
	단일인종 혹은 2개 이상 인종 혼혈	총인구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열	총인구, 총주택 수

자료: U.S. Census Bureau,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American FactFinder

County Business Pattern에 나타난 Boone 카운티 지역 통계

County Business Pattern은 우리나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카운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매년 생성하고 있다.

County Business Pattern은 우리나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카운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매년 생성하고 있다. 구성은 산업분류별 고용인원을 주당 고용인원, 분기별 고용인원, 연간 고용인원, 그리고 총 기업수 통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산업분류별 고용인원에 따른 기업수도 제공해 주고 있다.

표 2 미국 미주리주 Boone 카운티 County Business Patterns

산업분류	주요내용
임업,어업,사냥,농업 지원, 광업, 공공기반서비스,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수송 및 보관, 정보, 금융과 보험, 부동산, 임대업, 전문적인 과학, 기술 서비스, 회사경영, 행정,지원,쓰레기관리,교정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와 사회적 지원, 예술,오락 및 레크레이션, 숙박 및 식료 서비스, 기타서비스(공공해정 제외), 분류되지 않은 기업	주당 고용인원, 1분기 고용인원, 연간 고용인원, 총 기업수

자료: U.S. Census Bureau

2. 호주

호주 통계청과 지역통계국립센터는 지역정책과 연구의 우선순위 확인과 함께 새로운 지역통계의 발전 선도와 분산을 통해 (소규모)지역의 자료 및 통계의 가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통계의 실수요를 분류하는 것인데 기존의 지역가용자료 및 통계의 재분류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정책 및 연구수요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상황인식하에 호주통계청은 지역에서 갖추어야 할 지역통계를 5개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구통계, 삶의 질에 관한 통계, 지역사회역량에 관한 통계, 둘째, 경제적 이슈에 관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환경이슈에 관한 환경과 자원 통계이다(최봉호, 2005).

주요 내용은 첫째, 인구통계(성별/연령별 인구, 장래인구추계, 전출입 인구이동, 이동자의 특성, 통근/통학 인구), 둘째, 삶의 질에 관한 통계(서비스 시설에 관한 통계, 웰빙, 소외 계층), 셋째, 지역사회역량에 관한 통계(인적자본, 사회자본, 정보통신 네트워크), 넷째, 경제통계(경제구조, 경제실적, 외부와의 관계, 장애요인), 마지막으로 환경통계(자연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통계청과 지역통계국립센터는 지역정책과 연구의 우선순위 확인과 함께 새로운 지역통계의 발전 선도와 분산을 통해 (소규모)지역의 자료 및 통계의 가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3 호주의 농촌지역통계 구성

분야	지표
인구통계	○ 남녀별/연령별 인구, 장래인구추계 ○ 전입지/전출지별 인구이동, 이동자의 특성 ○ 통근/통학인구
삶의 질에 관한 통계	○ 서비스시설에 관한 통계(각종 시설에 대한 개수, 운용비용,이용가격, 질(성과)) ○ 웰빙(고용측면/건강측면/주거측면/소득측면 등) ○ 취약 또는 소외 계층 인구에 관한 통계
지역사회역량에 관한 통계	○ 인적자본 - 교육정도별 인구, 학위(자격증)소지자 현황 - 리더쉽, 기술혁신
	○ 사회자본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안전감, 소속감 - 지역사회에의 거주 기간 -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현황 등
	○ 정보/통신 네트워크 - 공공도서관, 신문구독 현황, TV 및 인터넷 보급 현황 등
경제통계	○ 경제구조에 관한 통계 - 산업별 구조 통계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구인현황, 이직률 등

경제통계	- o 경제 실적에 관한 통계 - 생산(산업별 생산 물량 및 금액), 지출(소비, 투자 등), 분배(소득) - 관광통계(관광객 수,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 관광산업에의 투자 현황 등) - o 외부와의 관계(Links)에 관한 통계 - 투입/산출표 - 외국과의 수출/수입, 타 지역과의 이출/이입 - 물동량(철도, 도로, 해운, 항공) - o 장애요인(Barriers) - 숙련 노동자 부족 현황 -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 등
환경통계	- o 자연자원 통계 - 물, 광물, 목재 등 자연자원 부존량 및 금액 - 토지 이용(농업용, 임업용, 광업용 등)에 관한 통계 - 물의 소비량 및 공급량에 관한 통계 - o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에 관한 통계 - 물의 염도(level of salinity) - 토양 오염도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 등

자료: Trewin, Dennis, 2005,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참고자료

최봉호, 2006,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2호, pp.29~39

American FactFinder. <http://factfinder.census.gov/>

County Business Pattern. <http://www.census.gov/epcd/cbp/index.html>

Trewin, Dennis, 2005,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U.S. Census Bureau,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3)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3)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 3)*

성명환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중립종 쌀가격을 제외한 곡물가격은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9년 3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3.4% 상승한 톤당 1,09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한 톤당 620달러이다.

미국 농무부(USDA)가 2009년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3.4% 상승한 톤당 1,09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한 톤당 620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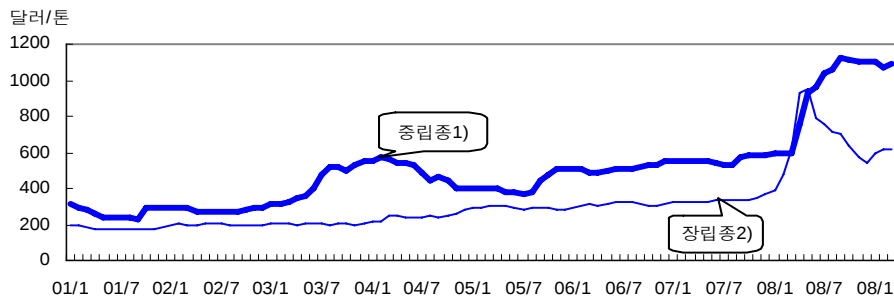
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에는 톤당 1,091달러로 전월보다는 1.5%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83.4% 높은 수준이다. 2009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하여 2009년 3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0.8%, 전월대비 0.8% 상승한 톤당 620달러 수준이다.

2008년도 상반기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가 증대하고 수출 공급량이 부족하였고,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 자국 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앞으로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장립종 쌀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8.3	2009.2	2009.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¹	538	694	595	1,075	1,091	83.4	1.5
	남부 장립종 ¹	407	621	664	562	507	△23.6	△9.8
태 국 ²		320	551	615	615	620	0.8	0.8
베 트 남 ³		292	629	588	433	455	△22.6	5.1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Rice Outlook).

2009년 3월 12일 현재 운임포함 현물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217달러, 대두가 톤당 398달러, 대두박이 톤당 391달러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09년 3월 12일 현재 톤당 21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7.8% 하락한 수준이지만 전월대비로는 7.4% 상승한 수준이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3월 12일 현재 톤당 398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5.5%, 전월대비 0.7% 하락한 수준이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3월 12일 현재 톤당 391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22.6%, 전월대비 1.3% 하락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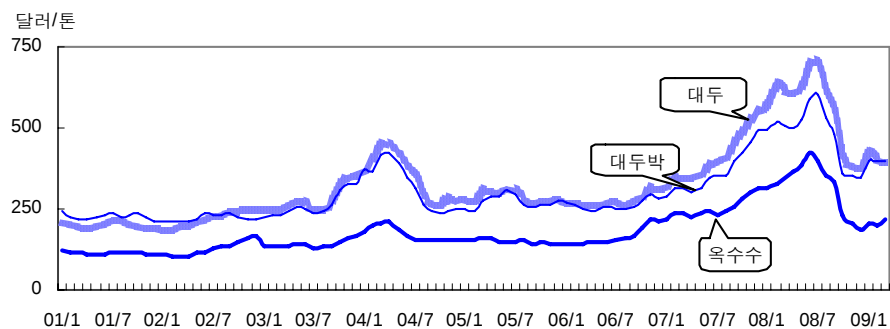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8.3	2009.2	2009.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64	252	349	202	217	△37.8	7.4
대 두	278	410	617	401	398	△35.5	△0.7
대 두 박	261	362	505	396	391	△22.6	△1.3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9년 3월 12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9년 3월 12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2% 하락한 톤당 211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2.1% 하락한 톤당 148달러, 2009년 3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4.0% 하락한 톤당 330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 12일 현재 2009년 3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1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0.2% 하락하였으나, 전월보다는 1.0% 상승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9년 3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11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48달러, 2009년 3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30달러이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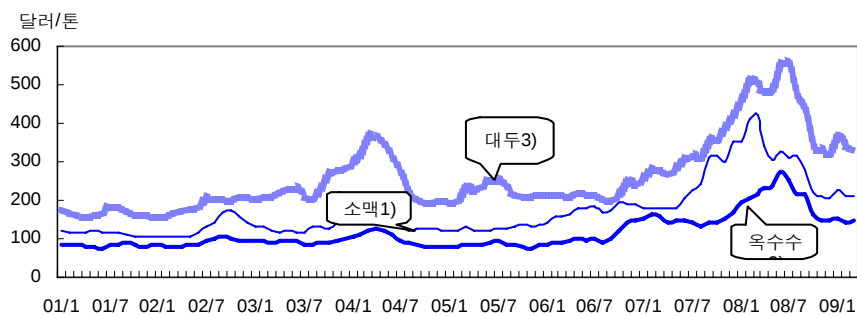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 12일 현재 2009년 4월 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4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2.1% 하락하였으나, 전월보다는 3.5% 상승하였다. 2008/09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약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 12일 현재 2009년 3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330달러로 하락하였다. 이는 전년동월보다는 34.0%, 전월보다는 3.2% 하락한 수준이다.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간 초과하고 기말재고량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6/07	2007/08	2008.3	2009.2	2009.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 ¹⁾	181	315	424	209	211	△50.2	1.0
옥 수 수 ²⁾	140	203	218	143	148	△32.1	3.5
대 두 ²⁾	267	462	500	341	330	△34.0	△3.2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9년 3월 12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연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 3)*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2억 2,547만 톤, 소비량은 2.3% 증가한 21억 5,478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20.5% 늘어난 4억 2,914만 톤, 기말재고율은 19.9%로 전망되었다.

1. 전세계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2억 2,547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1억 5,478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2억 2,5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5,612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8,392만 톤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억 2,13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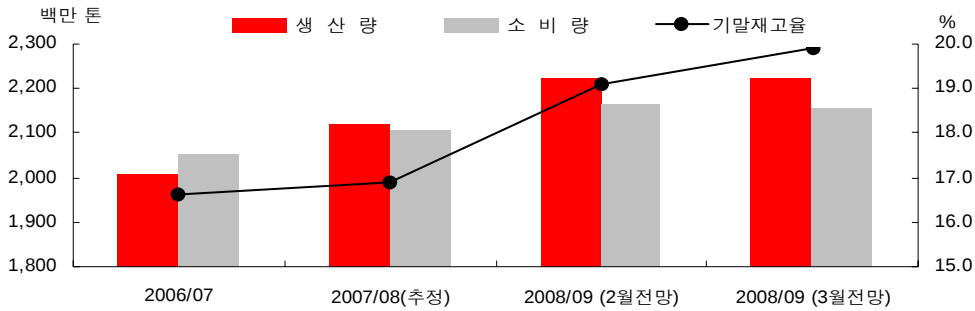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2.3% 증가한 21억 5,47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7,06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5.9% 감소된 2억 5,60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가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0.5% 증가한 4억 2,914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3.0% 포인트 높은 1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22	2,121.64	2,222.60	2,225.47	4.9	0.1
공 급 량	2,393.62	2,462.62	2,578.73	2,583.92	4.9	0.2
소 비 량	2,052.64	2,106.50	2,165.39	2,154.78	2.3	△0.5
교 역 량	260.28	272.02	255.17	256.08	△5.9	0.4
기말 재고량	340.98	356.12	413.34	429.14	20.5	3.8
기말재고율(%)	16.6	16.9	19.1	19.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2. 쌀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도보다 2.1% 증가한 4억 4,095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억 3,343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827만 톤보다 약 516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5.2% 줄어든 2,933만 톤 수준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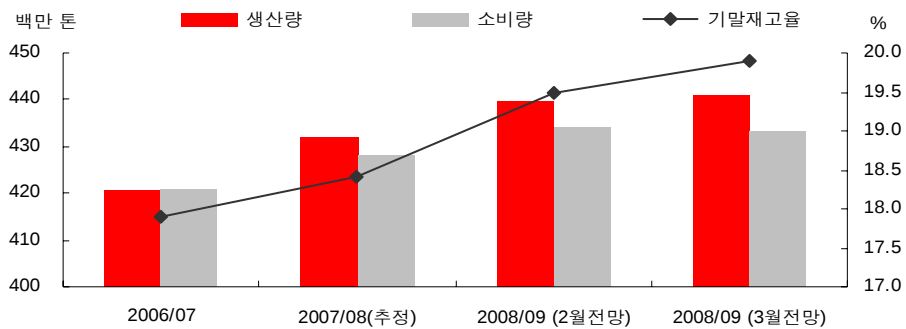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4,095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3,343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933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19.9%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10.2%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수출량도 전년대비 12.8% 감소될 전망이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0.7%, 베트남 17.7%, 미국이 10.3%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8,607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9.9%로 전년도보다 1.5% 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97만 톤으로 예상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각각 41.4%, 4.6%, 9.6%, 10.0%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베트남의 재고량은 21.9% 감소될 전망이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20.65	431.87	439.74	440.95	2.1	0.3
공 급 량	496.33	507.26	518.72	519.50	2.4	0.2
소 비 량	420.94	428.27	434.12	433.43	1.2	△0.2
교 역 량	31.34	30.94	28.97	29.33	△5.2	1.2
기말 재고량	75.39	78.98	84.60	86.07	9.0	1.7
기말재고율(%)	17.9	18.4	19.5	19.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2.0% 증가한 6억 8,4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4.9% 증가한 6억 4,87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17.5%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1억 2,534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2.5% 줄어든 2,667만 톤이지만 전체 수출량의 21.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7.7% 늘어난 1,900만 톤, EU도 전년보다 58.9% 늘어난 1,950만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5,585만 톤으로 전년보다 30.3%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133.1%, 69.8%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3%에서 24.0%로 4.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6억 8,449만 톤, 소비량은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4,8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10	610.99	682.78	684.43	12.0	0.2
공 급 량	743.56	737.97	802.37	804.57	9.0	0.3
소 비 량	616.58	618.38	652.41	648.71	4.9	△0.6
교 역 량	111.58	116.58	123.48	125.34	7.5	1.5
기말 재고량	126.98	119.59	149.96	155.85	30.3	3.9
기말재고율(%)	20.6	19.3	23.0	24.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7억 8,71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35.3% 감소하는 반면, EU는 전년대비 2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7억 8,71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7억 7,245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465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늘어나 18.7%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7억 7,245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시아, 중국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1.3%,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465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22.8% 감소한 7,408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3%, 9.4%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6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30.2%, 아르헨티나는 53.3%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3.3% 증가한 1억 4,46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1,696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늘어나 18.7%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28	791.42	786.47	787.10	△0.5	0.1
공 급 량	836.95	900.23	914.13	917.06	1.9	0.3
소 비 량	728.13	772.57	777.47	772.45	0.0	△0.6
교 역 량	93.80	96.02	75.08	74.08	△22.8	△1.3
기 말 재고량	108.81	127.66	136.66	144.62	13.3	5.8
기말재고율(%)	14.9	16.5	17.6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5. 대두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327만 톤, 소비량은 2억 2,57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3.5%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327만 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중국이 각각 10.5%,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년대비 각각 6.6%, 6.9%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78만 톤보다 약 404만 톤 줄어든 2억 2,57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4.7%, 1.7%, 2.4%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7,48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43.1%, 브라질이 33.3%, 아르헨티나가 15.6%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8%, 15.4%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4,995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321만 톤과 비교하여 6.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2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7.54	220.88	224.15	223.27	1.1	△0.4
공 급 량	290.63	283.57	277.36	276.46	△2.5	△0.3
소 비 량	225.60	229.78	226.62	225.74	△1.8	△0.4
교 역 량	71.50	79.48	74.85	74.81	△5.9	△0.1
기말 재고량	62.69	53.21	49.87	49.95	△6.1	0.2
기말재고율(%)	27.8	23.2	22.0	22.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6. 대두박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376만 톤으로 전년대비 2.9% 감소, 소비량은 1억 5,399만 톤으로 전년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3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거의 균형상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5,424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7.7%, 브라질 22.9%, 미국이 14.0%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25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5.0%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0.5% 포인트 줄어든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9% 감소, 소비량은 2.2%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4.6%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4.16	158.34	154.38	153.76	△2.9	△0.4
공 급 량	160.26	164.62	160.56	159.94	△2.8	△0.4
소 비 량	152.20	157.51	154.49	153.99	△2.2	△0.3
교 역 량	54.27	55.69	54.36	54.24	△2.6	△0.2
기말 재고량	6.28	6.18	5.25	5.25	△15.0	0.0
기말재고율(%)	4.1	3.9	3.4	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6.33	507.26	518.72	519.50	2.4	0.2
기초재고량	75.68	75.39	78.98	78.55	4.2	△0.5
생산량	420.65	431.87	439.74	440.95	2.1	0.3
미국	6.27	6.34	6.52	6.52	2.8	0.0
태국	18.25	19.30	19.40	19.40	0.5	0.0
베트남	22.92	24.38	23.50	23.50	△3.6	0.0
인도네시아	35.30	35.80	36.25	36.25	1.3	0.0
중국	127.20	130.22	135.10	135.10	3.7	0.0
일본	7.79	7.93	8.00	8.00	0.9	0.0
수입량	28.85	27.70	26.82	26.90	△2.9	0.3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25	0.33	0.33	32.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0.94	428.27	434.12	433.43	1.2	△0.2
미국	4.10	3.98	4.06	4.06	2.0	0.0
태국	9.78	9.60	9.50	9.50	△1.0	0.0
베트남	18.78	19.51	19.04	19.04	△2.4	0.0
인도네시아	35.90	36.55	36.85	36.85	0.8	0.0
중국	127.20	127.45	130.50	130.50	2.4	0.0
일본	8.25	8.15	8.23	8.23	1.0	0.0
수출량	31.34	30.94	28.97	29.33	△5.2	1.2
미국	2.92	3.45	3.13	3.01	△12.8	△3.8
태국	9.56	10.02	9.00	9.00	△10.2	0.0
베트남	4.52	4.65	5.20	5.20	11.8	0.0
기말재고량	75.39	78.98	84.60	86.07	9.0	1.7
미국	1.27	0.94	0.84	0.97	3.2	15.5
태국	2.51	2.20	3.11	3.11	41.4	0.0
베트남	1.39	2.01	1.57	1.57	△21.9	0.0
인도네시아	4.61	4.36	4.56	4.56	4.6	0.0
중국	35.92	37.99	41.62	41.62	9.6	0.0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3.56	737.97	802.37	804.57	9.0	0.3
기초재고량	147.46	126.98	119.59	120.14	△5.4	0.5
생산량	596.10	610.99	682.78	684.43	12.0	0.2
미국	49.22	55.82	68.03	68.03	21.9	0.0
호주	10.82	13.84	20.15	21.50	55.3	6.7
캐나다	25.27	20.05	28.61	28.61	42.7	0.0
EU27	124.87	119.44	150.27	150.26	25.8	0.0
중국	108.47	109.30	113.00	113.00	3.4	0.0
러시아	44.90	49.40	63.70	63.70	28.9	0.0
수입량	114.02	113.20	123.00	124.52	10.0	1.2
EU27	5.14	6.94	6.00	6.00	△13.5	0.0
브라질	8.05	6.71	6.00	6.00	△10.6	0.0
북아프리카	16.30	21.74	20.00	19.70	△9.4	△1.5
파키스탄	0.07	1.49	2.80	2.80	87.9	0.0
인도	6.72	1.88	0.00	0.00	△100.0	-
러시아	0.86	0.44	0.30	0.30	△31.8	0.0
소비량	616.58	618.38	652.41	648.71	4.9	△0.6
미국	30.94	28.57	34.29	33.56	17.5	△2.1
EU27	125.50	117.74	129.50	129.50	10.0	0.0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시아	36.40	37.70	44.20	41.20	9.3	△6.8
수출량	111.58	116.58	123.48	125.34	7.5	1.5
미국	24.73	34.40	27.22	26.67	△22.5	△2.0
캐나다	19.43	16.14	19.00	19.00	17.7	0.0
EU27	13.87	12.27	19.00	19.50	58.9	2.6
기말재고량	126.98	119.59	149.96	155.85	30.3	3.9
미국	12.41	8.32	17.84	19.39	133.1	8.7
EU27	14.03	10.40	18.17	17.66	69.8	△2.8
중국	38.45	40.96	45.56	46.31	13.1	1.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6.95	900.23	914.13	917.06	1.9	0.3
기초재고량	124.67	108.81	127.66	129.96	19.4	1.8
생산량	712.28	791.42	786.47	787.10	△0.5	0.1
미국	267.50	331.18	307.39	307.39	△7.2	0.0
아르헨티나	22.50	20.85	13.50	13.50	△35.3	0.0
EU27	53.83	47.67	61.36	61.36	28.7	0.0
멕시코	22.35	22.65	25.00	25.00	10.4	0.0
동남아시아	16.81	18.69	18.79	18.79	0.5	0.0
중국	151.60	152.30	165.50	165.50	8.7	0.0
수입량	91.01	96.68	74.99	74.59	△22.8	△0.5
이집트	4.83	4.15	4.00	4.00	△3.6	0.0
EU27	7.06	14.02	2.00	2.00	△85.7	0.0
일본	16.71	16.61	16.50	16.50	△0.7	0.0
멕시코	8.94	9.56	7.50	7.50	△21.5	0.0
동남아시아	3.96	3.15	3.70	3.30	4.8	△10.8
한국	8.74	9.32	6.50	6.50	△30.3	0.0
소비량	728.13	772.57	777.47	772.45	0.0	△0.6
미국	230.67	261.67	259.09	261.63	0.0	1.0
EU27	62.30	63.50	60.50	60.50	△4.7	0.0
일본	16.5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30.70	32.00	32.00	32.00	0.0	0.0
동남아시아	20.70	21.30	21.78	21.58	1.3	△0.9
한국	8.83	8.64	6.60	6.60	△23.6	0.0
중국	145.00	149.00	158.00	152.00	2.0	△3.8
수출량	93.80	96.02	75.08	74.08	△22.8	△1.3
미국	53.99	61.87	44.45	43.18	△30.2	△2.9
아르헨티나	15.31	15.00	7.00	7.00	△53.3	0.0
중국	5.27	0.55	0.50	0.50	△9.1	0.0
기말재고량	108.81	127.66	136.66	144.62	13.3	5.8
미국	33.11	41.26	45.48	44.21	7.1	△2.8
아르헨티나	1.66	0.56	0.36	1.51	169.6	319.4
EU27	7.38	4.97	5.83	5.83	17.3	0.0
중국	36.60	39.39	46.49	52.49	33.3	12.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90.63	283.57	277.36	276.46	△2.5	△0.3
기초재고량	53.09	62.69	53.21	53.19	△15.2	0.0
생산량	237.54	220.88	224.15	223.27	1.1	△0.4
미국	87.00	72.86	80.54	80.54	10.5	0.0
아르헨티나	48.80	46.20	43.80	43.00	△6.9	△1.8
브라질	59.00	61.00	57.00	57.00	△6.6	0.0
중국	15.97	14.00	16.80	16.80	20.0	0.0
수입량	69.16	78.89	73.99	74.03	△6.2	0.1
중국	28.73	37.82	36.00	36.00	△4.8	0.0
EU27	15.29	15.15	13.55	13.55	△10.6	0.0
일본	4.09	4.01	4.00	4.00	△0.2	0.0
소비량	225.60	229.78	226.62	225.74	△1.8	△0.4
미국	53.47	51.57	49.35	49.08	△4.8	△0.5
아르헨티나	35.09	36.16	35.30	35.30	△2.4	0.0
브라질	34.02	34.79	34.21	34.21	△1.7	0.0
중국	46.12	49.82	51.50	51.00	2.4	△1.0
EU27	16.09	16.14	14.28	14.28	△11.5	0.0
일본	4.31	4.22	4.26	4.26	0.9	0.0
멕시코	3.93	3.74	3.55	3.55	△5.1	0.0
수출량	71.50	79.48	74.85	74.81	△5.9	△0.1
미국	30.39	31.60	31.30	32.25	2.1	3.0
아르헨티나	9.56	13.83	12.70	11.70	△15.4	△7.9
브라질	23.49	25.36	24.90	24.90	△1.8	0.0
기말재고량	62.69	53.21	49.87	49.95	△6.1	0.2
미국	15.62	5.58	5.71	5.03	△9.9	△11.9
아르헨티나	22.61	21.77	19.47	19.67	△9.6	1.0
브라질	18.19	19.18	17.12	17.12	△10.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9.2	2009.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60.26	164.62	160.56	159.94	△2.8	△0.4
기초재고량	6.10	6.28	6.18	6.18	△1.6	0.0
생산량	154.16	158.34	154.38	153.76	△2.9	△0.4
미국	39.06	38.32	35.37	35.24	△8.0	△0.4
아르헨티나	26.06	27.07	26.37	26.37	△2.6	0.0
브라질	24.11	24.67	24.18	24.18	△2.0	0.0
인도	5.28	6.39	6.90	6.90	8.0	0.0
중국	28.47	31.28	32.53	32.13	2.7	△1.2
수입량	52.49	54.76	53.54	53.54	△2.2	0.0
EU27	22.21	24.07	22.50	22.50	△6.5	0.0
중국	0.03	0.20	0.23	0.23	15.0	0.0
소비량	152.20	157.51	154.49	153.99	△2.2	△0.3
미국	31.18	30.08	27.90	27.76	△7.7	△0.5
아르헨티나	0.59	0.62	0.65	0.65	4.8	0.0
브라질	11.12	12.03	12.36	12.36	2.7	0.0
인도	1.85	1.92	1.84	1.94	1.0	5.4
EU27	33.23	35.17	32.84	32.84	△6.6	0.0
중국	27.63	30.85	32.18	31.78	3.0	△1.2
수출량	54.27	55.69	54.36	54.24	△2.6	△0.2
미국	7.99	8.42	7.62	7.62	△9.5	0.0
아르헨티나	25.63	26.80	25.89	25.89	△3.4	0.0
브라질	12.72	12.14	12.40	12.40	2.1	0.0
인도	3.46	4.79	5.05	4.95	3.3	△2.0
기말재고량	6.28	6.18	5.25	5.25	△15.0	0.0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17	1.01	1.01	△13.7	0.0
브라질	1.91	2.59	2.16	2.16	△16.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8, March 11, 2009.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¹⁾	소비량 ²⁾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22	239,362	205,264	26,028	34,098	16.6
2007/08(E)	212,164	246,262	210,650	27,202	35,612	16.9
2008/09(P)	222,547	258,392	215,478	25,608	42,914	19.9

주: E (추정치), P (전망치)

(1) 공급량 = 전년도 재고량 + 생산량, (2) 소비량 = 공급량 - 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 3)*

이 정 민

지난 3월 18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쇠고기

지난 가을 및 겨울에 온난한 기후로 2009년 1~2월 거세우 및 암소 정육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육량 증가로 거세우 및 암소 도축두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USDA AMS¹⁾의 주간 도축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암소 도축 비율은 2008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암소 도축률이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젖소 암소 도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2월까지 암소 도축율은 전년 동기보다 16% 높았으며 2007년에 비해서도 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USDA NASS²⁾의 사육두수 조사(1,000두 이상 사육농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월 비육우 사육두수는 2008년 1월 대비 4% 증가하였으며, 2008년 8~12월 평균 생체중은 지난 4년 평균치보다는 증가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반 이후 사료곡물 가격이 하락한 결과 생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가을 및 겨울에 온난한 기후로 2009년 1~2월 거세우 및 암소 정육량이 크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9년 3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연구원이 작성하였다.(fantom99@krei.re.kr, 02-3299-4198)

1)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미국 농산물 시장 서비스 공사
2)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

게 증가하였다. 정육량 증가로 거세우 및 암소 도축두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매 및 소매가격이 동반하락하였으나 도매가격이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가공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나 당분간 가공업자가 비육우 구입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지가격과 도매가격간 가격차이는 좁혀졌으나 도매-소매 가격 차이는 2009년 1월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초반 멕시코산 생우수입 증가

2009년 생우 수입 예상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한 210만두로 전망된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부진하였으나 지난 몇 주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북부 멕시코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난 몇 달간 계속되었던 가뭄이 끝나 사육에 적당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으로의 멕시코산 생우수출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멕시코의 사육장은 당초 예정보다 몇 달 일찍 출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캐나다산 생우는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 2008년 1~3분기 동안 비육 밀소가 많이 수입되었으나 4분기에는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비육 밀소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의 환율 차이로 캐나다에서 소를 사육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주요 사육지의 사육두수는 11월 이후 증가하였다.

캐나다산 도축용 거세우 및 미경산우 수입은 작년 및 재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8년 4분기부터 나타났다. 2007년~2008년 상반기까지 캐나다의 비육우 사육두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달러화 강세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곡물 비육 쇠고기 수요 감소전망

2009년 미국산 쇠고기의 예상 수출량은 2008년의 18억 8,800만 파운드보다 약간 감소한 18억 8,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수출량은 비슷하지만 수출 비율은 다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멕시코의 폐소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하락으로 수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2008년 3분기에 처음 수출이 재개되었던 시기만큼 많지는 않으나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분기 이후 달러화 강세와 세계 수요 감소로 2009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6억 8,000만 파운드로 전

2008년 하반기 이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부진하였으나 지난 몇 주간 수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북부 멕시코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난 몇 달간 계속되었던 가뭄이 끝나 사육에 적당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망된다. 호주 및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암소 도축은 2009년에도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암소 도축 증가는 쇠고기 가공품 공급 증가로 나타난다. 수입된 대부분의 목초사육 쇠고기도 가공용으로 이용되므로 양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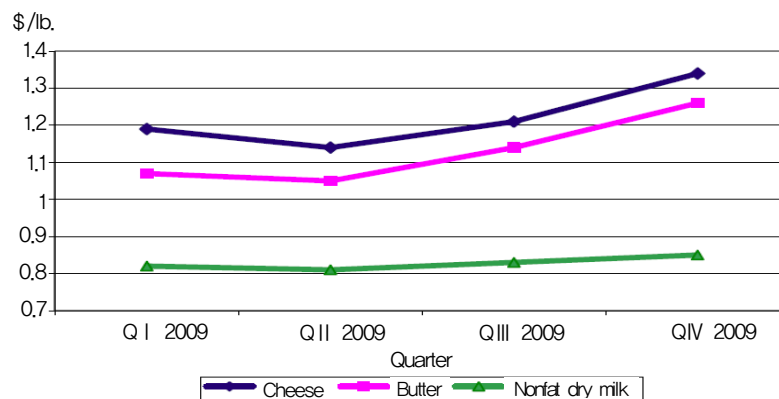
2. 낙농

2009년 젓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당 산유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젓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당 산유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부터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급격한 감소는 3분기와 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젓소 사육규모는 NASS 추정치보다 많았다. 그 결과 전월부터 2009년 사육두수 추정치가 증가되었다. 두당 산유량은 2만 500파운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원유 총 생산량은 1,885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사료가격이 금년 두당 산유량에 도움이 되겠지만 2008년보다 낮은 우유가격으로 인해 수익은 낮아질 것이다. 문제는 생산비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상반기 우유 공급량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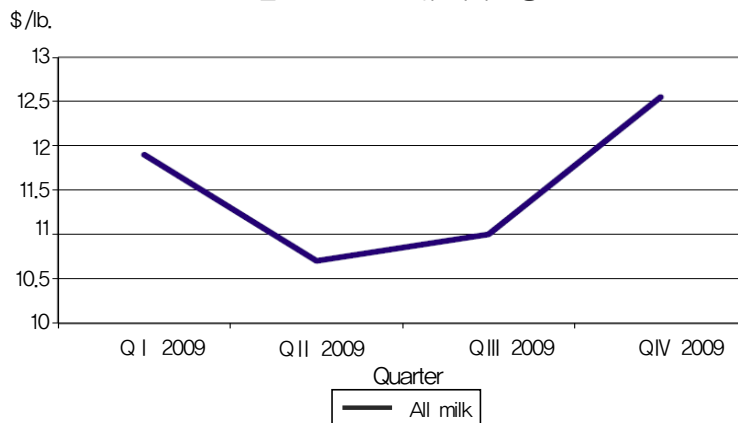
낮은 가격이 추가적인 소비를 자극하여 2009년 전지계통의 상업적 이용은 1% 증가하고 탈지계통의 상업적 이용은 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원유 환산 수출량은 전지계통이 5.1백만 파운드, 탈지계통이 19백만 파운드로 2008년의 8.8백만 파운드, 26.6백만 파운드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국제적인 원유 수요 감소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과일생산에 따른 국제시장의 초과공급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1 2009년 유제품 가격 전망



1월의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 유제품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유장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치즈가격은 파운드 당 1.215~1.275달러, 버터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105~1.195달러, 탈지분유 가격은 파운드당 80.5~85.5센트, 유장은 파운드당 16~19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즈와 버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당초 추정치보다 상승함에 따라 금년 class III와 class IV의 가격도 10.05~10.65달러와 9.5~10.20달러로 약간 상승하였다. 2009년 평균 원유 가격은 파운드당 11.25~11.85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2009년 원유 가격 전망



3. 양돈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적은 23억 파운드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 추정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지육량이 늘어 캐나다로부터의 생돈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년 평균 지육량은 사료비가 하락하여 전년보다 3/4파운드 많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옥수수 산지가격 추정치는 부셸당 3.9~4.3\$로 예상되며 대두박 예상가격도 톤당 265~305\$로 전년가격보다 낮다. 사료가격 하락으로 사육비가 절감되어 돼지 사료급여 확대와 생체중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돼지를 대부분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금년 돼지 수입량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7백만 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추정치는 환율과 생산비 조정으로 캐나다산 돼지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초 비육돈과 육성돈의 수입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전월보다 하향조정된 것이다. 미국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반응 역시 캐나다의 돼지 사육업자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최근의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도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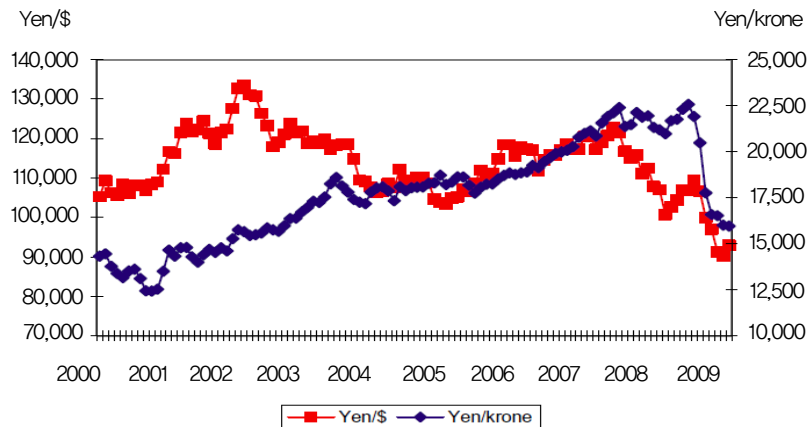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적은 23억 파운드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 추정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지육량이 늘어 캐나다로부터의 생돈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 미국 돼지고기 총 수출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4억 파운드,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 감소한 840백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와 서부 캐나다의 돼지도축시설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1월 미국 생돈 수입량은 645,434두로 전년 동기대비 41.6% 감소하였으며 번식돈을 제외한 모든 수입항목은 2008년 1월보다 감소하였다.

2009년 1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한 322백만 파운드였다. 1월의 미국 돼지고기 3대 수출시장은 일본(전년대비 21% 증가), 멕시코(전년대비 63% 증가), 캐나다(전년대비 9% 감소)이다. 이에 비해 2008년 1월의 3대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을 포함한 중국, 멕시코였다. 2009년 1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한 24.3백만 파운드였다. 2009년 북아메리카의 저조한 거시경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 멕시코가 수입실적을 이어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일본의 수입량은 엔/달러 환율이 경쟁국 중 특히 덴마크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엔/달러 환율이 미국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미국 달러화와 덴마크 크로네화에 대한 엔화 가격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g5/current>)

2009년 미국 돼지고기 총 수출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하지만 2007년보다는 27% 증가한 4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200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 감소한 840백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 가까이 감소한 71.7백만 파운드였다. 미국에 대한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가인 캐나다와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 중소규모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여 총 수입량이 2008년 1월보다 감소하였다.

4. 닭고기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35억 8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1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1.3% 감소한 28억 7천만 파운드였는데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11.7% 감소한 6억 9천 5백 만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생체중은 5.66파운드로 전년보다 다소(1% 미만) 감소하였다. 1월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86억 3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2009년에 들어서도 입란 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4분기까지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 3,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각각 90억 파운드, 91억 파운드, 90억 5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지난 2월 7일~3월 7일까지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8년 동기간보다 6.4%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병아리는 사육기간(대략 7, 8주)을 감안하면 4, 5월에 도계될 물량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종란 입란실적 또한 전년보다 감소하여 닭고기 생산량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월 닭고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로 대부분의 브로일러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지난 2개월 동안의 12개 도시 통닭 가격은 전년보다 4% 상승한 파운드당 81센트였으나 2월 중순 이후 통닭 가격은 하락추세를 보였다. 2009년 1, 2월 북동부 시장의 뼈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25\$로 전년 동기대비 8%, 립가격도 4% 하락하였다. 1/4 다리살의 경우 파운드당 36센트로 전년대비 17%, 날개는 파운드당 1.48\$로 전년대비 18% 하락하였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는 냉동 닭고기 재고 감소로 이어졌다. 2008년 12월 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2007년보다 3.3% 증가하였으나 2009년 1월 냉동 닭고기 재고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6억 7천만 파운드였다. 올해 1분기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전년보다 7.6% 감소한 6억 9천 만 파운드로 전망되지만 경기 하강과 수출 감소로 냉동 닭고기 재고 감소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 수출 증가, 냉동 닭고기 재고 증가 등으로 2008년말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2008년 4분기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인 19.7파운드(8.9kg)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6억 8만 파운드였는데 러시아, 중국, 멕시코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닭고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 1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4억 5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러시아로의 수입 쿼터 감소로 인해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13% 감소한 69억 6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35억 8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1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1.3% 감소한 28억 7천만 파운드였는데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11.7% 감소한 6억 9천 5백 만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 계란

2009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한 15억 9천만판(12개 들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11월까지 산란용 마리수가 감소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 1월에는 이러한 감소세가 증가로 돌아섰다. 2009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한 15억 9천만판(12개 들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식란)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반면 브로일러 생산을 위한 종란(種卵) 생산은 전년보다 7.0% 감소한 8,400만 판이었다. 육계 산업의 위축으로 2008년 12월 육용종계(Parent Flocks) 사육수수도 전년보다 6% 감소하였다.

2009년 1월 뉴욕시장의 A등급 도매가격(대란)은 1.27\$(12개 들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대비 31센트 하락하였다. 계란 생산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2, 3월 가격은 95센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용 마리수의 증가로 2009년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겠으나 2009년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다소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계란 수출량은 전년보다 1,500만 판 증가한 2억 2,000만 판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일본, 홍콩, 멕시코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한 1,200만 판이었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계란 및 계란 가공품 수출이 2백만 판에 그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M-177/Mar 18, 2009 발췌정리

표 1 U.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6,372	6,899	6,908	6,382	26,561	6,275	6,710	6,900	6,490	26,375
-돼지고기	6,024	5,593	5,632	6,098	23,347	5,875	5,500	5,545	6,090	23,010
-양고기	46	43	42	43	174	43	42	38	41	164
-닭고기	9,145	9,439	9,457	8,865	36,906	8,625	9,000	9,100	9,050	35,775
-칠면조고기	1,536	1,560	1,568	1,582	6,246	1,460	1,475	1,500	1,555	5,990
-전체 육류	23,292	23,717	23,791	23,137	93,937	22,439	22,887	23,249	23,387	91,962
-계란, 백만판/12개	1,587	1,577	1,599	1,640	6,403	1,595	1,585	1,615	1,660	6,45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쇠고기	15.6	16.3	15.8	15.1	62.8	15.1	15.9	16.1	15.1	62.2
-돼지고기	12.6	11.6	12.0	13.3	49.5	12.9	12.4	12.0	12.8	50.2
-양고기	0.3	0.3	0.2	0.3	1.0	0.3	0.2	0.2	0.2	0.9
-닭고기	21.3	21.4	21.1	19.7	83.5	20.1	20.7	21.0	20.6	82.4
-칠면조고기	4.0	4.1	4.3	5.3	17.6	3.8	4.1	4.3	5.4	17.6
-전체 육류	54.1	54.2	53.8	54.0	216.1	52.6	53.7	54.0	54.6	215.0
-계란, 개수(백만더즌)	61.8	61.3	62.0	63.8	248.9	61.4	60.5	61.8	63.4	247.1
시장가격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89.59	92.82	98.45	88.22	92.27	81-82	84-88	84-92	87-95	84-89
-비육밀소(Ok City,\$/cwt)	99.88	106.60	110.81	94.62	102.98	94-95	96-100	97-105	101-109	98-103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cwt)	53.88	57.30	61.78	46.70	54.92	43-43	43-46	47-51	49-53	45-49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6.23	79.62	88.83	88.95	85.91	88-90	88-92	84-90	85-91	86-92
-돼지고기(N. base, l.e. \$/cwt)	39.64	52.51	57.27	41.92	47.84	41-42	48-50	49-53	43-47	45-48
-닭고기(12도시, cents/lb)	78.10	80.60	80.60	79.40	79.70	81-82	82-86	82-88	79-85	81-86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77.40	88.90	96.50	87.30	87.50	75-76	82-86	88-96	86-94	83-88
-계란(뉴욕, cents/doz)	158.8	117.30	114.50	122.60	128.30	114-117	107-113	106-114	115-125	111-117
교역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수출량	360	471	609	448	1,888	415	495	490	480	1,880
-쇠고기 수입량	637	661	584	655	2,537	625	710	690	655	2,680
-양고기 수입량	52	48	38	47	185	52	42	39	44	177
-돼지고기 수출량	1,106	1,387	1,126	1,049	4,668	875	950	1,000	1,175	4,000
-돼지고기 수입량	217	205	191	218	831	215	205	200	220	840
-닭고기 수출량	1,507	1,787	1,912	1,756	6,962	1,450	1,525	1,500	1,575	6,050
-칠면조 고기 수출량	148	160	186	182	676	135	145	160	165	605
-모든 수입두수(천두)	2,915	2,149	2,201	2,083	9,348	1,750	1,750	1,750	1,750	7,0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젖소 (천두)	9,286	9,315	9,330	9,330	9,315	9,300	9,240	9,170	9,070	9,195
두당 산유량 (파운드)	5,127	5,236	5,025	5,008	20,396	5,110	5,270	5,070	5,050	20,50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47.6	48.8	46.9	46.7	190.0	47.5	48.7	46.5	45.8	188.5
- 농가소모분	0.3	0.3	0.3	0.3	1.2	0.3	0.3	0.3	0.3	1.2
- 납유량	47.3	48.5	46.6	46.4	188.8	47.2	48.4	46.2	45.5	187.3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5	46.6	46.4	188.8	47.2	48.4	46.2	45.5	187.3
- 연초 재고량	10.4	12.1	13.6	11.5	10.4	10.0	11.9	13.5	12.0	10.0
- 수입량	1.0	0.7	0.7	1.5	3.9	0.9	0.8	0.8	1.2	3.6
- 총공급량	58.6	61.3	60.9	59.5	203.1	58.2	61.1	60.4	58.7	200.9
- 수출량	2.2	2.5	2.5	1.5	8.8	1.1	1.2	1.4	1.4	5.1
- 연말 재고량	12.1	13.6	11.5	10.0	10.0	11.9	13.5	12.0	9.3	9.3
- 소모분	0.0	0.0	0.0	0.0	0.0	0.2	0.1	0.0	0.0	0.3
- 집유량	44.3	45.2	46.9	47.8	184.3	45.0	46.2	47.1	48.0	186.2
전지방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5	46.6	46.4	188.8	47.2	48.4	46.2	45.5	187.3
- 연초 재고량	9.9	10.2	10.8	10.4	9.9	11.0	11.1	11.9	11.3	11.0
- 수입량	1.0	0.8	0.8	1.2	3.8	0.9	0.8	0.8	1.1	3.5
- 총공급량	58.2	59.5	58.2	58.0	202.5	59.1	60.3	58.9	57.8	201.8
- 수출량	6.7	7.6	6.9	5.5	26.6	4.4	4.5	4.8	5.3	19.0
- 연말 재고량	10.2	10.8	10.4	11.0	11.0	11.1	11.9	11.3	10.6	10.6
- 소모분	0.0	0.0	0.0	1.3	1.3	1.3	1.7	1.2	0.6	4.8
- 집유량	41.4	41.1	40.8	40.3	163.6	42.3	42.2	41.7	41.3	167.4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9.23	18.57	18.67	16.80	18.32	11.80	10.45	10.60	12.05	11.25
						-12.00	-10.95	-11.40	-13.05	-11.85
- III 등급	18.12	18.40	17.28	15.95	17.44	9.86	9.44	9.80	11.03	10.05
						-10.06	-9.94	-10.60	-12.03	-10.65
- IV 등급	15.04	15.25	16.23	12.07	14.65	9.35	9.15	9.43	9.94	9.50
						-9.65	-9.75	-10.33	-11.04	10.20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933	1.977	1.869	1.804	1.895	1.206	1.162	1.187	1.300	1.215
						-1.226	-1.212	-1.267	-1.400	-1.275
- 유장 분말	0.305	0.267	0.243	0.186	0.250	0.152	0.148	0.165	0.182	0.160
						-0.172	-0.178	-0.195	-0.212	-0.190
- 버터	1.230	1.411	1.575	1.527	1.436	1.067	1.053	1.105	1.198	1.105
						-1.107	-1.133	-1.215	-1.328	-1.195
- 탈지분유	1.364	1.300	1.334	0.904	1.226	0.811	0.793	0.800	0.815	0.805
						-0.831	-0.833	-0.860	-0.885	0.855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8. 2월	2008. 12월	2009	
				1월	2월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1,966	11,346	11,234	11,288
입식두수	1,000 두	1,663	1,571	1,791	1,622
출하두수	1,000 두	1,776	1,683	1,737	1,682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74,636	629,093	630,209	623,584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771,197	779,160	778,401	700,913
중계수수	1,000 수	58,287	52,873	53,575	54,415
6개월 미만 중계수수 /1	1,000 수	7,536	6,580	6,730	7,215
중계 도태수수 /2	1,000 수	6,445	5,949	5,793	6,125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1,480	27,754	29,664	28,482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5,011	23,179	24,131	22,192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02.8	558.4	549.3	492.3
산란율 마리수 /1	1,000 수	282,731	284,022	284,484	283,487
산란율 /1	%	72.8	76.6	75.3	74.4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37,549	36,393	38,083	36,861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5,356	5,527	5,238	4,715

주: 1)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 월초 기준임.
 3)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08. 5월	2009		
		1월	2월	3월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101.07	107.94	93.02	91.25
판매가격	89.40	83.50	82.10	82.35
순이익	-11.67	-24.44	-10.92	-8.90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 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 ~ 2000=100

구 분	2008. 5월	2009		
		1월	2월	3월
육계(지수)				
사료비	169.1	139.2	137.1	149.9
시장가격	125.7	131.5	132.3	132.4
이윤(가격-비용)	110.4	128.8	130.6	126.2
칠면조(지수)				
사료비	170.4	151.1	148.2	145.7
시장가격	124.3	108.3	112.2	113.5
이윤(가격-비용)	103.3	88.9	95.8	98.8
계란(지수)				
사료비	197.1	145.8	161.1	155.4
시장가격	212.0	163.7	133.7	120.2
이윤(가격-비용)	219.8	173.1	119.3	101.9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8. 1~3	2009. 1~3	2008. 11월	12월	2009. 1월	2월	3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6,372	6,071	1,959	2,082	2,118	1,985	1,967
－ 송아지고기	34	34	11	13	12	11	11
－ 돼지고기	6,023	5,812	1,887	2,052	2,026	1,816	1,970
－ 양고기	46	42	13	15	13	13	16
적색육 전체	12,475	11,959	3,870	4,163	4,170	3,825	3,964
－ 육계	9,145	8,189	2,663	2,932	2,871	2,575	2,743
－ 기타 계육	135	119	39	40	38	38	42
－ 칠면조육	1,536	1,385	508	492	470	453	463
백색육 전체	10,816	9,693	3,210	3,463	3,379	3,066	3,248
전체 육류 생산량	23,291	21,652	7,080	7,626	7,548	6,891	7,212
도축두수(천두)							
소	8,270	7,731	2,516	2,672	2,718	2,527	2,485
－ 거세우	4,058	3,717	1,155	1,296	1,304	1,213	1,200
－ 미경산우	2,568	2,329	791	811	796	778	755
－ 경산우	832	789	311	293	291	248	250
－ 젖소	677	774	212	233	286	248	240
－ 비거세우	135	120	47	39	41	40	39
－ 송아지	212	231	81	94	85	74	72
양	655	544	194	231	189	180	174
돼지	29,597	28,540	9,325	10,145	9,922	8,913	9,704
－ 비육돈	28,601	18,112	9,044	9,839	0	8,704	9,408
－ 모돈	880	495	249	273	0	236	259
육계	2,230,108	2,008,139	638,666	709,846	694,679	637,500	675,960
칠면조	64,917	58,704	22,927	20,903	19,454	19,350	19,900

구 분	2008. 3월	2008. 11월	12월	2009. 1월	2월	3월
정육량 (파운드)						
소	775	784	785	785	791	792
송아지	160	139	142	142	148	155
양	70	68	68	72	72	73
돼지	204	203	203	205	204	204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436.5	471.0	481.6	492.6	462.6	434.2
돼지고기	611.8	528.0	526.7	555.6	606.9	636.6
－ 내장	79.3	21.7	33.5	51.6	69.2	77.7
－ 햄	92.9	154.0	104.7	74.2	87.5	97.3
닭고기	760.8	787.9	811.1	765.4	694.4	647.5
칠면조고기	416.7	578.0	360.4	396.1	446.2	470.1
냉동달걀	16.7	22.4	21.3	22.6	22.6	22.1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8. 3월	2008. 11월	12월	2009. 1월	2월	3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 ~ 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89.40	91.06	85.70	83.50	82.10	82.35
네브라스카	89.28	90.40	83.66	81.60	79.68	82.00
- 암소(수풀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 ~ 1,600파운드	57.81	46.63	45.58	49.25	48.13	46.25
유틸리티급 800 ~ 1,200파운드	55.69	44.75	41.75	45.63	46.75	44.75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 ~ 550 파운드	123.04	107.85	99.37	108.09	111.11	109.65
2) 600 ~ 650 파운드	112.15	97.25	90.42	98.94	101.16	101.60
3) 750 ~ 800 파운드	99.29	97.81	89.51	95.12	93.36	88.90
미경산우						
1) 450 ~ 500 파운드	109.73	92.66	86.11	95.44	100.03	97.00
2) 700 ~ 750 파운드	93.02	90.19	82.89	88.61	86.85	83.0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 ~ 52% 기준	39.40	38.90	39.80	41.43	42.43	42.75
- 모돈						
-아이오와 #1-2, 300 ~ 400파운드	25.33	33.95	41.51	41.31	30.75	47.75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8. 3월	2008. 11월	12월	2009. 1월	2월	3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5.16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셸)	11.92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331.57	NA	NA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43.00	163.00	155.00	149.00	149.00	149.00
- 건초, U.S. Avg.(\$/톤)	128.00	116.00	113.00	110.00	110.00	110.00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8. 3월	2008. 11월	12월	2009. 1월	2월	3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144.42	153.29	144.42	147.68	136.03	134.95
초이스급 1-3, 600 ~ 900 lb	142.64	148.36	135.50	141.14	134.36	134.00
셀렉트급 1-3, 600 ~ 900 lb	N/A	N/A	N/A	N/A	N/A	N/A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44.67	136.13	126.30	142.30	139.62	135.05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46.38	131.50	129.94	130.13	125.31	127.30
– 가족 및 내장	10.79	N/A	N/A	N/A	N/A	N/A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57.57	57.28	58.03	57.54	57.25	57.60
– 등심, 14-19 lb Bl 1/4" trim	90.33	92.88	93.10	94.96	94.83	90.75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67.26	57.25	61.25	69.88	71.00	79.00
– 후지, 20-23 lb Bl trmd. TS1	49.10	52.72	48.97	49.13	43.46	48.00
– 잡육, 72% fresh	48.28	57.00	35.46	39.06	42.43	47.25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9.51	78.51	82.01	81.90	80.17	77.25
– 조지아 독(Georgia dock)	79.35	85.59	86.04	86.56	86.58	85.5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41.06	100.49	110.14	125.38	125.40	137.10
뼈있는 가슴살	87.00	67.84	70.60	77.33	80.70	81.50
다리(전체)	64.78	41.56	44.39	53.79	54.91	55.40
다리(1/4도체)	44.13	29.99	28.39	34.99	36.27	36.25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54.96	116.25	116.09	119.68	97.72	87.90
– 뉴욕	161.81	123.78	124.81	126.90	100.68	98.30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8년 1월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년 2월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년 3월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년 4월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2008년 10월	260.66	3.66	180.8	123.1	102.8
2008년 11월	267.37	3.43	178.9	122.2	102.1
2008년 12월	268.24	3.29	141.8	117.6	109.1
2009년 1월	306.95	3.66	139.2	131.5	128.8
2009년 2월	297.42	3.49	137.1	132.3	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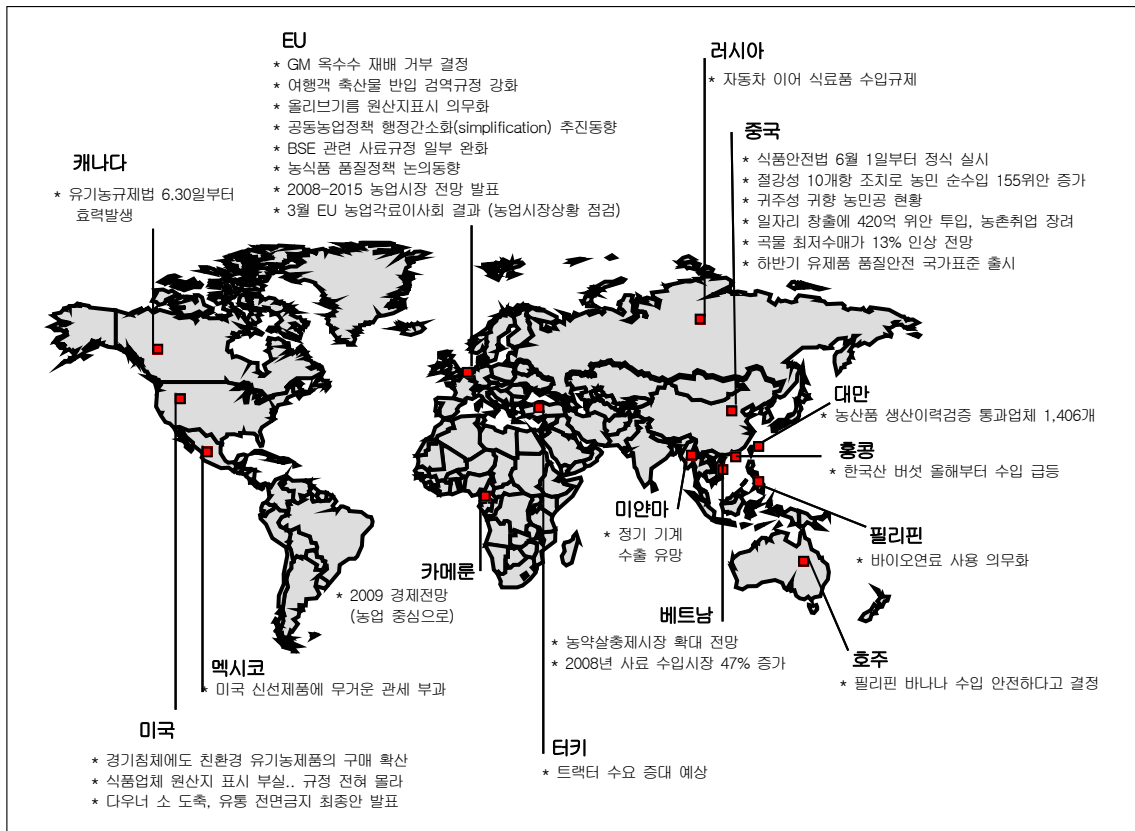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8년 1월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년 2월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년 3월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년 4월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2008년 10월	260.66	3.66	200.1	149.0	122.3
2008년 11월	267.37	3.43	153.7	159.0	161.8
2008년 12월	268.24	3.29	149.1	158.8	163.8
2009년 1월	306.85	3.66	145.8	163.7	173.1
2009년 2월	297.42	3.49	161.1	133.7	119.3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9.3)

세계 농업 브리핑 (2009.3)*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중국,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정식 실시

- 2월 28일, 11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이 통과되어 6.1일부터 정식 실시됨. 이번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04조로 총칙, 식품안전위험검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생산경영, 식품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사고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이 포함됨.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령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무원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식품안전위험검사와 평가제도를 건립하며 식품생산경영과 식품첨가제에 대한 생산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실행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기구는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하지 못함.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의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산업표준 중의 강제집행 표준을 정리하여 통일적인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하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중국, 절강성 10개항 조치로 농민 순수입 155위안 증가

- 2.26일 절강성 농업청은 규모확대와 품질 제고 등을 위한 10개항 조치를 마련한 바, 올해 절강성 농민들의 농업 총수입을 전년대비 51.5억 위안 이상 증가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절강성은 이를 위해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식품 등을 적극 발전시키고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계획임. 2008년 절강성 농촌주민 평균 순수입은 9,258위안으로 24년 연속 전국 선두임.

○ 중국, 귀주성 귀향 농민공 연방

- 중국 광둥지역 등 외지에서 일을 하던 귀주성 농민공 560만 명 중 17%인 약 100만 명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귀향한 것으로 조사됨. 귀주성 노동보장청에서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향 농민공 중 24%는 창업, 76%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49%는 고향에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귀주성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건설 등 기초 인프라시설 구축과 농촌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귀향농민공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공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대출 확대, 세금 감소·면제 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일자리 창출에 420억 위안 투입, 농촌취업 쟁력

-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 노동집약형 산업, 중소기업, 민간경제 부문의 일자리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재정으로 420억 위안을 투입하고 1)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농촌 일선 근무, 군대 복무, 학자금 지원 및 대출 2) 농

민공 취업기회 확대, 기존의 일자리 안정 유지(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직원의 임금협상 장려 등)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곡물 최저수매가 13% 인상 전망**

- 2009.3.4일 개최된 전국정협 11기 2차회의 분과회의에서 중앙농촌업무지도소조판공실 천시원(陳錫文) 주임은 2009년도 중국 곡물가격이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곡물 최저수매가가 평균 13%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천시원 주임은 2009년도 곡물가격이 0.11위안/1근 정도 상승해 연간 1,100억 위안의 농민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한편, 타지로 일 자리를 찾아 나간 농민공이 비교적 많은 15개 성(省)을 조사한 결과, 전체 농민공(1억 3천만 명) 중 15.3%(2천만 명)이 일 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하반기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 실시**

- 중국 위생부는 올해 하반기에 통일화된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힘. 위생부는 6.1일부터 실시될 식품안전법에 의해 현행의 식품품질표준, 위생표준과 산업표준을 정리하여 부족하고 중복되며 모순되는 표준 문제를 해결할 것임.
- 위생부는 이미 식품 중 농약잔류 제한, 유독유해 오염물, 식품첨가제 사용 제한 등 표준의 제정과 개정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농업부, 국가표준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유제품 품질안전 표준사업협조소조를 구성하고 4개 단계로 나누어 유제품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할 것임.

○ **대만, 농산물 생산이력검증 통과업체 이미 1,406개**

- 대만 농업위원회는 2007.01.29일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이 시범 실시된 이래 농산물 생산이력검증을 통과한 경영업자가 1,406개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통계에 따르면, 생산검증이 통과된 농산품의 생산규모는 농산품이 6,600ha, 수산품이 3,100ha, 돼지가 18만 마리, 가금류가 1,000만 마리로 집계되었음.
- 농업위원회는 유럽의 수산물 생산이력검증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나 이미 167개 수산물업체를 지도하여 유럽시장이 요구하는 생산이력 양식장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유럽연맹 수산물 제공 양식장으로 등록하여 대유럽시장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홍콩, 안국산 버섯 올레부터 수입 금등**

- 홍콩의 버섯(HS Code 07095990. 아카리쿠스, 송로버섯 제외) 수입은 연간

900만 달러(2008년 기준) 수준이며 여기에 중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종류(HS Code 07095910, volvariella 또는 straw mushroom)를 합치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임. 2008년 기준 중국산은 전체수입의 42.9%를 차지했으며, 일본산(10.9%), 말레이시아산(10.5%)이 그 뒤를 이었음. 그러나 2009.1월 한국산 버섯이 전체 수입액의 38.2%(22만달러 수입)를 차지해 홍콩의 최대 버섯 수입국으로 등극했음.

- 홍콩은 광둥요리의 특성상 버섯을 즐겨 사용하고 다양한 나라의 식단이 발달되어 있어 버섯 수요가 꾸준한 시장이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음. 현재 중국산 음식의 잦은 사고로 중국 농산물을 지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 뉴질랜드산 등 고가의 버섯이 인기를 얻고 있음. 유통량이 가장 많은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샴프샴프용 중국산 팽이, 느타리 버섯이 일반적이며 뉴질랜드, 네덜란드산 흰 송이버섯은 1팩당 26홍콩달러로 고가이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베트남, 농약살충제시장 확대 전망

- 베트남은 매년 3,000여 종의 해충과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병충해의 다양화로 인해 매년 살충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베트남 농업부(MARD)의 조사에 따르면 1996~2002년 사이에 농약산업은 기술, 장비, 설비 등에 총 500억 VND가 투자되었고 2003~10년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어 2010년까지 농약원료 생산능력이 3,000~5,000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연간 농약 소비는 매년 20~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6만~6만 5,000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현재 유통중인 농약 및 살충제의 30%가 불법 수입제품으로 추정되며 다수의 농약들이 유통기한 초과 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제품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농약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살충제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반면 살균제와 제초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2008년 사료 수입시장 47% 증가

- 베트남은 최근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사료 수입량이 전년대비 47% 증가한 1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43%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인도, 아르헨티나, 미국, 중국 순임.

- 최근 국제 옥류제품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사료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자국 축산업계의 재정지원을 위해 수입 옥류에 대한 관세를 대폭 확대하고 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여 축산물 생산 확대지원 및 사료의 소비를 확대되는 추세임. 베트남 사료산업의 특징은 국내 원료부족에 따라 연간 원료수입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축산제품 가격의 70%가 사료비용으로 추산될 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임. 베트남 사료 제조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낙후된 유통 시스템은 사료비용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함.

○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 필리핀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2006.12.13일 바이오연료법(Biofuel Act of 2006)을 제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연료 생산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공표한 바 있음. 법 제정에 따라 필리핀은 2009.2월부터 바이오연료를 혼합한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초기 4년은 휘발유에 바이오디젤 1%, 에탄올 5%를 혼합해야 하며 이후 혼합비율을 각각 2%,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필리핀 최대 정유회사인 Petron 등 업계에서는 바이오연료법 시행에 대해 가솔린과 혼합되는 에탄올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1~2페소 낮은 가격에 공급하길 요청하고 있어 다소 마찰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에탄올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보다 낮은 실익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정미기계 수출 유망

- 미얀마 쌀 무역업자 협회에 따르면, 2009.2월까지 미얀마 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40만 톤을 기록하였음. 미얀마 쌀은 주로 25% 정도 부서진 쌀(Broken Rice)이며 FOB수출가격은 톤당 270~280달러 수준으로 비슷한 품질을 나타내는 베트남쌀 가격의 77% 정도임. 미얀마 쌀은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해 가격을 우선시하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음.
- 미얀마 정미소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으로 낮은 도정기술로 인해 품질이 낮아 수출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미얀마 정미협회(Myanmar Rice Mill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얀마는 쌀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도정기술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있음.

○ 터키, 트랙터 수요 증대 예상

- 현재 터키에는 총 129만 679대의 트랙터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67만 4,000대가 20년 이상되었을 정도로 노후 트랙터 비중이 높음. 농업생산량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최근 터키 정부는 트랙터 교체를 위한 법안 및 지원책을 마련중임.
- 2008.5월 터키 의회에서는 터키농가의 자동화, 기계화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에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트랙터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터키 내 트랙터 수요는 향후 노후화된 트랙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터키 정부의 농가 지원정책에 따라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 터키 정부에서 대량 구입할 가능성도 높음.

○ 호주, 필리핀 바나나 수입 안전하다고 결정

- 호주정부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연방기관인 Biosecurity Australia의 이 같은 결정은 호주 바나나 재배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퀸즈랜드 선거의 중요한 캠페인 이슈가 되고 있음.
- Biosecurity Australia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식물위생(phytosanitary) 방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수입 위험 분석을 마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명했음. Biosecurity Australia는 호주와 필리핀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개발할 것이며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의 허가를 받은 후 필리핀 바나나에 대한 수입허가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함. 한편 호주 바나나 재배업자 협회는 필리핀 바나나가 해충과 질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다량의 필리핀산 바나나가 수입된다면 호주에 해충이나 질병의 발발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에 캔버라의 상원위원회 청문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힘.

2. 유럽

○ EU 회원국, GM 옥수수 재배 거부 결정

- EU 환경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09.3.2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GM 옥수수(MON 810, T25) 재배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중다수결로 거부함.

-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재배가 승인된 GM 옥수수 MON810, T25에 대해 1999~ 2000년 농업구조와 특별한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잠정적 세이프가드조치(재배 및 유통금지)를 취함. EU 집행위원회는 2007.10월 두 GM 옥수수 식용수입 및 유통에 한정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도록 수정제안하였고 이사회에서는 가중다수결로 찬반이 가려지지 않아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제안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음. 2008.12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를 정당화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두 개 GM 옥수수가 동물위생이나 환경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함. 그러나 2009.3.2일 개최된 환경이사회에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중다수결로 다시 거부함.
- 유럽바이오산업협회(european bioindustry association)는 이사회 결정에 큰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바이오작물 재배를 선택하려는 유럽농가의 희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그린피스, Friends of the Earth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의 승리”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냄.

○ EU, 여행객 축산물 반입 검역규정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3.5일 여행객에 의해 EU 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규정을 채택(2009년 5월부터 시행)함.
- 2001년 EU 역내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EU는 육류, 우유, 기타 동물성 제품의 개인휴대로 인한 동물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2년 검역증명서 없이 축산물의 개인휴대반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후에도 개인휴대화물을 통한 심각한 가축질병의 위험이 계속되자 2004.5월부터 특별히 EU 역내반입을 허가받지 않고서는 개인 탁송물을 통한 축산물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규정을 강화(Commission Regulation 745/2004)함. EU는 작년부터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모토하에 동물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을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중임.

○ EU, 올리브기름 원산지표시 의무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3.6일 올리브기름(virgin and extra virgin olive oil)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2009.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2002년 채택된 기존의 규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올리브 기름의 특성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한 국가에서 올리브기름이 제조된 경우에는 해당국가를 명기하고 상황에 따라 EU 지역산(blend of community olive oils), 비 EU 지역산 (blend of non-community olive oils), EU 및 비 EU 혼합 (blend of Community and non-community olive oils)으로 명기하도록 함. 또한 국제 올리브이사회(IOC)에서 최근 정의를 내린 fruity, green, mature, mild, well-balance 등의 용어를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simplification) 추진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3.18일 2005년부터 추진중인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CAP simplification)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communi-cation)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공동농업정책 법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농민, 유통가공업체, 행정가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EU 집행위원회는 총 50가지의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2006년말부터 각 항목별로 행정간소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9년 현재 43개 과제를 완료함.

○ EU, BSE 관련 사료규정 일부 완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2.26일 식물성 사료에서 무시할 정도(insignificant)의 뼈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동물성 단백질을 전면 금지(zero tolerance) 원칙을 일부 완화하여 유통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EU는 BSE 발병 이후 모든 동물 사료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zero-tolerance rule을 적용하여 왔으며 동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폐기조치하도록 해 왔음.
- EU 집행위원회는 뿌리식물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연히 동물(쥐, 토끼 등) 뼈조각이 함유될 수 있고 추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뿌리식물에 우발적으로 뼈조각이 함유된 경우에도 검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험실 분석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사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무(beet pulp)에 대하여 완화 적용되던 내용(EC regulation 999/2001, A(d))을 모든 식물성 사료 (특히 곡물, 마초)에 확대 적용하여 동 사료에서 무시할 정도 수준의 뼈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위험분석 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면 회원국이 유통 및 이용을 허용

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EC regulation 163/2009). 동 규정은 3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임.

○ EU, 농식품 품질정책 논의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농식품 품질정책방향 녹색(Green Paper)을 발표한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들로부터 받은 의견수렴(총 560개)결과를 2009.3.12일 발표하였으며, 유럽의회도 2009.3.10일 유럽의 농식품 품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함. EU 집행위원회는 품질정책 녹색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9.5.27일 농산물 품질정책 전략 보고서(communication)을 발표할 예정임.
- 1. 농식품 품질정책 녹색 의견수렴 결과
 - 1) 동물복지 개념을 강조하고 무질서한 공적, 사적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 2) 농식품 유통기준을 간소화하되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
 - 3) 지리적표시 기준을 EU차원에서 보다 통일시키고 제3국 등 국제적으로 보호를 강화
 - 4) 전통특산물 보증제도를 개선
 - 5) 민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개선
 - 6) 농식품 분야별로 필요시 생산지 표시제도 도입 지지
- 2. 유럽의회 농식품 품질정책 방향 의견
 - 1) EU 농식품 품질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창설하여 유럽식품안전청(EFSA), EU 집행위원회와 협력
 - 2) 농식품 원산지와 생산방법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
 - 3) 복잡한 농식품 유통기준을 간소화
 - 4) 유럽 농식품 품질표시를 국제적으로 보호, 강화하고 WTO 협상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노력 제고

○ EU, 2008-2015 농업시장 전망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9.3.17일 'EU 2008-2017년 농업시장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는 단기적으로 EU 및 세계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세계 식량 수요의 증가, 바이오연료 부문의 발전, 식량작물 생산성 증가속도 하락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EU 곡물가격은 중기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나 가격변동이 심할 것임. 유지종자는 바이오디젤의 수요증가와 세계 식물성기름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이 지지될 것으로 보임. EU 육류부문 중 닭고기, 돼지고기는

점진적으로 수요, 생산이 증가하나 쇠고기, 양고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임. 육류수요 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지름에 따라 EU의 육류 순수출국의 위치가 점차 악화될 것임. EU 우유생산은 우유쿼터 증량기간 중 점차 증가하겠지만 EU 전체 생산쿼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2015년 우유쿼터를 폐지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 3월 EU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농업시장상황 점검)

- 2009.3.23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설탕, 돼지고기 등 농산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동물복지 선언서를 채택함.
- 1. EU 농산물 시장상황
 - 가. 우유 등 낙농품 : 프랑스, 독일 등 몇 개 회원국은 최근 우유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낙농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작년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합의한 우유생산쿼터 증량을 연기하고 낙농품 시장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스페인은 반대의견을 개진함. 피셔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우유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 버터에 대한 민간저장지원, 버터, 탈지분유 시장개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추가로 학교 우유급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낙농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나. 설탕 : 독일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설탕 부과금으로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이 금년에 설탕부문 지원에 충분하므로 금년도 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자고 제안함. 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에 여유분이 있는 경우 기금에 유보하고 있다가 배분절차에 따라 설탕부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독일제안을 거부함.
 - 다. 돼지고기 : 벨기에는 최근 돼지고기 시장상황이 어려우므로 긴급히 민간저장지원을 개시하고 일시적으로 신선 및 냉장 돼지고기 수출보조금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집행위원회는 돼지고기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2. 기타
 - 가. 농업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3.18일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고받고 이를 농업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함.
 - 나. 농업이사회는 동물복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와 식물제품의 유통검역분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지지를 보냄.

○ 러시아, 자동차 이어 식료품 수입규제

- 2009.1~2월 러시아의 식품 및 식료품 원료 수입액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 감소는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때문임.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부터 루블화는 단기간에 45% 이상 하락하여 육류, 설탕, 유제품 및 고가 식료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침. 2009.1월에는 가금류와 돈육의 수입 쿼터가 축소되었고 러시아산 어류를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가공해 재수입했던 어류 가공제품은 가공목적 원료 수출시 세관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수입이 감소함.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2009.3.6일부터 9개월간 우유 및 크림 등 각종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5%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버터류는 관세율 변경없이 1kg당 최소 0.35유로 관세 부과를 확정함. 뿐만 아니라 2009.5월부터는 유아용 식료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10% 인상할 예정임.

3. 아메리카

○ 미국, 경기침세에도 친환경 유기농제품의 구매 확산

- 미국 친환경 유기농제품은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식료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식품의 비율은 1996년 0.8%에서 2008년 현재 3.5%로 상승함.
- American consumers repor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체 소비자 중 23%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던 2008년에도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지속되었으며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유기농 제품군에서 성장세가 지속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5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제품에 대한 구매가 일반적인 구매패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 식품업체 원산지 표시 부실..규정 잔여 몰라

- 뉴욕타임스는 3.26일 연방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이하 DHHS)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취급 제품의 원산지나 공급처, 판매처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연방보건복지부(DHHS)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5%가 연방정부의 원산지확인규정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8개 식품회사 중 70개가 원산지 또는 공급처,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음.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계속되는 살모넬라 땅콩버터 파동으로 전국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의 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시작된 살모넬라균 감염사태로 뉴욕·뉴저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한 69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9명이 숨졌음.

○ 미국,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최종안 발표

- 발삭 미 농무부 장관은 3.14일 ‘Non-Ambulatory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연방육류검역법에 대한 최종 법안을 발표했음. 발삭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함.
- 지금까지는 ‘다우너 소’라도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검역을 통과하면 케이스별로 도축여부를 결정해 일부 허용해 왔음. 미 농무부에 의하면, 2007년 미국에서 도축된 소 3,400만 마리 중 도축이 허용된 ‘다우너 소’는 0.003퍼센트(1천 마리)임. 그러나 이번 최종 법안은 지금까지의 도축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검역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유통을 전면 금지함. 또한 1차 검역을 통과한 뒤 견지 못하게 된 경우도 반드시 검역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광우병 등 여러 가지 질병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던 ‘다우너 소’의 유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유기농규제법 6.30일부터 효력발생

-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유기농표준을 발표하였으며 유기농규제법은 6.30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임. 캐나다 유기농거래협회는 지금까지 캐나다에 유기농규제법이 없어 자발적인 국립표준, 국제인증, 미 농무부 인증, 유럽유기농인증, 유기농사립표준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인증제로 인해 혼란이 있었다고 밝힘.
- 유기농규제법은 관련업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시장을 믿고 유기농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유기농제품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캐나다시장 내 유기농산물 공급의 80%를 차지)은 캐나다와 유기농인증프로그램의 상호동등협약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유기농규제에 차이가 있어 수출업체는 차후 방향설정에 주목하고 있음.

○ **멕시코, 미국 신선제품에 무거운 관세 부과**

- 3.18일 멕시코 정부는 양파, 배, 체리, 딸기, 감자, 콩, 아몬드, 살구와 같은 신선제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발표하였으며 일부 체리와 살구는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수출하는 배는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힘. 멕시코는 미국의 중요한 배 수출국으로 배 생산의 12%를 수출하고 있음.
-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는 미국 정부의 3.17일 ‘멕시코 트럭의 미국 내 물자수송 금지’ 발표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보복조치로 해석됨.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07년부터 미국 운송부에서 실시하고 있던 임시국경 운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4. 아프리카

○ **카메룬, 2009년 경제전망 (농업 중심으로)**

- 1. 정책 추이 : 카메룬 정부는 인프라 건설 및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임. 카메룬의 사업환경은 행정적 장애요인, 부패, 신용에 대한 접근성 부족, 비효율적인 사법제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곳으로 남아있음.
- 2. 재정 정책 : 카메룬 정부는 프랑스 자금이 투입되는 농업투자과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공식화하여 조세징수를 확대함으로써 2009~2010년 기간 중 원유판매 이외의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밝힌 바 있음. 농업활동의 증가로 공공수입이 증가할 것이나 코코아, 커피 등 카메룬의 주요 수출농산품의 세계 수요와 가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무상원조를 포함한) 총 세입은 2008년 GDP의 23.5%에서 2009~2010년에는 GDP의 16.7%로 감소할 것임.
- 3. 경제성장 : 농업 분야 산출 증가로 어느 정도 경제적 확대를 가져 오겠지만 주요 수출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러한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됨. 200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산림 분야는 이미 급격한 침체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9년 내내 계속되고 2010년에 들어서야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작성 : 김연수

세계농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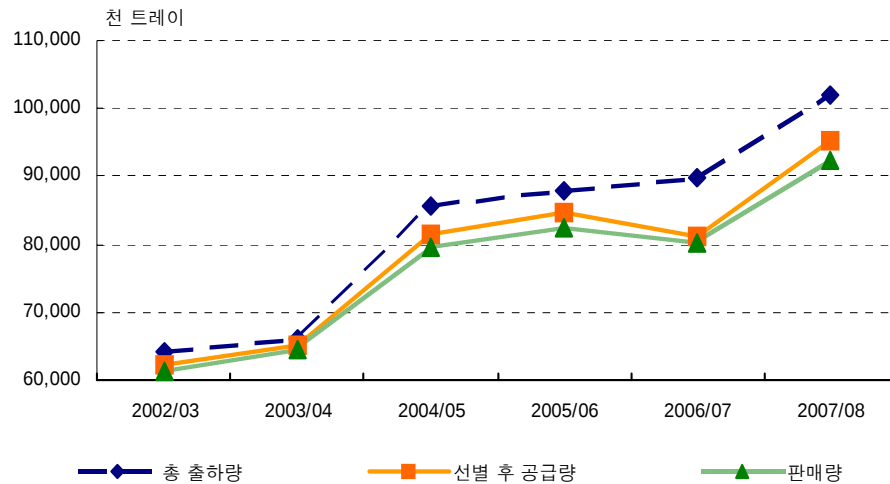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WTO,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전 세계 키위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뉴질랜드 키위 산업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그래프로 담았다. 자료 출처는 제스프리가 발간한 ‘2007/08 Annual Report’이다.

그림 1 뉴질랜드 키위 생산량 (2002/03~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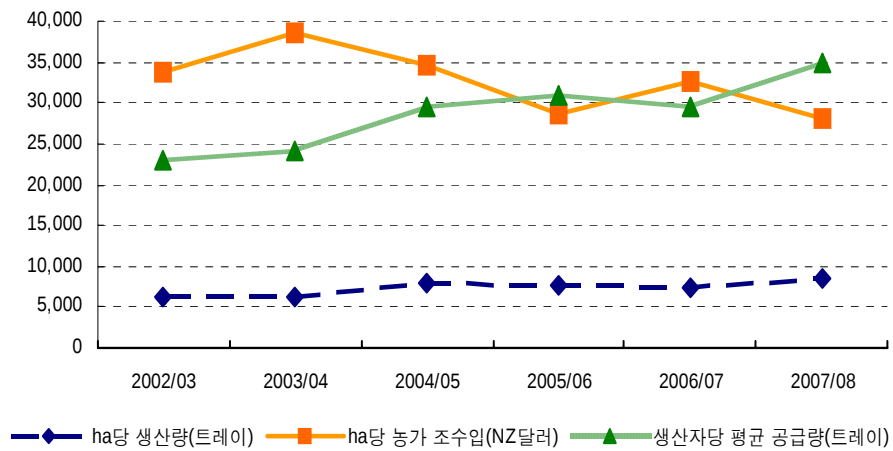


자료: ZESPRTM, 2007/08 Annual Report, 2008

2002/03~2007/08년간 뉴질랜드 키위 판매량/선별 후 공급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98%를 나타내고 있어 공급량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총 출하량, 선별 후 공급량, 판매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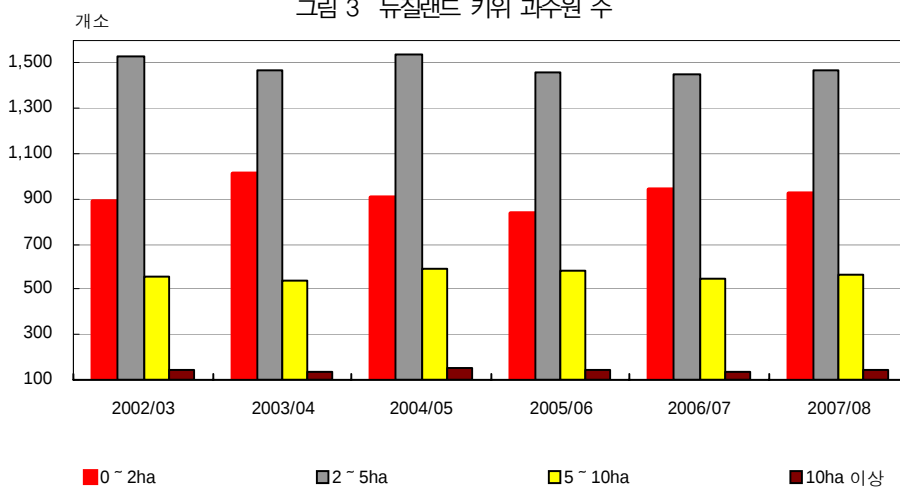
뉴질랜드 키위의 총 생산면적은 2007/08년 기준 12,186ha이며 2002/03년의 10,376ha에 비해 17.4% 증가하였다. ha당 생산량 및 생산자당 평균 공급량도 2002/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반면 ha당 농가 조수입의 경우는 증감을 반복하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키위 과수원 수는 2~5ha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뉴질랜드 키위 산업 일반 (2002/03-2007/08)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그림 3 뉴질랜드 키위 과수원 수



자료: ZESPRI™, 2007/08 Annual Report, 2008

작성자 : 이명기, 노호영

WTO,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표 1 지역별 농산물 수출현황, 2007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regions by destination, 2007

백만달러, %

구분	수출액 Value	지역별수출비중 Share in region's exports		세계수출대비비중 Share in world exports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age change		
	2007	2000	2007	2000	2007	2000-07	2006	2007
세계 World	1127.7	100.0	100.0	100.0	100.0	11	11	19
유럽 Europe								
세계 World	519.3	100.0	100.0	44.2	46.1	11	10	19
유럽 Europe	419.6	79.0	80.8	34.9	37.2	12	9	19
아시아 Asia	26.7	6.1	5.2	2.7	2.4	9	10	14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23.9	5.4	4.6	2.4	2.1	9	11	6
독립국가연합 CIS	16.6	2.0	3.2	0.9	1.5	19	25	25
아프리카 Africa	15.3	3.3	2.9	1.4	1.4	10	13	24
중동 Middle East	11.2	2.5	2.1	1.1	1.0	9	7	20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4.7	1.2	0.9	0.6	0.4	6	20	17
아시아 Asia								
세계 World	213.3	100.0	100.0	18.3	18.9	11	14	20
아시아 Asia	119.3	60.8	55.9	11.1	10.6	10	12	18
유럽 Europe	35.4	15.2	16.6	2.8	3.1	13	17	25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28.7	13.8	13.4	2.5	2.5	11	14	13
중동 Middle East	11.9	4.5	5.6	0.8	1.1	15	19	30
아프리카 Africa	9.3	2.7	4.4	0.5	0.8	19	10	36
독립국가연합 CIS	4.9	1.1	2.3	0.2	0.4	23	22	32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3.2	1.0	1.5	0.2	0.3	18	25	35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세계 World	177.7	100.0	100.0	20.8	15.8	6	11	17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74.8	42.6	42.1	8.9	6.6	6	9	8
아시아 Asia	55.6	31.6	31.3	6.6	4.9	6	13	21
유럽 Europe	20.7	13.7	11.7	2.9	1.8	4	7	17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12.0	5.4	6.8	1.1	1.1	10	15	32
아프리카 Africa	6.8	2.8	3.8	0.6	0.6	11	15	60
중동 Middle East	5.0	2.7	2.8	0.6	0.4	7	35	46
독립국가연합 CIS	2.1	0.9	1.2	0.2	0.2	11	0	48

구분	수출액 Value	지역별수출비중 Share in region's exports		세계수출대비비중 Share in world exports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age change		
	2007	2000	2007	2000	2007	2000-07	2006	2007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세계 World	125.2	100.0	100.0	9.6	11.1	13	12	23
유럽 Europe	40.8	33.9	32.6	3.2	3.6	12	12	27
아시아 Asia	25.1	15.8	20.1	1.5	2.2	17	5	31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20.5	22.0	16.4	2.1	1.8	9	12	8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19.2	18.6	15.3	1.8	1.7	10	15	33
아프리카 Africa	7.2	3.0	5.7	0.3	0.6	24	18	23
중동 Middle East	6.4	3.9	5.1	0.4	0.6	18	21	23
독립국가연합 CIS	5.7	2.2	4.6	0.2	0.5	25	21	4
독립국가연합 CIS								
세계 World	38.6	100.0	100.0	2.4	3.4	17	17	31
독립국가연합 CIS	12.4	27.7	32.2	0.7	1.1	19	12	36
아시아 Asia	10.3	29.3	26.6	0.7	0.9	15	25	19
유럽 Europe	9.3	31.7	24.0	0.8	0.8	12	15	29
아프리카 Africa	2.7	1.7	7.0	0.0	0.2	43	-4	118
중동 Middle East	2.4	2.2	6.2	0.1	0.2	35	14	44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0.8	3.2	2.0	0.1	0.1	9	13	3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0.0	0.3	0.1	0.0	0.0	-4	117	-38
아프리카 Africa								
세계 World	34.3	100.0	100.0	3.4	3.0	9	6	13
유럽 Europe	16.5	49.5	48.0	1.7	1.5	8	7	12
아프리카 Africa	6.9	18.9	20.2	0.6	0.6	10	12	14
아시아 Asia	5.7	18.2	16.5	0.6	0.5	7	-7	15
중동 Middle East	1.7	5.4	4.9	0.2	0.1	7	18	9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1.6	5.2	4.7	0.2	0.1	7	-4	1
독립국가연합 CIS	0.6	1.0	1.8	0.0	0.1	20	-8	42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0.2	0.9	0.6	0.0	0.0	3	20	69
중동 Middle East								
세계 World	19.2	100.0	100.0	1.3	1.7	15	22	20
중동 Middle East	10.8	54.8	56.3	0.7	1.0	15	31	22
유럽 Europe	3.0	22.6	15.8	0.3	0.3	9	-3	15
아시아 Asia	1.7	8.7	8.7	0.1	0.1	15	8	12
아프리카 Africa	1.4	3.2	7.3	0.0	0.1	29	28	24
독립국가연합 CIS	0.8	4.0	4.3	0.1	0.1	16	51	20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0.4	2.7	1.9	0.0	0.0	9	7	10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0.1	0.6	0.3	0.0	0.0	7	47	16

표 2 주요국가의 지역 및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2007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selected economies by origin, 2007

백만달러, %

캐나다 Canada ^a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지역 Region					
세계 World	28,026	100.0	9	12	14
북아메리카 NorthAmerica	17,584	62.7	8	10	16
유럽 Europe	3,582	12.8	10	15	14
아시아 Asia	3,541	12.6	12	13	13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2,664	9.5	11	19	10
아프리카 Africa	460	1.6	11	25	7
독립국가연합 CIS	118	0.4	12	32	-7
중동 Middle East	77	0.3	9	8	18
국가 Economy					
미국 United States	16,362	58.4	7	12	14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3,300	11.8	10	15	13
멕시코 Mexico	1,151	4.1	22	45	43
중국 China	1,020	3.6	24	19	17
브라질 Brazil	704	2.5	12	25	6
상위5 Above5	22,537	80.4	-	-	-
태국 Thailand	523	1.9	8	17	19
칠레 Chile	522	1.9	15	19	14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422	1.5	6	8	2
뉴질랜드 New Zealand	333	1.2	9	-9	18
콜롬비아 Colombia	259	0.9	7	16	-8
인도네시아 Indonesia	235	0.8	11	19	-3
코스타리카 Costa Rica	194	0.7	12	12	12
인도 India	188	0.7	10	34	1
과테말라 Guatemala	185	0.7	9	29	2
아르헨티나 Argentina	182	0.7	7	7	26
말레이시아 Malaysia	172	0.6	16	2	56
베트남 Viet Nam	153	0.5	16	7	12
페루 Peru	141	0.5	14	23	9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136	0.5	6	6	1
에콰도르 Ecuador	128	0.5	8	25	21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109	0.4	11	36	-8
터키 Turkey	108	0.4	24	30	49

미국 United States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지역 Region					
세계 World	109,573	100.0	7	8	6
북아메리카 NorthAmerica	39,428	36.0	5	5	5
유럽 Europe	25,879	23.6	9	12	8
아시아 Asia	21,630	19.7	8	9	7
중남아메리카 South and Central America	19,760	18.0	7	11	5
아프리카 Africa	1,764	1.6	6	0	-5
독립국가연합 CIS	715	0.7	8	21	7
중동 Middle East	397	0.4	9	-7	18
국가 Economy					
캐나다 Canada	27,323	24.9	3	2	3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20,012	18.3	8	9	6
멕시코 Mexico	12,103	11.0	9	12	8
중국 China	5,907	5.4	21	25	13
브라질 Brazil	4,226	3.9	9	10	6
상위5 Above5	69,571	63.5	-	-	-
칠레 Chile	3,968	3.6	9	17	-1
태국 Thailand	3,597	3.3	4	18	4
인도네시아 Indonesia	3,219	2.9	11	13	6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2,773	2.5	7	1	5
뉴질랜드 New Zealand	1,899	1.7	5	-4	-2
콜롬비아 Colombia	1,806	1.6	4	4	4
코스타리카 Costa Rica	1,509	1.4	5	27	7
에콰도르 Ecuador	1,481	1.4	6	10	2
베트남 Viet Nam	1,467	1.3	15	8	18
말레이시아 Malaysia	1,442	1.3	17	24	27
인도 India	1,393	1.3	3	4	1
과테말라 Guatemala	1,268	1.2	6	1	16
아르헨티나 Argentina	1,240	1.1	6	18	4
필리핀 Philippines	1,088	1.0	6	9	8
페루 Peru	967	0.9	17	26	11
일본 Japan	940	0.9	4	9	9
온두라스 Honduras	723	0.7	6	1	16

캐나다 Canada^a (계속)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모로코 Morocco	96	0.3	12	22	39
스위스 Switzerland	93	0.3	13	16	8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90	0.3	14	26	-15
필리핀 Philippines	88	0.3	10	18	6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	84	0.3	8	-9	7
일본 Japan	84	0.3	6	17	11
우루과이 Uruguay	82	0.3	7	-45	111
태국 Taipei, Chinese	77	0.3	9	6	17
캐나다 Canada	67	0.2	...	22	12
노르웨이 Norway	51	0.2	1	4	21
온두라스 Honduras	41	0.1	21	-17	28
니카라과 Nicaragua	36	0.1	16	5	55
나이지리아 Nigeria	35	0.1	32	489	51
홍콩 Hong Kong, China	29	0.1	-3	1	-4
자메이카 Jamaica	27	0.1	2	9	13
이란 Iran, Islamic Rep. of	26	0.1	4	9	8
이스라엘 Israel	24	0.1	13	4	11
싱가폴 Singapore	19	0.1	7	-17	26
상위 40 Above 40	27,575	98.4	-	-	-

a: 수입액은 본선인도조건의 금액임. Imports are valued f.o.b.

미국 United States (계속)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	667	0.6	7	-5	3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656	0.6	8	22	6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626	0.6	4	22	0
터키 Turkey	611	0.6	12	9	18
대만 Taipei, Chinese	541	0.5	1	0	10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505	0.5	8	-22	-6
니카라과 Nicaragua	427	0.4	8	22	15
스위스 Switzerland	423	0.4	9	16	53
우루과이 Uruguay	395	0.4	21	-36	8
노르웨이 Norway	362	0.3	8	33	27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283	0.3	1	4	-9
이스라엘 Israel	233	0.2	7	-6	8
엘살바도르 El Salvador	220	0.2	2	-10	31
파나마 Panama	178	0.2	2	-3	-4
피지 Fiji	176	0.2	22	1	13
방글라데시 Bangladesh	175	0.2	2	36	-15
싱가폴 Singapore	170	0.2	3	11	25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 of Venezuela	149	0.1	-7	-5	-8
상위 40 Above 40	107,150	97.8	-	-	-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지역 Region					
세계 World	528,536	100.0	11	9	20
유럽 Europe	397,576	75.2	12	9	19
중남아메리카 Southand Central America	45,762	8.7	12	9	28
아시아 Asia	33,492	6.3	11	15	18
아프리카 Africa	20,619	3.9	9	2	17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19,381	3.7	3	6	16
독립국가연합 CIS	8,077	1.5	11	13	25
중동 Middle East	2,892	0.5	8	1	15
국가 Economy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379,079	71.7	12	9	20
브라질 Brazil	19,351	3.7	14	5	36
미국 United States	14,057	2.7	3	5	16
아르헨티나 Argentina	9,126	1.7	13	14	30
중국 China	7,086	1.3	16	20	27
상위 5 Above 5	428,699	81.1	-	-	-
노르웨이 Norway	5,036	1.0	8	18	11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4,866	0.9	10	12	21
터키 Turkey	4,677	0.9	13	3	9
캐나다 Canada	4,356	0.8	2	7	15
인도네시아 Indonesia	4,127	0.8	10	14	13
칠레 Chile	3,959	0.7	15	15	22
스위스 Switzerland	3,883	0.7	13	20	26
태국 Thailand	3,665	0.7	10	24	26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3,204	0.6	10	-4	23
말레이시아 Malaysia	3,202	0.6	11	15	6
뉴질랜드 New Zealand	2,980	0.6	8	1	6
인도 India	2,892	0.5	10	18	24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2,711	0.5	7	2	20
베트남 Viet Nam	2,542	0.5	23	57	36
모로코 Morocco	2,519	0.5	12	5	12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2,441	0.5	3	3	5
에콰도르 Ecuador	2,334	0.4	14	4	20

일본 Japan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지역 Region					
세계 World	68,939	100.0	1	0	5
아시아 Asia	28,393	41.2	2	2	1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22,620	32.8	-1	-3	8
유럽 Europe	8,872	12.9	3	-2	11
중남아메리카 Southand Central America	5,303	7.7	4	2	6
독립국가연합 CIS	2,125	3.1	1	2	9
아프리카 Africa	1,471	2.1	1	-7	3
중동 Middle East	155	0.2	3	-11	24
국가 Economy					
미국 United States	17,153	24.9	-1	-2	9
중국 China	8,852	12.8	3	2	-3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7,864	11.4	4	-2	10
호스트레일리아 Australia	5,323	7.7	4	-3	3
캐나다 Canada	4,833	7.0	-1	-4	4
상위 5 Above 5	44,024	63.9	-	-	-
태국 Thailand	3,519	5.1	3	10	-2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49	3.0	1	1	7
인도네시아 Indonesia	1,979	2.9	3	20	5
칠레 Chile	1,967	2.9	5	4	3
브라질 Brazil	1,885	2.7	7	-7	7
뉴질랜드 New Zealand	1,397	2.0	2	-7	7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	1,343	1.9	-5	-11	0
말레이시아 Malaysia	1,267	1.8	3	11	18
베트남 Viet Nam	1,082	1.6	8	6	-1
필리핀 Philippines	1,007	1.5	3	-3	8
대만 Taipei, Chinese	973	1.4	-3	-19	-5
인도 India	714	1.0	-3	7	8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638	0.9	5	-11	-4
멕시코 Mexico	632	0.9	5	1	12
노르웨이 Norway	475	0.7	-4	-20	13
아르헨티나 Argentina	416	0.6	8	48	73
싱가폴 Singapore	378	0.5	3	12	17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계속)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6	2007
콜롬비아 Colombia	2,249	0.4	10	4	20
우크라이나 Ukraine	2,031	0.4	23	23	37
코스타리카 CostaRica	1,773	0.3	11	13	24
페루 Peru	1,703	0.3	15	27	17
이스라엘 Israel	1,697	0.3	10	1	24
아이슬란드 Iceland	1,658	0.3	9	9	11
가나 Ghana	1,375	0.3	16	7	26
케냐 Kenya	1,309	0.2	10	12	11
카메룬 Cameroon	1,262	0.2	7	-3	16
멕시코 Mexico	960	0.2	11	11	27
크로아티아 Croatia	944	0.2	18	26	4
세르비아 Serbia	854	0.2	...	95	18
튀니지 Tunisia	851	0.2	13	44	-9
우루과이 Uruguay	834	0.2	14	19	18
이집트 Egypt	826	0.2	19	9	28
필리핀 Philippines	752	0.1	9	5	13
일본 Japan	693	0.1	7	6	24
나이지리아 Nigeria	622	0.1	13	-14	23
상위 40 Above 40	510,487	96.6	-	-	-

일본 Japan (계속)

구분	수입액 Value	점유율 Share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2007	2007	2000-07	2006	2007
콜롬비아 Colombia	278	0.4	3	-2	-4
페루 Peru	242	0.4	12	40	-1
터키 Turkey	173	0.3	12	3	26
모로코 Morocco	147	0.2	-10	9	18
에콰도르 Ecuador	135	0.2	-7	16	-13
미얀마 Myanmar	126	0.2	7	22	5
가나 Ghana	123	0.2	15	11	55
아이슬란드 Iceland	119	0.2	-3	-8	1
스리랑카 SriLanka	107	0.2	-2	17	-4
모리타니아 Mauritania	102	0.1	4	-22	4
과테말라 Guatemala	97	0.1	2	-16	4
스위스 Switzerland	85	0.1	12	-4	66
크로아티아 Croatia	83	0.1	24	103	-8
에티오피아 Ethiopia	79	0.1	4	24	-14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69	0.1	-9	-13	3
이스라엘 Israel	68	0.1	5	-3	7
그린란드 Greenland	65	0.1	-5	-8	2
탄자니아 Tanzania	54	0.1	3	11	-2
상위 40 Above 40	67,898	98.5	-	-	-

표 3 주요 국가의 농산물 수출입현황, 2007
Leading exporters and im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2007

십억달러, %

구분	거래금액 Value	세계수출액/수입액대비 비중 Share in world exports/imports			
	2007	1980	1990	2000	2007
주요수출국					
유럽연합	487.74	-	-	41.7	43.3
유럽연합외부수출액	108.66	-	-	10.1	9.6
미국	113.51	17.0	14.3	12.9	10.1
캐나다	48.67	5.0	5.4	6.3	4.3
브라질	48.22	3.4	2.4	2.8	4.3
중국	38.85	1.5	2.4	3.0	3.4
아르헨티나 ^a	28.81	1.9	1.8	2.2	2.6
태국	24.96	1.2	1.9	2.2	2.2
러시아	23.52	-	-	1.4	2.1
인도네시아	23.43	1.6	1.0	1.4	2.1
오스트레일리아	22.35	3.3	2.9	3.0	2.0
말레이시아	20.51	2.0	1.8	1.4	1.8
뉴질랜드	16.04	1.3	1.4	1.4	1.4
인도	16.02	1.0	0.8	1.1	1.4
멕시코	15.59	0.8	0.8	1.6	1.4
칠레	13.63	0.4	0.7	1.2	1.2
상위 15	941.87	-	-	83.4	83.5
주요수입국					
유럽연합	528.54	-	-	42.3	44.4
유럽연합외부수입액	149.46	-	-	13.2	12.5
미국	109.40	8.7	9.0	11.5	9.2
일본	68.86	9.6	11.5	10.4	5.8
중국	65.24	2.1	1.8	3.3	5.5
캐나다 ^b	27.34	1.8	2.0	2.5	2.3
러시아 ^{a, b}	26.88	-	-	1.5	2.3
대한민국	21.94	1.5	2.2	2.1	1.8
멕시코 ^b	21.90	1.2	1.2	1.8	1.8
홍콩	13.43	1.2	1.9	2.0	1.1
유보수입량	8.60	1.0	1.0	1.1	0.7
사우디아라비아	12.45	1.5	0.8	0.9	1.0
아랍에미리트연합국 ^a	11.29	0.3	0.4	0.6	0.9
타이베이, 중국	10.78	1.1	1.4	1.3	0.9
말레이시아	10.61	0.5	0.5	0.8	0.9
인도네시아	10.46	0.6	0.5	1.0	0.9
스위스	10.37	1.2	1.3	0.9	0.9
상위 15	944.68	-	-	82.1	79.3

a : 국제연합사무국이 추정한 값을 포함함. Includes Secretariat estimates.

b : 수출액은 본선인도조건의 금액임. Imports are valued f.o.b.

표 3 주요 국가의 농산물 수출입현황, 2007 (계속)
Leading exporters and im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2007

십억달러, %

연간변화율 Annual percent age change				Country
2000-07	2005	2006	2007	
				Exporters
11	7	10	19	European Union(27)
10	8	13	15	extra-EU(27) exports
7	4	12	22	United States
5	2	7	10	Canada
18	14	13	22	Brazil
13	19	13	19	China
13	12	11	35	Argentina ^a
11	4	21	16	Thailand
18	23	23	36	Russian Federation ^a
17	16	27	31	Indonesia
4	-4	5	1	Australia
14	2	16	32	Malaysia
11	7	2	21	New Zealand
15	19	20	30	India
8	13	15	8	Mexico
11	11	14	19	Chile
-	-	-	-	Above 15
				Importers
11	6	9	20	European Union(27)
10	5	9	20	extra-EU(27) imports
7	9	8	6	United States
1	1	0	5	Japan
19	7	14	26	China
9	11	12	14	Canada ^b
16	23	22	15	Russian Federation ^{a, b}
8	5	11	18	Korea, Republic of
10	7	12	19	Mexico ^b
2	-1	7	13	Hong Kong, China
4	3	7	10	retained imports
12	31	8	26	Saudi Arabia
17	17	22	28	United Arab Emirates ^a
5	5	2	12	Taipei, Chinese
13	3	17	25	Malaysia
9	11	2	40	Indonesia
9	4	7	17	Switzerland
-	-	-	-	Above 15

a : 국제연합사무국이 추정한 값을 포함함. Includes Secretariat estimates.

b : 수출액은 본선인도조건의 금액임. Imports are valued f.o.b.

표 4 주요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현황, 1990-2007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selected economies, 1990-2007

백만달러, %

구분	수출액 Value					전체 상품수출액에서의 비중 Share in economy's total merchandise exports	
	1990	2000	2005	2006	2007	2000	2007 ^a
세계 World	414,723	553,051	849,007	943,676	1,127,667	8.8	8.3
아르헨티나 Argentina	7,482	11,954	19,182	21,266	28,806	45.4	51.5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11,875	16,446	21,209	22,178	22,353	25.7	15.8
벨로루시 Belarus	-	761	1,720	1,844	2,231	10.4	9.2
브라질 Brazil	9,779	15,464	35,052	39,528	48,222	28.1	30.0
카메룬 Cameroon ^b	695	438	735	1,011	1,099	23.9	30.5
캐나다 Canada	22,339	34,789	41,214	44,210	48,672	12.6	11.6
칠레 Chile	2,779	6,399	10,098	11,490	13,632	33.3	20.0
중국 China	10,060	16,384	28,711	32,543	38,853	6.6	3.2
콜롬비아 Colombia	2,514	3,106	4,569	4,922	5,858	23.8	19.5
코스타리카 Costa Rica	927	1,812	2,337	2,675	3,091	30.9	33.0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2,374	2,308	3,368	3,508	3,898	59.4	45.9
크로아티아 Croatia	...	595	1,216	1,518	1,730	13.4	14.0
에콰도르 Ecuador	1,236	1,948	3,215	3,945	4,245	39.5	30.8
이집트 Egypt ^b	669	613	1,180	1,105	1,528	13.1	9.4
에티오피아 Ethiopia	260	406	822	908	1,034	83.5	80.5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	230,390	374,939	410,972	487,736	9.4	9.2
유럽연합내부수출 intra-EU(27)exports	-	174,774	291,489	316,861	379,079	10.5	10.5
유럽연합외부수출 extra-EU(27)exports	-	55,616	83,450	94,111	108,657	7.1	6.4
가나 Ghana ^b	...	621	1,643	1,616	...	37.2	43.6
과테말라 Guatemala	849	1,618	1,996	2,229	2,845	60.0	41.1
온두라스 Honduras	680	782	859	1,133	1,300	23.4	23.2
홍콩 Hong Kong, China	4,556	5,693	4,314	4,688	5,478	2.8	1.6
국내생산수출 domestic exports	821	454	535	576	652	1.9	3.6
재수출 re-exports	3,735	5,240	3,779	4,113	4,826	2.9	1.5
아이슬란드 Iceland	1,274	1,257	1,833	1,857	2,083	66.1	43.6
인도 India	3,506	5,931	10,271	12,353	16,020	14.0	11.0
인도네시아 Indonesia	4,154	7,764	14,063	17,907	23,432	11.9	19.9
이란 Iran, Islamic Rep. of ^b	601	932	2,279	2,911	3,512	3.2	4.1
이스라엘 Israel	1,327	1,182	1,725	1,799	2,253	3.8	4.2
일본 Japan	3,298	4,395	6,007	6,482	7,558	0.9	1.1
케냐 Kenya	559	1,062	1,628	1,898	2,231	61.3	54.7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	2,985	4,298	5,285	5,346	6,319	2.5	1.7

구분	수출액 Value					전체 상품수출액에서의 비중 Share in economy's total merchandise exports	
	1990	2000	2005	2006	2007	2000	2007 ^a
말라위 Malawi ^b	382	342	413	454	617	90.2	86.9
말레이시아 Malaysia	7,500	8,015	13,377	15,573	20,515	8.2	11.6
멕시코 Mexico	3,466	9,100	12,557	14,468	15,589	5.5	5.7
모로코 Morocco	1,228	1,746	2,575	2,629	2,804	23.5	19.1
뉴질랜드 New Zealand	5,966	7,642	13,006	13,235	16,045	57.6	59.5
니카라과 Nicaragua	295	547	716	843	976	84.8	81.2
노르웨이 Norway	3,077	4,244	5,926	6,615	7,508	7.1	5.5
파키스탄 Pakistan ^b	1,081	1,234	2,155	2,210	2,327	13.7	13.0
파나마 Panama	263	580	827	864	937	67.5	80.6
파라과이 Paraguay	863	699	1,432	1,582	2,377	80.4	85.4
페루 Peru	789	1,911	3,163	3,812	4,184	27.2	15.0
필리핀 Philippines	1,683	2,026	2,729	2,830	3,190	5.1	6.3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b	-	7,527	14,097	17,351	23,523	7.1	6.6
세르비아 Serbia	...	...	...	1,372	1,822	...	20.7
세르비아몬테네그로 Serbiaand Montenegro	...	389	1,020	...	...	22.6	20.1
싱가폴 Singapore	4,095	3,723	4,542	5,088	5,964	2.7	2.0
국내생산수출량 domestic exports	1,183	1,202	1,879	2,359	2,399	1.5	1.5
재수출량 re-exports	2,912	2,521	2,662	2,730	3,565	4.3	2.5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1,691	3,227	5,246	5,022	5,573	10.8	8.0
스리랑카 SriLanka ^b	758	1,093	1,496	1,695	2,049	20.1	26.5
스위스 Switzerland	2,244	2,521	4,000	4,693	5,993	3.1	3.5
시리아 Syrian Arab Republic	767	621	1,084	2,133	...	13.4	19.5
대만 Taipei, Chinese	3,732	3,509	4,468	4,316	4,503	2.4	1.9
탄자니아 Tanzania	...	432	732	704	889	65.9	43.9
태국 Thailand	7,786	12,220	17,816	21,552	24,960	17.7	16.3
튀니지 Tunisia	418	548	1,155	1,456	1,516	9.4	10.1
터키 Turkey ^b	3,300	3,828	8,093	8,633	10,042	13.8	9.4
우간다 Uganda	...	292	559	598	825	63.4	50.8
우크라이나 Ukraine	-	1,585	4,734	5,132	6,778	10.9	13.8
아랍에미리트연합 United Arab Emirates ^b	501	2,818	3,760	4,683	6,228	5.7	3.6
미국 United States	59,404	71,408	82,674	92,664	113,511	9.1	9.8
우루과이 Uruguay	1,025	1,278	2,129	2,566	2,863	55.7	63.7
베트남 Viet Nam ^b	...	3,954	7,579	9,304	11,697	27.3	24.2

a : 또는 최근 연도임. Ornearestyear.

b : 국제연합사무국이 추정 한 값을 포함함. Includes Secretaria estimates.

표 5 주요 국가들의 농산물 수입현황, 1990-2007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selected economies, 1990-2007

백만달러, %

구분	수입액 Value					전체 상품수입액에서의 비중 Share in economy's total merchandise imports	
	1990	2000	2005	2006	2007	2000	2007 ^a
알제리 Algeria	2,766	2,815	4,280	4,506	6,103	30.7	22.1
아르헨티나 Argentina	326	1,644	1,247	1,396	2,225	6.5	5.0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b	2,735	4,234	6,579	7,268	8,919	5.9	5.7
방글라데시 Bangladesh ^{c, d}	835	1,716	2,732	3,228	4,584	19.3	24.7
벨로루시 Belarus	-	1,227	1,843	2,244	2,487	14.2	8.7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 of Venezuela ^b	986	1,970	2,404	3,277	4,487	13.5	10.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and Herzegovina	...	...	1,313	1,378	1,659	...	17.0
브라질 Brazil ^e	2,690	4,762	4,341	5,487	7,235	8.5	6.0
캐나다 Canada ^b	9,009	15,272	21,436	23,956	27,341	6.4	7.2
칠레 Chile	461	1,421	2,156	2,653	3,442	7.7	7.3
중국 China	7,855	19,544	45,189	51,653	65,236	8.7	6.8
콜롬비아 Colombia	593	1,736	2,191	2,704	3,466	15.0	10.5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b	...	453	884	1,038	1,202	16.3	19.5
크로아티아 Croatia	...	777	1,785	2,023	2,340	9.9	9.1
쿠바 Cuba ^d	...	826	1,571	1,556	...	17.1	16.4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b, d}	413	964	1,172	1,336	1,697	10.2	12.3
에콰도르 Ecuador	206	423	900	985	1,289	11.4	9.5
이집트 Egypt ^d	4,793	4,208	4,791	4,733	6,242	30.0	23.1
엘살바도르 El Salvador ^d	158	692	1,024	983	1,377	14.0	15.9
유럽연합 European Union(27) ^f	-	253,703	405,084	441,077	528,536	9.8	9.5
유럽연합외수입액 extra-EU(27) imports	-	78,952	113,596	124,259	149,457	8.6	7.7
과테말라 Guatemala	196	673	1,267	1,379	1,568	14.1	11.6
홍콩 Hong Kong, China	8,325	11,728	11,087	11,904	13,427	5.5	3.6
보유수입액 retained imports	4,591	6,488	7,308	7,792	8,601	18.6	22.1
인도 India	1,721	3,953	7,547	7,870	9,580	7.7	4.4
인도네시아 Indonesia	2,126	5,727	7,316	7,487	10,464	13.1	11.3
이란 Iran, Islamic Rep. of ^d	3,830	2,943	3,794	4,270	5,196	21.2	11.3
이스라엘 Israel	1,565	2,288	2,930	3,253	3,979	6.1	6.7
일본 Japan	50,762	62,185	65,947	65,623	68,865	16.4	11.1
요르단 Jordan	709	942	1,547	1,671	2,199	20.5	16.3
카자흐스탄 Kazakhstan ^d	-	506	1,413	1,849	2,140	10.0	6.5

구분	수입액 Value					전체 상품수입액에서의 비중 Share in economy's total merchandise imports	
	1990	2000	2005	2006	2007	2000	2007 ^a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	9,531	12,837	16,773	18,579	21,943	8.0	6.1
쿠웨이트 Kuwait ^d	589	1,312	2,282	2,373	2,848	18.3	12.0
레바논 Lebanon ^{b, d}	...	1,210	1,603	1,607	2,017	19.4	16.5
말레이시아 Malaysia	2,404	4,610	7,245	8,505	10,612	5.6	7.2
멕시코 Mexico ^b	5,374	10,989	16,457	18,462	21,901	6.3	7.8
모로코 Morocco	1,096	1,941	2,774	2,832	4,622	16.8	14.6
뉴질랜드 New Zealand	756	1,204	2,200	2,329	2,841	8.7	9.2
나이지리아 Nigeriad	658	1,212	2,963	4,261	6,989	13.9	23.7
노르웨이 Norway	2,090	2,956	4,823	5,239	6,770	8.6	8.4
오만 Omand	506	1,158	1,104	1,230	1,657	22.6	10.3
파키스탄 Pakistan	1,568	1,882	3,656	4,131	4,518	17.3	13.9
페루 Peru	668	998	1,654	1,795	2,466	13.5	12.2
필리핀 Philippines ^d	1,665	3,104	3,860	4,073	4,300	8.4	7.4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b, d}	-	9,262	19,154	23,377	26,884	20.7	12.0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3,487	5,663	9,138	9,851	12,445	18.7	13.8
세네갈 Senegald	372	394	950	917	1,292	25.9	29.0
싱가폴 Singapore	4,702	4,890	6,408	6,985	8,332	3.6	3.2
보유수입액 retained imports	1,789	2,369	3,745	4,255	4,768	3.1	4.0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b	1,219	1,650	3,048	3,687	4,832	6.2	6.0
스리랑카 Sri Lanka ^d	549	934	1,131	1,333	1,509	13.0	13.4
수단 Sudan	...	376	957	1,090	...	24.2	13.5
스위스 Switzerland	5,920	5,693	8,248	8,854	10,375	6.9	6.4
시리아 Syrian Arab Republic	791	850	1,719	1,810	...	22.3	15.8
대만 Taipei, Chinese	6,203	7,899	9,480	9,659	10,780	5.6	4.9
태국 Thailand	3,230	4,484	7,120	7,347	8,446	7.2	5.5
튀니지 Tunisia	819	968	1,461	1,574	2,298	11.3	12.1
터키 Turkey ^d	2,806	4,133	6,480	7,286	10,055	7.6	5.9
우크라이나 Ukraine	-	1,092	3,075	3,574	4,582	7.8	7.6
아랍에미리트연합 United Arab Emirates ^d	1,726	3,857	7,241	8,811	11,295	11.0	8.6
미국 United States	39,966	69,115	95,803	103,648	109,403	5.5	5.4
베트남 Viet Nam ^d	236	1,269	3,668	4,411	6,086	8.1	10.0
예멘 Yemend	...	...	1,201	1,084	1,700	...	26.2

a: 또는 최근연도. Or nearest year.

b: 수입액은 본선인도 조건의 금액임. Imports are valued f.o.b.

c: 수치는 회계연도의 자료임. Figures refer to fiscal year.

d: 사무국이 추정 한 값을 포함함. Includes Secretariat estimates.

e: 2000년부터의 수입액은 본선인도조건의 금액임. Beginning 2000, imports are valued f.o.b.

f: EU(27)역내 수입량의 메타자료를 참조바람. See the Metadata for information on intra-EU(27) imports.

M45-104 세계농업 제104호 (2009. 4)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년 4월

발 행 2009년 4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